信 心과 精誠으로 靑銅文化의 脈을 이어가는 匠人들의 作品
불상 · 탱화 · 범종 전시관
전화:02-735-1045 / 팩스:02-735-2344

현대불교

55 세부터의 월급, 국민은행에서 드리겠습니다.
국민은행 개인 연금 신탁
가입문의 : 080 - 023 - 4000

명예회장 : 노대행 / 발행인 겸 편집인 : 김광삼 / 논설고문 : 고은 / 편집국장 : 최정희 / 인쇄인 : 김규식 / 등록번호 : 다-3379 /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 : 737-8881 / 편집국 : 722-4162 FAX : 737-0698 / 광고국 : 737-0692 / 구독신청 : 737-0693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38년(서기 1994년) 12월 28일 수요일 (주간)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금주의 법구

부처는 곧 이 마음이므로
어찌 먼 데서 찾으랴.
(수심결)

법회 안내

청우사 (02)531-9542
천수경 강의 매주 일 오전10시
초청강연 매주 수 오후7시
초하루기도 매월 초하루(음)
지장재일 매월 18일(음)
관음재일 매월 24일(음)

정법사 (02)762-3852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중 · 고등부법회 일 오후2시
청년부법회 매주 일 오전11시

칠보사 (02)732-7498, 1424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중 · 고등부법회 일 오전11시
청년부법회 매주 일 오후2시
장년법회 매월 둘째, 셋째 일 오전10시
거사림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정각사 (02)742-1231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중 · 고등법회 일 오전11시
장년법회A 매월 둘째 일 오후6시
장년법회B 매월 셋째 토 오후6시

경주 고불선원(0561)746-1481
참야장진 매주 토 오후9시
교사법자회 매주 수 오후6시
거사림회 매주 목 저녁7시50분
가족법회 첫째, 셋째 일 오전11시
합동법회 매월 첫째, 셋째 목 오전10시
지장회 매월 18일(음)오전10시

부산한마음선원(051)402-7077
어린이법회 일 오전10시30분
학생부법회 매주 토 오후5시
한마음요전법회 금 오전11시
청년회법회 매주 수 오후7시
여교사신행회 둘째, 넷째 화 오후6시
거사신행회 화, 목 오후7시
신입신도법회 둘째, 넷째 목 오전11시

광주 무각사(062)371-0607
정기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초암참교위안법회 수 오후7시
초하루법회 매월 1일(음)

※ 이난은 각 사찰의 법회 소식을 알리는 난입니다. 법회안내를 원하시는 사찰 · 포교당은 전화(722-4162) 팩스(737-0698)로 연락바랍니다.

종교인구 줄었다

3년만에 4% 감소 … 불교인은 3%

불자 고령화 여전, 법회 참여율 증가

통계청 조사

종교인구가 줄고 있다.

우리나라 15세이상 인구중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은 전체의 49.9%로 이는 지난 91년 조사된 54%보다 4% 이상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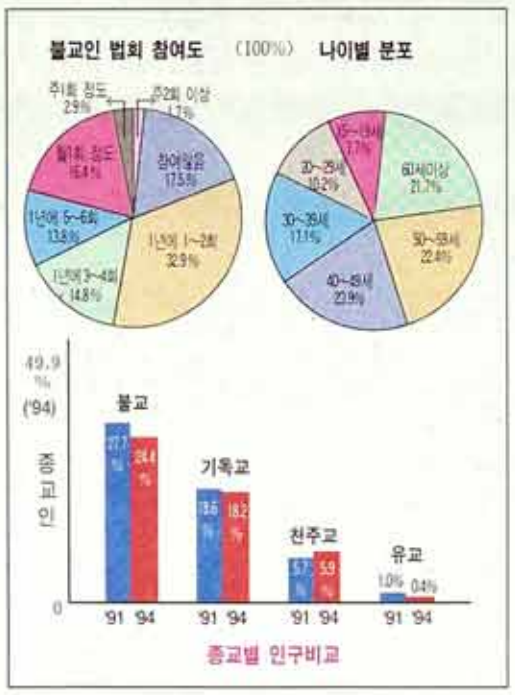
이같은 사실은 통계청 사회과가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1일까지 10일간 전국 약 3만2천 5백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 드러났다.

국민생활, 국민의식의 실태와 수준을 파악해 이를 국가 사회개발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키 위해 3년에 1번씩 실시되는 사회통계조사는 전국의 만 15세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소득 · 소비와 △사회부문으로 나뉘어 사회부문에서 △종교인구 및 집회 참여도가 표본조사됐다.

불교인은 91년 조사된 것보다 3.3% 떨어진 24.4%로 나타났으며 기독교(18.6→18.2%) 유교(1.0→ 0.4%)신자 역시 감소되고 있으며 천주교만은 91년보다 0.2% 늘어난 (5.7→ 5.9%) 수치를 보였다.

〈관련기사 2면〉

91년 사회지표와 비교해 보면 전체종교인구는 남자가 46.8→ 41.9%로 4.9% 줄었고 여자가 60.5%→ 57.4%로 3.1% 줄었다.



불교는 남자(24→20.3%) 여자(31→28.2%) 신도 모두 줄었고, 연령별로 살펴보아도 고르게 줄고 있다.

한편 종교인구의 51.2%가 평균 월 1회이상 종교집회를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91년의 47.1%와 비교해 볼 때 4.1% 늘어나 종교인구는 줄어든 대신 참여도는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교는 법회 참석등 집회참여도가 주 1회이상(주 2회포함)이 4.6%로 '91년(4.2%) 보다 0.4% 늘었고, 월 1회까지 포함하면 21%로, '91년의 17.2%보다 3.8% 늘었다. 이는 도심포교당을 중심으로 일요법회 등 정기법회가 정착하고 있고, 사찰에서 열리는 다양한 법회로 인해 신도참여가 늘어난 것에 기인한다고 보여진다.

기독교와 천주교를 살펴보면 주 1회 이상(주 2회포함)이 각각 77%와 64%로 드러났다.

한편 불교는 여전히 고령화 저하력화를 보이고 있다.

종교를 가진 15~19세의 기독교 천주교인이 불교인 보다 2배 반이 넘는 반면 50대 종교인은 불교가 36%로 가장 높았다(기독교 14.9%, 천주교 5.5%). 학교 이하 종교인 54.1% 가운데 55.2%가 불교를 믿고 있으며 대졸이상의 종교인 52.6% 가운데는 불교가 17% 기독교 24.3% 천주교 10%로 나타났다.

종교인 조사때면 늘 보이듯 학력이 낮을수록 연령이 고령화로 갈수록 불교를 믿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기독교등 타종교와 대조를 보이고 있다.

대졸이상의 지성인들이 사회각계의 지도자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볼때 지성인을 대상으로 한 포교의 시급함이 여전히 대두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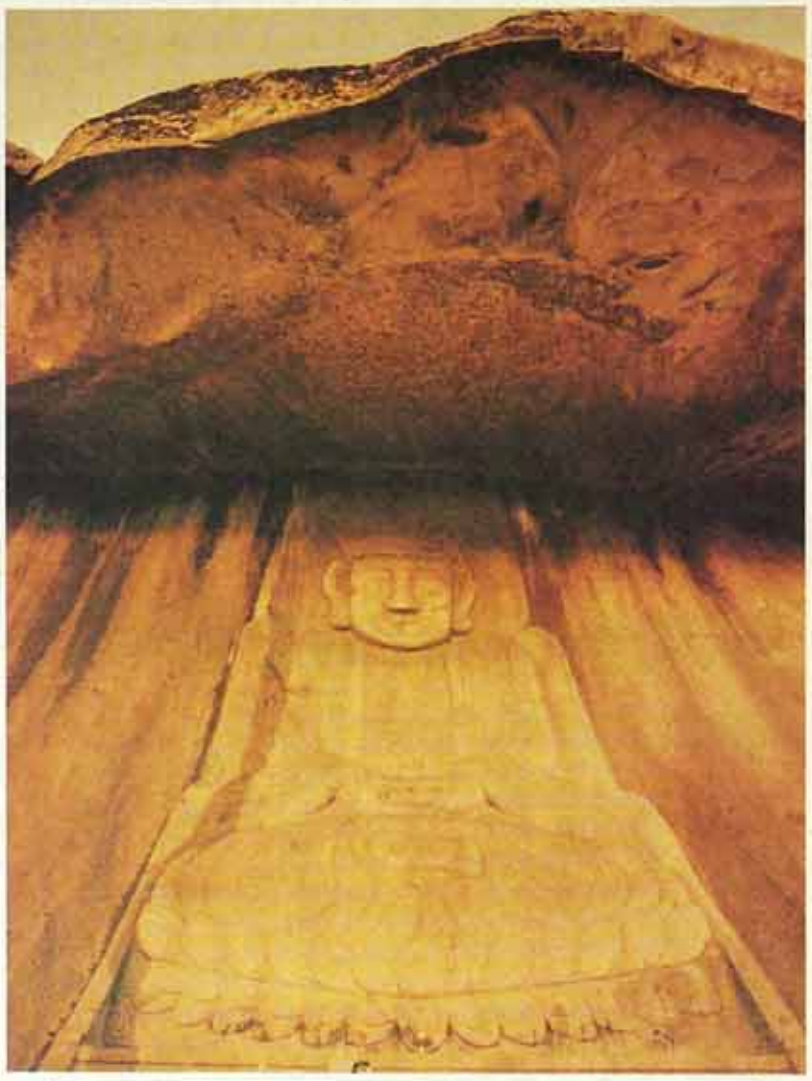
〈이경숙 기자〉

불교인권위, 사형제폐지위 신설

불교인권위원회(공동대표 진관, 한상법) 산하에 「사형제폐지위원회」가 신설됐다.

인권위는 지난 20일 새해 사업안으로 인권보호를 위한 사형제 폐지를 적극 주창하기 위한 위원회 신설과 함께 ▲불교인권 법당 마련을 위한 기금마련 방안으로 전시회, 불교인권학교, 여성불교학교 개설 ▲기독교 천주교 인권위 · 국제인권위 · 통일단체 · 사회운동단체들과 연대등의 사업을 펼쳐 나간다고 밝혔다.

연말연시를 부처님과 함께 12 · 13면
'94 불교계 결산 … 종단 선정 10대뉴스 14면



서방정토의 빛으로 한해가 저물고 …

갑술년이 저무는 서해 바닷가. 장엄한 낙조가 중생의 서원과 애환을 어루만지시는 관세음보살님의 법신을 물들였다. 시비세계의 온갖 슬픔과 기쁨을 한데 묻혀 찬란히 태워내는 저 서방정토의 법광 속에 또 한 해를 묻어두고 우리는 겸허한 반성의 시간을 갖고 새 아침을 설계하자.

〈사진 : 강화 보문사에서 박재완 기자〉

목어

낙조의 아름다움

낙조는 아름답다. 24시간 동안에 일어난 숱한 사건과 사연을 다 머금은 낙조가 자못 더 아름다운 이유는 무엇일까.

기쁨과 슬픔, 고뇌와 사랑, 용서와 화해가 용해되어 있는 삶의 수채화로서 내일을 잉태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또 한해가 저물고 있다. 마치 아름다운 낙조가 서쪽 하늘을 물들이듯 갑술년이 우리들 가슴에 낙조를 드리우면서 지고 있다.

1994년은 유난히 아픔과 시련이 컸던 해이다. 불교계의 경우 '조계종의 4월'을 비롯해서 뚜렷한 방안을 많이 남겼다. 교계 밖에서도 새삼 열거할 것도 없이 많은 일들이 있다.

'한단도 지랑이리, 고뇌도 법열이리.' 그렇다. 한단이 지랑이 되고, 고뇌가 법열이 되려면 우리는 뼈아픈 자기비관과 가슴 저미는 참회를 해야겠다.

이러한 반성을 갖지 않는다면 갑술년 한해의 시련과 아픔은 아무 의미가 없다.

"비록 무거운 죄를 지었더라도 뉘우치고 다시 범하지 않으면 계율을 따르는 일이 되나니 그 죄의 뿌리가 뽑혀지리라."(증일아함경)의 말씀이다.

부처님께서는 또 〈장아함경〉에서 이렇게 일러주신다.

"말로는 그 허물을 모두 뉘우쳤다고 하지만 안으로 그 마음 사라지지 않으면 어떻게 원망하는 마음을 쉬어 착한 마음을 닦는다고 말하리."

아름다운 낙조를 바라보면서 참으로 자기를 들여다 보자. 그러면 저절로 선(善)해 지리라. 그래 희망찬 새해가 우리를 기다릴 것이다.


목각가람판 오대산 월정사(月精寺) 국보 석문사(聖輪寺) 서울 정로교회 서울 개인주택 부산 관기정호텔

전통기와의 멋과 품격을
풍산 한식銅기와가 완벽하게 재현했습니다!

풍산 한식동기와는 전통을 소중히 하는 사찰, 고건축물 등 한식가옥과 주택의 미를 추구하는 기념건축물, 일반 가옥 등에 잘 어울리는 자붕재입니다.

■ 내식성이 뛰어나 수명이 반영구적입니다.
풍산 한식 동기와는 시공후 짧은 시간내에 표면에 치밀한 조직의 산화막을 형성, 부식을 막아주므로 수명이 반영구적입니다. 또한 내후성과 염수성이 뛰어나 어떠한 가혹 조건과 변화에도 안정된 상태를 유지, 눈, 비, 바람으로부터 건물을 보호해 줍니다.

■ 고색창연한 색상과 전통미를 재현했습니다.
풍산 한식동기와는 동판 특유의 색상변화에 따라 시간이 흐를수록 중후한 색상을 이루어 건물에 고색창연한 멋을 더해줍니다. 여기에 동판의 우수한 가공성을 이용, 우리기와의 전통적 원형과 곡선미를 완벽하게 재현시킴으로써 고유의 멋을 그대로 살려주고 있습니다.

■ 시공이 간편하고 경량입니다.
풍산 한식 동기와는 주요 기와부품을 기계 가공해 제품이 규격화되어 있으며 완전조립식으로 시공이 간편합니다. 또한 기와의 중량이 흙기와의 10분의 1정도로 가벼워 운반이 쉽고 건물에 무리를 주지 않습니다.

뛰어난 내식성과 내후성, 중후한 색상, 완벽하게 재현된 전통미 그리고 시공이 간편한 풍산 한식동기와로 현대건축물에 전통가옥의 멋과 품격을 살려보십시오.

株式會社 豐山
전화 : 273-3021/9 FAX : 273-3835

풍산 한식동기와로 시공한 대표적 건물 목각가람판, 오대산 월정사, 구례 화엄사 각기전, 하동 칠불사, 부산 관기정 호텔, 문경 김룡사, 문경 내송사, 부산 복천사, 삼주 유적사, 국장 성류사, 서울 정로교회, 서울 개인주택, 제천 감천사, 대구 관암사, 대덕 현불사, 구미 해운사, 나주 흥사리다, 설산 한국도로공사, 이리 원일유업, 대구 대구여중, 서울 회기사

사 설

자성의 촛불로 내일을 밝히자

세밑이다. 비록 평온한 한 해였다고 해도 많은 사람은 세밑이면 으레 아쉬움과 뉘우침이 가슴을 누르는 때이다.

그런데 올해는 온갖 흉악범이 횡행하고 지난 해 보다도 더 끔찍한 대형 안전사건과 사고가 때를 놓칠세라 숨돌릴 사이 없이 잇달아 일어나는가 하면 국민의 혈세를 착복하는 세도가 전국을 휩쓸다 시피하여 나라 안은 온통 벌집을 쑤신듯 걷잡을 수 없게 한 한 해였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놀라고 분노하고 가슴 아파하다가는 급기야 실의에 빠져 내일을 내다 볼 수 없는 암담함으로 망연자실한 한 해였다.

새해를 맞이하는 희망과 설레임까지도 앗아가버린 1994년의 세밑에 우리를 더욱 우울하게 하는 것은 바다와 육지와 하늘에서 일어난 지난 해의 그 대형 참사들이 사람의 잘못으로 일어났고, 그것을 계기로 마땅히 인재(人災)에 대한 각성이 있었어야 함에도 올해의 숱한 사건 사고가 여전히 사람의 잘못으로 저질러졌으니 새해라고 해서 사람으로 인한 재해가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세태에 대해서 불교계는 응분의 종교적 책임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것은 불교가 업보를 강조하는 인연을 설하며 연기를 가르쳐 사람으로 하여금 안심입명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스스로의 정화를 통하여 사회정화에 기여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자성과 노력이 여느 때 보다도 교계에 팽배했던 것은 혼탁한 사회로부터 받은 자극이 없지 않았다고 본다. 그 구체적인 한 예로 한국불교계의 대표적 종단인 조계종의 개혁불사를 들 수가 있을 것이다. 자정(自淨)과 개혁이 없이는 종단 자체로서도 그러하겠지만 사회적으로도 존립의 의미를 잃을 것이므로 법난과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전종도가 합심하여 이루어 낸 조계종의 개혁불사는 그러한 점에서 고무적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조계종의 개혁불사가 불교정화운동 이후에 일어난 가장 큰 개혁불사로서 두 불사가 같은 선상에 있다고 보는 시각이 없음을 차제에 환기시키고자 한다. 이러한 시각은 이 개혁불사의 의미를 높이 함과 동시에 그 귀추에 대한 기대 또한 작지 않음을 말해 준다.

이밖에 올해 발족한 불교텔리비젼은 불교계의 오랜 숙원이 이루어진 점에서도 매우 큰 수확이 아닐 수 없다. 현대에 있어서 텔리비젼이 대중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막강함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또 미래에 있어서도 그 위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그러함에도 텔리비전을 비롯한 영상매체가 불교계에 없었다고 하는 것은 불교의 대사회적 기능이 그만큼 좁은 영역에 갇혀 있었고 따라서 다양하지 못하고 적극적이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이제 불교계가 텔리비전방송을 갖게 되므로써 대중사회를 향한 문이 활짝 열린 것이다. 특히 불교텔리비전방송의 설립이 주식공모를 통하여 이루어진 점은 이 방송이 사회적 공기로서 사회의 관심을 끌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동시에 그동안 독점되다 시피한 활동에 일반이 참여하는 개방된 시대가 이르렀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또한 불교의 일반화와 보편화와 생활화에 속도를 가하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다. 인간의 생활을 떠난 불교는,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지만 형해화할 수 밖에 없다. 불교가 살기위해서는 사람의 삶 속에 있어야 하고 사회의 복판에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써 함께 숨쉬어야한다. 그런 점에서 생활불교를 지향하는 본지(현대불교신문)의 창간 또한 의미가 작지 않다고 자부한다. 본지는 과거에서 배우고 오늘의 생활을 불교화하므로써 내일을 열어 가고자 한다. 올해의 그 숱한 사건과 사고가 과거를 타산지석으로 삼지 않는데서 비롯되었음을 앞에서 지적한 바 있다. 우리는 과거를 잇는 건망증이 너무 심하지 않은가 한다. 잊을 뿐만 아니라 없앨 수 없는 과거를 없애고자 하는 경향이 농후하다는 생각까지도 하게 된다.

각종 공해에 의해서 훼손되고 또 사람의 손에 의해서 우정 훼손되는 문화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 제 민족의 문화를 아끼지 않는 민족이 삶의 바탕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외규장각 도서의 반환을 거부하는 프랑스 도서관 직원의 대통령을 향한 읍소는 그 문화재가 저희 나라것이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인류의 문화재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우리의 세계성이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시 론

아직 '개혁' 마무리 못했지만



김 철 수
〈서울대 법학과 교수〉

어느덧 1994년도 저물어 간다. 돌이켜 보면 다사다난한 한 해였다. 정치면에 있어서는 예산안과 법률안의 날치기 통과가 있었고, 잦은 불협화음으로 삐거덕거리던 행정부의 허둥거림이 극심했다. 사법적 측면에서는 제1기 헌법재판소의 임기가 끝나고 제2기 헌법재판소의 임기가 시작되었고 사법개혁입법이 행해졌으며 대법관의 과반수가 변경되는 소용돌이에 싸였다.

그러나 무어니 무어니해도 가장 충격적인 것은 성수대교의 붕괴, 가스폭발, 유람선 화재 등 인재가 겹쳤던 일이다. 양친을 살해한 파렴치범이 있었는가 하면 전국적으로 세도(稅盜)들이 날뛴, 그야말로 사고연속의 해였다. 공무원사회는 복지부동(伏地不動)을 거쳐 행정조직개편에 따른 복지냉풍 사태를 연출하고 있다.

국회는 국회법개혁으로 효율성을 찾는가 하였더니 여야간의 대화와 타협부족으로 정기국회의 공전을 가져왔고 급기야 예산안의 날치기 통과를 가져와 국민들을 실망시켰다.

법원도 사법개혁입법을 통과시켜 국민에 대해 봉사하는 사법부를 강조하였으나 아직도 눈에 띄는 변화는 없다. 검찰은 12·12사태의 기소유예 때문에 정치투쟁에 휘말리게 되었고 5·17, 5·18에 대한 내란죄수사에 매달리게 되어 내년에도 시끄러울 것 같다. 세도는 많이 잡아 넣었으나 끔찍한 대형 뇌물수수사건을 어물쩍 넘김으로써 검찰의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불신을 야기시키고 있다. 검찰에 대한 불신은 사회기강에 대한 불신으로 증폭되고 있다.

국민을 실망시키지 말아야

정당도 내년에 있을 전당대회를 의식하여 계파간의 갈등이 드러나고 있다. 신민당의 반쪽 전당대회가 각목과 폭력으로 얼룩져 국민의 실망을 자아냈는가 하면 민주당은 민주당 각 계파간의 세력다툼으로 새로운 이합집산이 행해지고 있다. 여당인 민자당도 3당합당의 원죄 때문에 시달리고 있다. 실세인 민주계에 의한 헤게모니쟁탈에 대하여 다수파인 민정·공화계는 침묵을 지키고 있으나 당대표제, 부총재경선제 등으로 잡음이 일 공산이 크다.

종교계에서도 개혁을 부르짖었다. 불교개혁은 새로운 총무원장체제가 구성되어 개혁의 발걸음을 내딛고 있고, 기독교에 있어서는 지나친 모금행위 등으로 인한 비판이 일고 있다. 일요일을 철저히 지키겠다든가 청와대의 기도하는 모습의 공개 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 정교분리의 원칙은 보다 선명히 지켜져야 할 것이며 종교간의 대립경쟁은 최소한에 그쳐야 할 것이다.

새해는 지방자치단체의 4대선거가 동시에 행해지게 될 계획이다. 6월 29일에 있을 지역단체장 선거와 광역의회의원 선거,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와 기초자치의회의원 선거 등이 동시에 있게 되어 과열되지나 않을까 걱정이다. 민주계에서는 이를 막기 위하여 통역시와 도폐지론까지 거론하고 있어 어수선하다.

세계화의 꿈을 키우자

비록 자치단체의 선거가 행해져 좀 시끄럽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민주정치를 하기 위한 기초훈련임을 명심하고 참아 나가야 하겠다. 공직선거법의 선거운동규제가 많이 완화되었으나 금권선거는 많은 규제를 두고 있다. 특히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규제를 두고 있으며 연좌제까지 규정하고 있어 깨끗한, 돈 안드는 선거가 기대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결과를 감안하여 지역주민 자치를 보다 민심에 합치되도록 운영하여야 하겠다. 내 고장 일은 내가 스스로 처리하는 자치제도가 확립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자립도가 낮아 과연 중앙정부의 예속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지 걱정이다. 지방화, 지방분권화시대를 맞아 지역주민의 자치의식 앙양이 절대적으로 요망되고 있다.

선거가 없는 1994년은 개혁을 마무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그동안 대형사고에 얽매어 개혁을 완성시킬 수 없었다. 행정쇄신위원에서 정부직제개혁이 단행되어 보다 효율적인 정부가 구성되도록 해야 하겠다.

새해에는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을 행정과 정치가 집행되어야 한다.

1995년의 지방선거는 1996년의 국회의원선거, 1997년의 대통령선거의 전초역을 담당할 것으로 보여 정당체질과 선거행태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대통령선거공약이었던 '안정 속의 개혁'이 아직은 성공하지 못했다. 지속적인 개혁을 통하여 민생경제를 진작시키고 사회기강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대통령 혼자만 뛰지 않고 모든 국민이 합심하여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염심히 일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일하는 사람이 일한 만큼의 댓가를 받고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구성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국민들도 혼란한 사회일수록 안빈낙도할 수 있는 정신적 무장을 해야 할 것이요,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를 형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하겠다.

다사다난했던 94년을 보내고 국제화·세계화의 꿈이 익어 갈 95년을 기대해 본다.

이경숙 기자

종교인구 왜 감소하나

기성종교 제몫 다하지 못한 탓
사회변화·개인주의도 큰 요인

종교인구의 감소추세는 해방이후 한국사회에서 종교인구가 경이적인 성장으로 세계의 주목을 끌어온 것과 비교할 때 그 원인에 지대한 관심이 쏠린다. 90년대 들어 각 종교가 자체 발표한 교세 통계 자료에 의해서도 신자 증가율이 상당히 둔화되거나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번 사회통계조사에서 천주교를 제외한 각 종교인구의 감소추세는 우리사회에서의 종교의 역할에 대해 다시금 생각케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종교인구의 감소추세의 원인으로 다음 세가지를 꼽아볼 수 있다.

먼저 해방이후 남북분단과 전쟁이후의 산업화 과정 등에서 기독교 등 서구종교는 시민들에게 밀접하게 파고 들었다. 또 경제개발을 앞세운 독재 정치에 맞선 민주화운동등 시류에 편승 사회적 영향력을 획득했다. 그러나 90년대 이후 우리사회는 권위주의 청산이라는 사회변화와 함께 시민사회영역이 다양화·전문화됨으로써 예전과 같은 종교의 영향력은 많이 줄어들 수 밖에 된다. 따라서 영향력 감소와 함께 종교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게 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시민들의 생활이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해짐에 따라 종교에 대한 의존도가 점차 약해져 가고 있는 점을 들수 있다.

셋째는 기성종교와 종교지도자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고 세속화되어 가는데 기인한다. 특히 종교지도자들의 위선과 타락, 사찰·교회의 대형화에 따른 지나친 금전강요는 종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떨어져 나가게 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불교는 그동안 고질적으로 재연해 왔던 분규·재산싸움 등 비리가 세인의 눈쌀을 찌푸리게 했고 수행자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 왔다는 점이 주 감소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윤승용 박사(종교학, 한국종교 연구회장)는 "과거 우리사회는 권위주의 국가체제하에서 국가 공공영역의, 시민 사회영역에 대한 전면적인 개입으로 말미암아 종교영역 역시 국가권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온 반면 시민사회가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종교는 시민사회의 자율영역을 대표하고 있었다"고 지적하고 "종교는 집권자로부터는 체제정당성의 보강을, 사회로부터는 시민사회의 파수꾼의 역할을 요구받아 마음껏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해 왔지만 이제 종교는 시민사회의 자율영역을 대표하는 대표자도 아니고, 모든 사회문제를 대행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도 감소되었다."며 한국 종교인의 감소는 바로 이와 같은 우리사회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혜스님(조계종 포교부장)은 "종교에 냉담해 지는 것은 종교가 그 사회에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맞물려 보시와 헌신등 종교적 삶보다도 이기적인 자기중심적 삶을 살려는 현대인들의 가치관 때문"이라 지적했다.

스님은 외부로 보여지는 종교인구의 양적 확대보다는 부처님의 말씀을 진실로 따르고 실천하며 삶의 지표로 살아가려는 불자가 늘어나는 질적 내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병조교수(동국대, 국민윤리학)는 타종교와 달리 불교인구 감소는 일시적 현상일 것으로 내다 봤다.

정교수는 "불교가 청소년 포교라든가 직장법회·재가불자 활성화 등에 대해 적극성을 보이는 등 적극적으로 중생들 삶의 고뇌에 뛰어드는 일이 필요하다"며 포교방안의 혁신을 역설했다. 정교수는 "관광사찰에 모여드는 인파에게만이라도 삶을 위한 '무엇'을 준다면 불교인구 감소는 걱정안해도 될 일"이라고 대비책으로 조직적·효율적 포교를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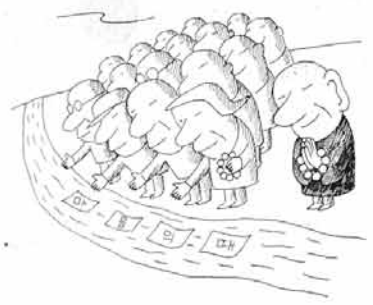
타종교와 달리 불교인구의 감소 원인으로는 고령화인구가 많은 불교인의 사망에 따른 자연적 감소와 젊은 층에 대한 포교의 취약성이 지적되고 있다. 불교이념 즉 부처님 가르침을 살아숨쉬게 한다면 불교인구는 늘어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의견이다.

종교가 스스로의 반성적 자각없이 시대적 역할을 망각하고 편협된 종교적 도그마에 갇히거나 세속적 물욕에 빠져든다면 필연적으로 종교인구는 감소될 수 밖에 없다.

한국불교 역시 2천만이라는, 허수에만 자족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정화와 개혁에 단합된 힘을 쏟아부어 종교로서 제 본연의 역할을 다해야 하는 과제가 더욱 명확해졌다.

현대만평

박구원



한해를 보내며…



모든 불자님 가정마다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충만한
새해 새날이 되시길 기원하나이다.

乙亥元旦

(사) 한국불교대원회

이 사 장 박 윤 혼
상임이사 이 지 행
법회회장 이 상 우
관음회장 에 치 만
선행회장 김금련화
합창단장 정 이 순
청년회장 김 두 성

대원불교대학

학 장 허 성 구
법사단장 오 경 환
동문회장 김 용 직
27기회장 이 태 구
28기회장 강 희 병
29기회장 박 문 규
30기회장 임 명 성

"불교대중화를 선도하는
대원불교대학이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2년제 야간, 전문과정 • 20년 역사의 불교계 최초 전문 교육기간 • 교계 최고의 강사진

1. 모집학과: 불교학과 {출강과정 ○○명 / 통신과정 ○○명}
2. 지원자격: 불교를 배우고자 하는 자.
3. 전형방법: 서류전형후 개별통보
4.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1995년 2월말일까지
5. 교 과 목: 주 5일 수업

1학년	1학기	불교학개론	선종사상	한국불교사	인도불교사	불전개설	
	2학기	불교입문	화엄사상	밀교사상	법화사상	정토사상	
2학년	1학기	의식이론	반야사상	포교방법론	불교미술	유식철학	
	2학기	의식실수	불교상담학	불교복지론	종교사및종교학	원전강독Ⅱ	

6. 특기사항: 졸업후 소정의 법사고시를 거쳐 법사호 수여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교로 문의 바람
140-190 서울 용산구 후암동 358-17
전화: 776-7156, 773-9171, 754-1613 FAX: 756-7258

대원불교대학

대원불교대학 · 대원불교대학 · 대원불교대학 · 대원불교대학 · 대원불교대학 · 대원불교대학 · 대원불교대학 · 대원불교대학 · 대원불교대학 · 대원불교대학 · 대원불교대학 · 대원불교대학 · 대원불교대학 · 대원불교대학 · 대원불교대학 · 대원불교대학 · 대원불교대학 · 대원불교대학 · 대원불교대학

생활속의 오계(五戒)실천 —— '94를 돌아본다

파계로 얼룩진 한 해…'살맛' 잃게 해
우리터전 되살리기 운동 그나마 다행



◇지난 한해동안 생명공양운동·환경운동등이 다채롭게 전개됐다. 사진은 노인공경 캠페인.

갑술년이 다 저물었다.

지난 한해도 우리 사회는 어수선했 사회뿐만 아니라 불교계도 개혁의 몸살을 뜨겁게 앓았던 한 해였다. 성철 스님의 입적이란 아픔이 가시기도 전에 밝은 갑술년에 일어났던 불교계의 변화는 한국 불교의 실상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었다. 구종권의 퇴락과 계혁의 굴절 그리고 새로운 총무원장이 선출되어 종단의 안정을 다져나가려는 노력으로 한해가 저물어 가는 것이다.

불교계의 이같은 변화 속에 사회적으로도 충격적인 사건 사고가 한 해를 이어왔다. 인륜의 추락을 극단적으로 보여 준 박한상의 부모 살해, 지존파의 살인공장,. 세금을 도둑질한 공무원들 실종된 책임의식의 결과물인 아현동 가스 폭발사고등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정말 살기 힘든 세상'임을 실감케 했다.

그러나 이같은 일련의 사건 사고들 속에서도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한 선행은 끊임없이 이어졌다.평생모은 재산을 대학에 기증한 장내순 할머니, 자신의 신체를 이웃을 위해 내놓은 불자들, 지구 환경을 살리기 위한 대대적인 캠페인과 실천 행사들이 우리 사는 세상을 '그래도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어 왔던 것이다.

지난 한해동안 우리는 부처님이 가르쳐준 진리의 삶에 얼마나 충실해 왔는가. 이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5계를 중심으로 점검해본다.

◇생명을 죽이지말라

생명공양, 환경운동 생명을 함부로 죽이는 것은 인간적 삶의 모습에 배치되는 행위다. 지난 한해 동안 펼쳐온 각종 단체의 환경운동은 불살생계를 지켜가는 사회적인 노력이었다. 샛강살리기 운동, 그린스카우트 운동, 생명공양운동등의 성과는 당장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깨끗한 환경 가구기에 지대한 역할을 해 왔다.

이들 운동은 인류가 존재하는 한 계속 전개될 것이다.

줄이은 살인사건들 지존파의 살인행각, 온보현의 몰인간적 살인, 박한상의 반인륜적 부모 살해등은 인간을 더이상 인간이지 못하게 하는 엽기적인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다. 이같은 생명경시 풍조는 인간다운 삶의 터전을 가꾸려는 환경운동과 대조할 때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시류이다.

◇도둑질 하지말라

선뜻 내놓은 재산과 육신 남의 허락 없이는 물한모금을 마셔도 죄가 된다는 가르침, 그 가르침을 실천하는 과정으로 지난 한해동안은 많은 보시행이 펼쳐졌다. 장내순 할머니의 12억희사, 장지원경 보살의 장기기증, 감로심장회의 심장병 무료수술과 안구기증운동, 르완다 난민을 돕기위한 대대적인 모금운동등은 인류행복의 근원이 바로 보시행에 있음을 보여줬다. 또한 불교계에서는 각종 복지시설이 연이어 문을 열었고 불우시설에 대한 자원봉사의 손길도 폭넓게 펼쳐져 공동체 사회의 행복 추구를 위한 자비행의 소중함을 일깨웠다.

세금도둑질의 충격 전국에서 드러난 세금비리는 국민의 기본권을 훔치는 몰염치한 행위로 역사에 기록 될 것이다. '공무원이 도둑으로 변하면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하느냐'는 허탈감을 자아낸 세금도둑은 불부도계를 어긴 가장 큰 죄악이었던 것이다. 정부차원의 세밀한 감사가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만큼 세금도둑에 대한 죄값은 계속해서 물게 될 것이다.

◇삿된 행을 하지말라

퇴폐문화의 극성 음행은 개인과 사회를 좀먹는다. 그러나 지난 한해동안에도 퇴폐문화는 우리 사회에 독버섯처럼 자라왔다. 뿌리채 뽑아내야 할 퇴폐풍조의 근원은 바로 건강하지 못한 국민의 의식에 있다는 지적도 이제는 일반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란 영화, 음란비디오들이 계속 쏟아져 나와 사회 기강을 문란케하고 청소년들까지 악물에 중독되고 음란 영화 비디오에 정신을 빼앗기고 있다는 기사는 일년내내 신문에 오르내렸다.

건강사회의 실현 불교계에서는 불사음계를 지키려는 첫째 노력으로 가족법회의 확산을 보여줬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도심사찰을 중심으로 시작된 부부법회, 가족법회의 확산은 건강한 사회 만들기에 일정의 기여를 했다는 평이다. 아울러 사회적으로 선풍을 일으켰던 문화유적에 대한 관심의 확대, 또한 높아진 국민의식의 단면을 보여준 계기로 꼽히고 있다.

◇거짓말 하지말라

인간신뢰 운동의 확산 거짓말은 개인과 사회에 엄청난 죄값을 물게한다는 가르침도 지난 한해동안 여실히 입증됐다. 착한 삶, 청결한 생활을 영위해야 한다는 당위성 아래 출발한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은 지난 한해동안의 가장 큰 수확이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사회적 신뢰감을 한 순간에 무너뜨린 사고가 바로 성수대교 붕괴 사고였다.

위악이 부른 대형사고 기업의 건설행위는 기업이윤 추구에 앞서 공익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그러나 공익성이 무시된 공사의 결과로 다리가 무너졌고 가스관이 폭발했다. 개인과 사회의 믿음이란 연결 고리를 끊어버린 처참한 사고들. 그 현장에는 언제나 거짓말을 한 사람들의 비인간적인 행위가 있었다.

어떤 경우에서건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는 교훈을 남긴 대형사고들이었다.

◇술 마시지 말라

먹거리문화의 개선 불음주계는 우리의 먹거리 문화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술을 마시는 것 자체가 죄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음주와 음식문화가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한다는 것이다.

술판매 경쟁 외국 농산물의 수입으로 위기에 몰린 농촌을 살리자는 국민적 노력인 신토불이 운동의 확산은 '우리것'을 고집하기 보다는 바람직한 음식문화 창조를 위한 노력으로 기록될 것이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올 10월까지 국민들이 마신 술의 총량은 2백60만6천3백96㎘로 5㎖짜리 맥주병으로 52억1천2백79만병이 된다. 이는 지난해보다 6억40만병이 늘어난 것으로 1인당 1백74병을 마신것으로 알려졌다. 지나치게 과열된 주류광고 경쟁과 혼란한 사회가 국민들을 취하게 한것이다.



◇각종 대형사고가 발생했던 94년. 사진은 아현동 가스폭발 현장.

나의 수행일기



우 경 화
<스포츠 TV 사업국장>

이익중생을 이상으로 산다는 공단(公團) 무량회(無量會)의 서원을 올바로 행하지도 못하는 불자가 나의 수행 일기를 쓰려니 어쩐지 부처님을 욕되게 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 앞선다.

나와 부처님과의 인연은 30여년 전으로 되돌아간다. 내가 진해에 있는 해군사관학교 1학년 시절, 당시 학교 내규상 1학년은 주말외출시 진해시를 벗어나지 못했다. 때문에 마산으로 외출할 기회를 가진다는 단 한가지 생각에서 사관생도의 신분으로 종교생활을 불교로 택하게 되었다.

기독교를 믿는 생도는 학교 구내에 교회가 있어서 학교예배에 참석할 수 있었으나, 불교는 당시 마산에 있는 포교당에서 일요법회를 가졌다. 법회를 보고나면 오후에는 마산일대에 외출이 가능했기에…



고 물으면서 가지고 있던 카메라로 스님과 같이 기념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시간이 한 10여분 지체된 후 일행과 같이 식물원에 들어가는데 전방 50여m에서 갑자기 폭음이 들리면서 아우성소리가 났다. 우리는 공포에 질려 재빨리 큰 나무뒤에 몸을 감추었다. 한 30분쯤후 미군 헌병이 들어오고 앰뷸런스가 도착했다. 일순간 아수라장이 된 장소를 가서 알아보니 외출나온 미국병사들이 콜라를 마시면서 휴식하는 사이 베트콩들이 수류탄을 던진후 도망가버린 것이다. 미군병사 3명이 폭사하고 2명은 크게 다쳤다는 얘기를 들었다. 우리는 겁에 질려 식물원 구경이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그대로 사이공항 "C"부두에 계류중인 함정에 돌아왔다. 곰곰히 생각해보니 10분만 더 일찍 식물원을 구경하려고 들어갔더라면 우리도 독이 마르던 차였으므로 틀림없이 콜라를 마시다 미군들이 앉아 있던 그 장소에서 베트콩들에게 당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도 생각만 하면 오싹오싹 소름이 끼친다.

스님과 같이 사진찍고 늦게 입장한 것이 천만다행으로 이것도

'일체 유심조' 마음에 새기며 매일 참회

국민학교때는 눈깔사탕 얻어먹는 재미로 동네 학우들과 함께 대구 삼덕교회에 다녀보기도 했지만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아무런 신앙생활을 해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처음 포교당의 청하스님으로부터 법문을 들었을때는 불교가 무엇인지, 부처님께 왜 저렇게 절을 많이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단지 빨리 법회가 끝나고 우리 사관생도들을 위해 보살님들이 준비해 주신 특별공양이나 맛있게 먹고 마산시내 외출에만 온 신경을 쓰던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웃음이 절로 나곤 한다.

사관학교 4년동안 나름대로 주말이고 휴가철이면 사찰을 열심히 찾아다닌 인연으로 중견장교시절에는 해군불교장교회(OBU) 총무일을 보기도 했다. 당시 불교 조계종 총무원장이신 오녹원 스님의 감사패까지 받고보니 해군생활에서 나의 불심은 조금이나마 초발심을 일으킨 모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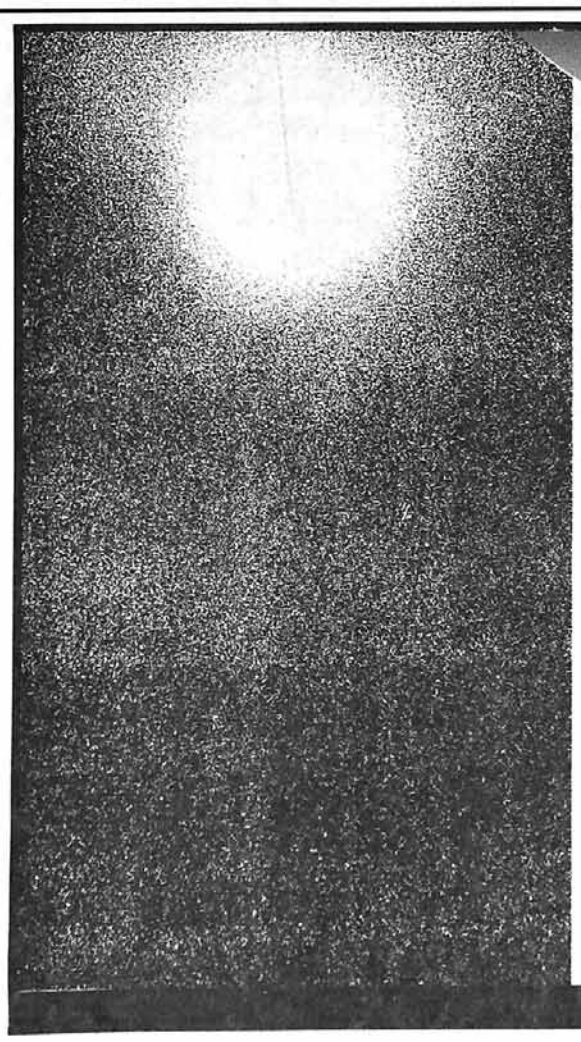
군생활에서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은 67년 해군소위때 월남 백구부대에 파병되어 첫 외출을 했던 때이다. 당시 나는 사병 2명과 함께 사이공시(지금은 호지민市) 식물원에 갔다.

식물원에 들어가려 할때 마침 붉은 승려복을 입은 월남 스님 한 분이 들어오시기에 우리는 사이공시내 사찰을 구경 할 수 있느냐 부처님의 가피력이 나를 돌봐주신 큰 은혜로 항상 생각한다.

남의 잘못에는 커다란 허물이 시퍼렇고 나의 잘못에는 한없이 관대하며 매사에 내 중심으로 살아온 자신을 돌이켜 보면서 보람된 직장생활에 충실하기 위해 3년전 뜻있는 불자 12명이 회사내에 무량회(현재 150명)를 구성했다. 직장의 발전을 위하고 보살의 길을 간다는 서원아래 여기에서 자격도 없는 내가 회장직을 맡고 있지만, 주말 금요일 퇴근후 법회를 통하여 지혜와 공덕지음이 무엇인지 조금이나마 깨닫게되고 마음의 묵은 때를 씻을수가 있다는 것은, 여러가지 부족한 나에게는 여간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집에서는 재가불상을 모시지도 못한 채, 아내가 매일저녁 불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 생활을 계속하고 있다. 하지만 내 스스로는 남을 위해 특별한 것은 못하더라도 최소한 남에게 해로운 짓은 안해야지 하는 여린 마음만 지키면서 살아온 것이 오늘날 나의 자화상이 아닐런지.

화엄경의 야마천궁게찬품에 나오는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란 게송을 나는 제일 좋아한다. 부처님의 가르침만이 몸과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인생살이의 양약으로 생각하면서, 오늘도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부처님전에 엎드려 깊이 참회해 본다.



억겁의 어둠을 몰아낸 빛

생활 속의 불교 ⑪

금은 금끼리 은은 은끼리 금은방에 모이고, 무쇠는 무쇠끼리 무쇠전에 모이고, 넝마는 넝마끼리 넝마전에 모인다.
싸전엘 가 보면 팥은 팥대로, 콩은 콩대로, 쌀은 쌀대로 모여 있다.
과거의 인(因)으로 해서 현재의 과(果)가 엮어지는데, 이치가 그와 같아서 병을 앓는 사람과 그것을 지켜보며 고통받는 사람이 다르지 않다.

그러나 모든 것은 한생각에 달려 있다. 한생각 일으키는 데 따라 오장 육부의 생명의 씨가 형성되기도 하고, 한생각 일으키는 데 따라 창살 없는 감옥에 갇히거나 자유인이 되기도 한다.

그 생각의 차원에 따라서 어떤 이는 금처럼, 어떤 이는 넝마처럼 그 과보를 받는다.
금이냐, 넝마냐 하는 것은 누가 정해주는 게 아니라 제 손으로 골라 잡는 것이다.

수억겁 년 등안 쌓인 죄업이라도 한 생각에 다 녹일 수 있다. 왜냐하면 악업·선업이 본래는 공(空)한 것이기 때문이다. 마치 수천 년 등안 어둠에 묻혀 있던 캄캄한 동굴 속일지라도 어느 때 한 줄기 빛이 새어 들면 한순간에 어둠이 사라지는 것과 같다.
빛이 어둠을 몰아내는 것은 그 어둠이 얼마나 오래 되었느냐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어둠은 업이요 빛은 한생각이다.

불법의 ·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고객의 만족은 우리의 생명!
기술은 최고, 최고 기술은 정성!
한마음으로 성실하게!"

견인차량 24시간 항시 대기
정확한 진단, 신속한 처리
섬세한 안전점검
그리고 보험업무처리까지

동광자동차공업사
성동구 화양동 151의 12
전화 : (02) 464-1472
464-0882
팩스 : (02) 469-1472

교 차 로

목련장 수상



석혜은스님(혜은정사 주지)은 지난 12월 10일 제 46회 세계인권선언일을 맞아 사법연수원에서 목련장을 받았다. 스님은 사회봉사활동 일환으로 15년동안 운전사들의 무사고를 기원하는 목탁달아주기 운동 등을 펼쳐왔다.

학교법인 '청담학원' 이사장



동광스님(도선사 주지)지난 21일 학교법인 청담학원 이사장 및 사회복지법인 혜명복지원 이사장에 취임했다.

이날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복지법인의 운영은 부처님의 뜻을 받드는 것이므로 자리이타의 보살행으로써 청담학원과 혜명복지원을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

'불교시간론' 출판기념회



오형근교수(동국대불교대학원장)은 1월초 〈불교의 물질과 시간론〉〈선과 동방문화〉 출판기념회를 갖는다.

〈선과 동방문화〉는 한국 중국의 대표적인 불교학자들이 양국의 선문화에 대해 주제별로 공동집필한 것.

총무원장 감사패 받아



박종웅의원(민자, 부산사하)은 종교법인법 제정을 추진하고, 중앙승가대 이전문제에 적극 주력하고 승가대의 4년제 정규대 추진을 지원한 점을 공로로 인정받아 지난 16일 오후 3시 송월주 조계종 총무원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국립관현악단장 선임



박범훈 불교중앙관현악단장(중앙대교수)이 국립국장 국악관현악단 단장겸 상임지휘자로 선임됐다. 박단장은 95년 1월부터 2년동안 국악관현악단의 예술감독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연기자협회 회장에 선출

이덕화씨(탤런트)는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 2층 대회의장서 열린 한국 TV 연기자협회 임시총회에서 15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장편소설 '바다로~' 펴내



문형렬씨(불교방송 기획심의실)는 장편소설 〈바다로 가는 자전거〉를 펴내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바다로~〉는 작은 희망을 담고 오늘을 착실히 살아가는 사람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통해 인간의 행복을 조망하고 있다.

일본에서 찬불가 공연

변규백씨(작곡가)는 지난 12월 서울 보문사 합창단과 함께 일본을 방문, 화나죠오대학 등에서 합창발표회를 가졌다.



화나죠오대학 초청으로 방일한 합창단 일행은 한국과 관련깊은 사원들을 참배한 뒤 14일 귀국했다.

청송빌딩에 사무실 마련



이주영씨(가람기획 대표)는 최근 사무실을 종로구 견지동 110-40 청송빌딩 201호로 옮겼다. (02)720-5121

전국불자교정인연합회 초대회장 오 희 창씨



"재소자들에게 대자대비한 부처님의 진리를 전하고 자비정신으로 재소자들이 사회에 복귀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겠습니다."

지난 18일 창립한 '전국 불자 교정인 연합회' 초대회장 오희창(안양교도소 소장)씨는 소감을 이렇게 말했다.

오회장은 "전국 교정기관의 법회의식통일과 재소자들의 불자화를 통해 재범율을 제로로 만드는 것이 연합회의 최대 목표" 라고 말했다.

현재 교정시설내에 불자회가 결성된 곳은 안양성불회, 서울불심회, 전주성불회, 부산구치소, 대전교도소 불심회등 총 9개소, 오회장은 "이 9곳을 제외하고는 타종교인이 불교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며 "하루속히 전국 40여곳 모두에 불교모임을 결성, 불법을 갈망하는 재소자들에 기회를 제공해주는 일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향후 사업과 관련 "교정기관 포교사파견, 재소자에 대한 각종교육 및 직업훈련활동지원, 출소후 취업알선 및 불우재소자가족 돕기, 재소자 복지사업지원 및 연고자 자매결연 추진, 교정기관 담당자간의 상호친목도모등의 다양한 활동을 펼칠것"이라고 밝혔다. 〈근〉

"출소후 취업알선등 재소자 교화 힘쓸 터"



종교지도자 송년모임

한국종교협의회(회장 이재석) 창립 29주년 기념 종교지도자 송년모임이 지난 20일 코리아나 호텔 대회의실에서 각 종교지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참석한 종교계 지도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 서봉 태고종 총무원장, 최근덕 성균관장, 김재중 천도교령, 김선적 대종교 종무원장 곽정환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장 김광명 개신교연합총회장 이행래 이슬람교이맘 등이다.



23회 '동국인의 밤' 1천여명 참석

동국대 총동문회(회장 황명수)는 지난 20일 장충동 쏘피텔 앤버서더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 23회 동국인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평생모은 재산을 동국대 장학금으로 희사한 장내순보살 등 30여명에게 감사패가 수여됐다.

이자리에는 황명수회장을 비롯 민병천총장, 월탄스님, 최형우내무부장관등 종교계, 정계, 재계 인사등, 백발의 선배동문들로부터 신입동문까지 1천여명이 참석했다.



대불련 33년차 회장
곽 상 인씨

"자기혁신만이 대불련의 미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 위에서 대불련 사업의 계승과 혁신을 함께 일구어 낼 생각입니다."

지난 18일 제33대 대불련 신임회장에 선출된 곽상인 회장(인천대 전자공학과 3년)은 자기혁신을 강조하고 대불련의 대외적 위상정립, 사회변혁에 따른 능동적 대처, 실무적 대중사업을 통한 대중성 확보를 위해 1년 임기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내부 혁신통해 미래 개척

대불련의 활동이 활발하지 못했던 지난 3년에 대해 곽상인 회장은 "자신감의 결여로 인해 빠른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그러나 그 속에서도 미래를 위해 착실히 준비해온만큼 95년은 대학생 청년불자의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해가 될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인재를 발굴해 대불련사업 연구를 전담할 정책실 설치, 자체 교육강화를 위한 교화단 활성화 등을 통해 내부 조직의 효율적 운영 계획을 갖고 있는 곽상인 회장은 "부처님의 정법을 이해하고 이를 현대에 맞게 재조명하고 싶다"는 나름대로의 포부를 밝혔다. 〈우〉

'94년에 기억나는 사람

조계종 개혁불사 숨은 공로자 김 인 기 씨



"제가 찍은 비디오가 불교를 올바른 방향으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니 참으로 기쁩니다."

지난 3월 조계종 범종추 결성때부터 지금까지 한국불교의 일대파란을 놓치지 않고 비디오에 담아온 김인기 실장(다보영상)은 올해 불교개혁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숨은 공로자로 꼽는데 아무도 주저하지 않는다.

김실장이 포착한 괴청년들의 폭력행사 장면이 TV에서 방영되면서 자칫 조계종 내부문제로만 비쳐질 뻔했던 조계종사태를 사회전체의 문제로 부각시키는데 결정적 기여를 했기 때문이다.

"갑자기 들이닥친 폭력배들을 보고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재빨리 문화관 계단밑으로 가서 정신없이 비디오카메라를 움직였습니다. 돌이 날아들고 거센 물줄기가 위에서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여기저기 옮겨 가며 폭력배들이 담벼락을 넘어 도망가는 장면까지 30여분간을 쉴새없이 담았습니다."

잠시 긴박했던 당시 상황을 떠올린 김실장은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아찔하다고 말한다.

이렇게 찍은 현장 사진은 제몫을 톡톡히 해냈다. 온 국민에게 사건의 진상을 극명하게 알리게 됐다. 뒤바뀔뻔 했던 한국불교의 역사를 바로잡는 결정적 자료가 된것.

아직도 만나는 스님이나 신도들로부터 "잘했다"는 격려를 받기도 한다는 김실장은 순조로운 종권이양을 접한 요즈음 참으로 큰 보람을 느낀다.

불교영상사업에 뜻을 두고 활동한지 6년, 그동안 김실장은 다각적으로 불교 영상포교에 힘써왔으나 아직도 영상포교자료가 부족한 불교 현실을 안타까워 한다.

"부처님 모습을 진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영상은 어떤 것일까에 대해 항상 고민한다"는 김실장은 "학생과 일반인들을 위해 사찰 나름대로의 역사와 상징성을 담아 교육과 포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작품을 만들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1년동안 '한국전통사찰음식'을 카메라에 담을 정도로 소신과 사명감을 지닌 김인기실장은 자신의 작업이 조금이나마 불교중흥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한명우 기자〉

폭력장면 단독촬영 … 진상규명 결정적 기여

게시판

▲동계수련회 개최=부산내원정사(주지 정련)는 12월 26일~28일까지 어린이 겨울수련대회를 실시, 마지막날에는 청도 운문사로 성지순례를 떠난다. (051)242-0691

▲성도절기념기도모임=조계사 중·고학생회(회장 조성혁)는 성도재일을 맞아 95년 1월 2일부터 8일까지 7일간 조계사 대웅전에서 기도모임을 갖는다.

이번 기도모임은 오전 6시부터 7시까지 참선, 천수경, 108배 참회문을 봉행한다. (02)734-8179

▲겨울방학 역사교실=시민들의 모임 '두레'(회장 김재일)에서는 오는 29일 오전 9시 겨울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을 위해 강화도로 겨울방학 역사교실을 떠난다. (02)721-5812

교사를 위한 불교학당 광주불교교육원

광주불교교육원(원장 지선)은 오는 27·28일에 불교 이해와 불교문화를 바르게 알아 학교 수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초·중·고 교사를 위한 불교학당'을 마련한다.

첫날은 지선스님과 이순규선생(남도불교문화 연구회장)이, 둘째날에는 황호균선생(전남대박물관 학예연구사)과 송후종선생(목포공고 교사)이 「불교문화의 올바른 이해」등을 주제로 강의한다. (062)228-9098

신행수첩

'깨달음의 향기를 느껴보자' 부다가야 성도절 기념법회

깨달음의 향기가 스며나는 곳, 부다가야, 2천5백여년전 인도의 부다가야 보리수 나무아래에서 홀연히 깨달은 이가 있었으니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이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날이 바로 성도절이다. 이날은 부처님께서 행하신 많은 수행을 되새기며 마음을 청정히 하고 부처님을 찬탄한다.

홍제동 정토포교원(원장 유수스님)에서는 95년 1월 8일(음 12. 8) 성도절을 맞아 깨달음의 큰 뜻을 더듬어보는 철야정진 및 성도절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1월 7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8일 새벽까지 철야정진을, 8일 오전 10시에는 성도절 기념법회를 통해 진정한 깨달음의 법향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02)737-0853

동양 정신과의 만남 마하선원, 명심보감 강의

"가치부재의 시대". 오랜 세월에 걸쳐 우리의 정신적 버팀목이 되어왔던 전통적 가치관이 뿌리뽑힌 현시대를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곤 한다.

그러나 우리의 전통적 도덕규범과 여기에 합치되는 가치관을 확립하여 실종된 삶의 참된 의미를 일깨우려는 노력 또한 분주하다.

서울 상계동 마하선원은 26일부터 한문교실을 개설, 국교생을 대상으로 명심보감을 강의한다.

맑고 향기로운 동양정신을 만나게 될 어린이들은 선생님의 낭독에 한자한자 따라 읽으며 한문에 대한 이해를 넓힌다. (02)933-0408

사랑의 온정 나누기 삼척종합사회복지관

세모를 맞아 더욱 외롭고 쓸쓸한 분들이 있다.

아들·딸과 떨어져 살거나 자식이 없는 노인들이 그러하다.

삼척종합사회복지관(관장 정복현)은 연말을 맞아 오는 27일까지 독고노인세대를 위한 '사랑의 온정 나누기' 행사를 진행중이다.

지난해부터 시작해 온 이 행사에는 벌써 후원금 50여만원과 쌀유소에서 보내온 기름, 가정집의 연탄, 동양시멘트에서 제공한 장작 등 온정의 손길이 계속 답지하고 있다.

삼척복지관은 불자들의 자비의 손길을 계속해 기다리고 있다.

(0397)73-6168

불 교 성 지 순 례

인도에 다녀오신 모든 이는 부처님의 미소를 닮아 있었습니다.

인도 정부 관광국 후원

인도 · 네팔 순례 14日

석가모니 부처님의 탄생(룸비니)에서 성불(브다가야), 그리고 설법(사르나트)과 열반(쿠시나가르)까지 모든 수행과 성도의 현장을 직접 순례하시고 성불하십시오. 오랫 동안 부처님의 큰 뜻을 연구해 오신 오국근 교수님(인도 네루대학 교환교수, 한국·인도협회 부회장, 한국 불교 청년회장 역임, 현 동국대 교수)께서 전 일정을 동행하시면서 부처님의 큰 뜻을 전해 드릴 것입니다.

卍 순례일정: 서울-방콕경유-네팔(카트만두, 히말라야산, 룸비니)-인도(브다가야, 사르나트, 쿠시나가르, 아그라, 아잔타, 발람푸르 기원정사, 라자기르 죽림정사 등 순례) 13박 14일

卍 출발안내: -제1차 순례: 12월 4일~12월 17일(신청마감일: 11월 19일) · · · 마감
-제2차 순례: 1월 1일~1월 14일(신청마감일: 12월 17일)
-제3차 순례: 2월 5일~2월 18일(신청마감일: 1월 21일)

卍 동 참 금: ₩ 2,190,000(신청금 포함. 여권인지대 별도)

卍 신 청 금: ₩ 200,000

미소의 나라, 불교의 나라로……
태 국 5日
동참금: 655,000
출발일: 12/7,14,21,28 1/4,11,18,25
· 일정: 서울-방콕-파타야-아유타야-방콕-서울

중국 불교의 또다른 발자취
대 만 5日
동참금: 645,000
출발일: 12/8,15,22,29 1/5,12,19,26
· 일정: 서울-타이페이-고웅(불광사)-화련-타이페이-서울

겨 울 여 행 특 선

—— 최고의 여정, 최상의 서비스, 최대의 기쁨 ——

태국(파타야) 5日 ₩ 685,000	12月 24,25,28,29,30,31日 1月 7,8,14,15,21,22,28,29日	미국 서부 버스 7日 ₩ 799,000	12月 23,30日 1月 6,13,20,27日
대만(화련) 4日 ₩ 535,000	12月 25,30日 1月 1,4,8,11,15,18,22,25,29日	중남미 역사탐방 15日 ₩ 3,990,000	1月 5,19日
마 닐 라 4日 ₩ 625,000	12月 24,31日 1月 7,14,21,28日	중남미 일주 20日 ₩ 4,980,000	12月 25日 1月 8,29日
홍콩·마카오 4日 ₩ 545,000	12月 23,30日 1月 6,13,20,27日	유럽 5개국 10日 ₩ 1,940,000	12月 29日 1月 5,12,19,26日
동남아 3국 5日 ₩ 699,000	12月 24,28,31日 1月 4,7,11,14,18,21,25,28日	유럽 6개국 11日 ₩ 2,140,000	12月 25日 1月 1,8,15,22,29日
홍콩(마카오)·방콕·싱가폴 8日 ₩ 995,000	12月 25日 1月 1,8,15,22,29日	유럽 8개국 버스 13日 ₩ 2,140,000	12月 24,31日 1月 7,14,21,28日
방콕·싱가폴 6日 ₩ 795,000	12月 27,29日 1月 3,5,10,12,17,19,24,28,31日	모로코스페인,포루투칼 10日 ₩ 2,290,000	12月 29日 1月 5,12,19,26日
동경·하꼬네 4日 ₩ 945,000	12月 29日 1月 5,12,19,26日	사 이 판 4日 ₩ 645,000	12月 25,29日 1月 1,5,8,12,15,19,22,26,29日
일 본 일 주 5日 ₩ 1,235,000	12月 27日 1月 3,10,17,24日	괌 4日 ₩ 645,000	12月 25,29日 1月 1,5,8,12,15,19,22,26,29日
일본(혼슈 및 큐우슈우) 6日 ₩ 1,345,000	12月 27日 1月 3,10,17,24,31日	시드니·골드코스트 5日 ₩ 985,000	12月 25日 1月 1,8,15,22,29日
하 와 이 5日 ₩ 749,000	12月 24,28,29,31日 1月 4,5,7,11,12,14,18,19,21,25日	호주·뉴질랜드 8日 ₩ 1,545,000	12月 24,25,27,29,31 1月 1,3,5,7,8,10,12,14,15,17,19日

※ 성수기 요금 변동있습니다.

여행조건 특급 및 일급 호텔 사용, 10人이상 출발, 전일정 식사 제공(기내식 포함) 해외 여행 보험 가입

불교 성지순례 전문 (주) 아 태 관 광 국외 여행업 제817호 ☎ 732-3200(代)

저희는 이익금의 일부를 불우 이웃돕기성금에 사용합니다.



삽화 · 이기선

목정배 교수가 쓰는

오늘의 불교 ⑩

수행의 시기
<修行의 時機>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이어야 한다

일 닥쳐서 할땐 늦어…목마르기 전에 우물파야

해가 바뀌는 지금, 한해를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 덧없이 살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바빠서 눈코 가눌 수 없이 휘몰아쳐 살았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연이어 터져나온 무섭고 악랄한 사건들에 치를 떨었던 사람도 있을 것이다. 다사다난한 한해였던 것이다.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벌다른 준비없이 함부로 그냥 가는데로 살아야 하는가. 아닐 것이다. 우리는 하루하루 생활을 수행의 목적을 세워 놓고 이어가야 한다.이와 관련한 경전의 말씀을 들어보자.

〈밀린다왕문경〉의 말씀이다.

왕은 물었다. "존자여 그대들이 출가수행하는 목적인 괴로움이 사라지고 다시 그 괴로움이 생기지 않도록 함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출가하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존자여 출가 수행은 미리부터 노력하였기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때가 왔을때 노력하는 것입니까."

밀린다왕문경의 말씀

존자의 대답은 명쾌하고 간단하였다. "때가 왔을때 비로소 노력한다 함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미리부터 노력함이야 말로 해야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밀린다왕은 이해가 되지 않는지 비유로서 설명 듣기를 간원하였다. "대왕이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시고 싶다고 우물이나 저수지를 파게 합니까." "존자여 그렇게 어리석은 일을 누가 합니까. 우물이나 저수지는 미리 파서 항상 물을 얻을 수 있도록 대비하지요." "대왕이여 마찬가지로 때에 닥쳐 비로소 노력함은 실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요, 미리 노력함이 바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난 대왕은 몇가지 비유를 들어 더욱 확신을 얻게 해달라고 하였다. 존자는 스스럼 없이 예를 들어 나갔다.

"대왕이여 배가 고팠을 때 비로소 음식을 먹고 싶다고 밭을 갈아 곡식을 심고 가꾸어 거둬 들이게 합니까."

"대왕이여 전쟁이 터졌을때 비로소 참호를 파고 성문을 만들고 망탑을 세우고 보루를 쌓게 하며 식량을 실어 들이게 합니까. 그때야 상술(象術)과 마술(馬術)과 전차술과 궁술과 점술등의 전술을 익히게 합니까?"

이와같은 비유에 대왕은 탄복하였다.

모든 일은 미리 잘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목 마르기 전에 우물을 파야하고 배고픔을 맞기전에 온갖 음식물을 준비하여야 한다. 하물며 전쟁이 나기전에 모든 군사와 군비를 준비하고 상책이나 보루, 참호, 망대도 튼튼하게 쌓아 올려 놓아야 한다.

어떤 일이 닥쳤을때 그때에 일을 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이다. 어떤일이 닥쳤을 때 그때에 일을 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이다. 예비적 수행이 없으면 안된다. 어느 때를 막론하고 미리 노력함이란 모든 일을 바르게 하려는 마음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미리 하는 일은 싫어한다. 때가 되면 할 것이라고 게으름을 부리거나 늑장을 부린다. 조그만 일도 나태나 해태심으로 이룩되는 것은 없다. 성실하게 오늘의 일을 마감한다는 마음이 앞서 나와 있어야한다. 마음이 뒤쳐져 있으면 일이 성사 될 수 없다. 마음은 일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마음이 하려는 뜻을 굳히지 아니하면 될 일도 안된다. 그러므로 마음이 앞선 자리에서 밝은 슬기를 가져야하고 그 슬기는 노력을 감싸 주어야한다.

발심의 연속

여기 밀린다왕과 나가세나 존자와의 대화는 우리들이 쉽게 살려고 하는데 대하여 커다란 경종이 아닐 수 없다.

때가 오면 하겠지, 아니 때가 왔는데 비로소 노력한다는 것은 성숙의 시차를 상실한 것이다. 일이 닥쳐 왔을때 그때 일을 한다는 것은 흥분과 당황이 앞서온다.

침착하고 정진적인 힘이 하나도 없고 덤벙됨과 당혹함 때문에 그일이 바르게 성립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미리부터 노력함이란 참으로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주는 것이다.

하루에도 온갖 잡다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그 일을 항상 대비하고 있었다면 당황이나 부대끼는 일이 있을 수 없다. 우리는 미리 노력하고 내일의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닥치면 하지, 그때가서 일을 처리하지. 이렇게 막연한 생각을 갖고 일을 하면 안된다. 미리 노력하면서 일을 한 사람에게는 한해가 가는것도 덧없음이 아닐 것이다.수행의 길도 미리 노력하는 발심의 연속이되어야 한다.

"음식 받는 것은 생명을 받는 것"

산문밖의 禪

궁중음식 연구가 황 혜 성



"우리의 먹거리는 흙에서 얻은 소중한 생명들이지. 음식을 받는 것은 곧 생명을 받는것이야. 이 생명들은 나를 양생시켜주는 또다른 생명이지. 그러니 음식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겸손해야 하겠는가."

궁중음식 연구가 황혜성(75 · 黃慧性 · 중요무형문화재 38호)씨와 만나자는 약속이 되면서 '음식'이라는 화두가 떨어지지 않았다.

먹고 마시는 일, 매일 접하는 것이기에 잘 알 것만 같았는데 그 본성을 찾으려하니 광범하기가 바다와 같았다.

1주일 후, 서울 강남에 자리한 궁중음식연구원을 찾았을 때도 이 화두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나아감도 물러섬도 없는 큼직한 덩어리를 품고서 음식의 대가(大家)와 대면했다.

"방금 잡지사에서 한 팀 다녀갔어. 여기저기서 부르는 강의에도 참석하지. 그래도 궁중음식을 전수생에게 연수 시키는 일과 만드는 법을 책으로 정리하는 일에 더 힘을 쏟지."

일흔이란 나이도 절반고개를 넘어선 노인이건만 궁중요리 연구와 전수뿐 아니라 밀려드는 인터뷰, 강의로 여느 젊은이보다 바쁘게 산다며 근황을 소개 한다. 그러면서 떡 몇 조각을 접시에 담아 내놓는다. 떡중에도 손이 많이 간다는 두텁떡이다. 옛날 궁중의 잔치상에 올려졌던 두텁떡은 한입 무는 순간 유자향이 나오는 무척 진기한 떡이었다.

'이 음식이 나에게 오기까지에는 어떤 인연이 있었을까 … .' 감자기 오관계(五觀偈)가 생각났다. '… 맛에 탐하지 않고 위 없는 도를 위해 내 마땅히 이 음식을 들 뿐이다.'

"우리의 먹거리는 흙에서 얻은 소중한 생명들이지. 음식을 받는 것은 곧 생명을 받는 것이야. 이 생명들은 나를 양생시켜주는 또다른 생명이지. 그러니 음식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겸손해야 하겠는가."

음식을 받을 땐 공손해야 된다는 것이다. 나를 위해 생명바친 음식을 남기거나 쉽게 생각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우리는 음식을 접하면 쉽게 짜다, 맵다, 맛이 없다는 말들을 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음식을 받는 이의 마음이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음식과도 대화를

황혜성씨는 '한국음식은 먹거리를 복합하는 방식이나 양념 조리법 등 모든 면에서 나무랄 데가 없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음식'이라고 소개한다. 우리의 먹거리는 양념과 세계유일의 장이 음 · 양의 조화 속에 어우러진 음식이다. 양념은 먹거리에 미리 약을 염한 약념(藥念)이다. 이렇게 우리의 음식문화가 이루어지기까지에는 5천년이란 세월이 함께 했다. 그래서 흔하들 '약식일여(藥食一如)'라 한다.

"이것으로 우리 음식을 다 말했다고 할 수는 없어. 공양정신이 있어야 제대로 음식을 말할 수 있지."

고명이라는 것이 있다. 음식을 만들고서 음식위에 올리는 계란지단이나 참깨, 고추가루 등을 말한다. 이것은 '내가 방금 만든 음식은 숫음식(만든 채 그대로 있는 순수한 음식)입니다'는 마음의 표시이다. 이 음식을 그릇에 담을 때도 내 마음을 어떻게 담아 대접하느냐가 나타난다.

"그래 이 마음이야."

그토록 가슴을 짓누르던 화두가 꿈틀거린다. 형체도 없이 어디서부터 잡아야 할지 알 수 없었는데 무언가 걸리는 것이 있는 듯하다.

내친 김에 음식을 대접하는 이와 받는 이의 마음이 있으니 만드는 이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를 물었다.

"요즘 나물 무칠 때 위생적이라며 고무장갑을 끼거나 젓가락으로 뒤적거리는 것을 보면 가슴이 아파. 그래가지고는 맛도 찾을 수 없지. 손으로 해야 해. 손끝에 공양하는 마음을 담아서 섞어야 균일하게 간이 묻혀져."

그러면서 음식을 만들 때는 대화를 해야 한다고 한다. 음식을 만드는 이와 조리되어지는 요리가 마음으로 주고받는 대화다.

어렸을 때 누군가가 그를 보고 "이 아이는 찬모가 열이나 있어도 부엌을 떠나지 못할거야" 했었단다. 비교적 부유한 가정에서 일본으로 유학한 신여성 황혜성씨. 스물한살에 귀국하여 교편을 잡으면서부터 50년 넘게 음식만드는 일을 업으로 살아왔으니 그 말도 예사로운 말이 아니었다.

스물두살 때 숙명여대 교수가 되어 창덕궁 낙선재에서 한희순 상궁과 운명적인 만남을 가졌다. 이후 30년간 궁중요리를 배웠고 그동안 궁중요리를 체계화시켜 학문으로까지 발전시켰다. 이제 그동안 모으고 정리한 음식 관련 자료들을 모아 식생활 박물관을 만들려고 한다.

식생활 박물관 발원

황혜성씨는 하는 일이 있고 해야할 일이 있음을 더없는 복이라 생각한다. 천성이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한 탓도 있지만 이제껏 아프다는 소리 한번 안해 본 것도 일을 했기 때문이다.

요즈음도 강연이 즐겁다고 한다.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이에게 우리 음식을 전해야 하는 다급한 마음도 있으나 맥이 이어지는 것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래서 강의 때는 요리법보다 더 중히 가르치는 것이 있다.

"음식을 혼자서만 만들지 말고 아이들과 함께 해 달라."

아이들과 같이 음식을 만들 때는 음식을 사납게 만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음식을 만들 때는 바로 그 마음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들어있을 때 우리 음식문화의 맥이 이어질 것이라고 믿고 있다.

"손끝에 공양하는 정성 담겨야 제맛"

자리를 일어서면서 평생을 음식 만드는 일에 전념했으니 때로는 싫증도 날 것 같아 어떻게 이겨내느냐 물었다.

"그런 생각은 한번도 없었어. 공양하는 마음은 아무리 다해도 다함이 없는 거야."

배웅하는 황혜성씨를 뒤로 하자 "공양은 다함이 없는 거야"라는 말이 화두자리를 꿰차고 않는다.

〈이준엽 기자〉

北韓에서 完全 번역한 순 한 글 해제 八萬大藏經

本社 原本入手
맞춤법 활자체 우리에게 맞게
새롭게 조판하여 出版完了

全十六卷
민족의 혼을안고 도도히 흐르는 영원불멸의 진리!!



八萬大藏經
수백권의 엄청난 분량 다 읽고 전부 배우기란 쉬운일이 아니지요.
그러나 해제로 된 本書 단 16卷만으로도 八萬大藏經의 內容을 쉽고 간략하게 그 核心을 理解할 수 있는 참으로 보배스러운 今世紀 最高의 번역 佛書입니다.

스님, 佛敎學者, 포교사, 佛子, 先生님, 學生, 大學人, 史學者 심지어 他宗敎 聖職者까지도 감탄과 찬사를 아끼지 않고 지금 주문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韓國의 國寶, 世界的 寶物, 神秘의 八萬大藏經
이제 순 한글로 完譯된 八萬大藏經을 우리들 서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색인부가 있어 보고 싶은 부분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크라운版 洋裝本
각권 400~700쪽)

정가 ~~350,000원~~ 500질 한정특별할인가 280,000원

販賣元 : 文獻 情報 文書布敎事業部
문의전화 : (02)929-0211~4

"환경 · 개혁분야 관심에 위안"

총 22건 불과 … '겉 볼안' 내용 빈약

봄 가을 집중보다 연중 진행 아쉬워

94 불교관련 학술결산

올해 한해동안 열린 불교학관련 연구발표회, 세미나, 심포지엄은 모두 22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22건의 학술행사는 순수 불교학 연구분야와 인접학문 또는 사회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가 고르게 논의 됐다. 특히 환경문제와 관련된 세미나가 4건이나 열렸으며, 개혁관련 발표회도 4건 개최됐다. 이밖에 복지 · 교육관련 발표회도 3건이 열려 순수학술행사 10건과 균형을 이뤘다.

그러나 10월과 11월에 학술행사가 7건, 4건으로 전체의 반을 차지하고 있어 시기적인 편향의 문제는 여전히 개선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부처님오신날을 전후한 5월달의 학술행사(4건)와 함께 춘계 추계로 집중적으로 열리는 학술행사는 그동안 주제의 중복과 불자들의 참여폭을 줄이는 등 불교 학술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분석돼 왔으나 예년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들어 가장 관심이 고조된 분야는 환경문제였다. 환경을 주제로 한 세미나는 환경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는한 더욱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첫번째 환경 주제 세미나는 4월7일 부산일보사에서 열린 「이땅의 환경을 살리기 위한 불교 환경세미나」였다. 낙동강 물 오염으로 심각한 위기를 경험한 부산 불교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이날 세미나에서 지역 환경연구소 오홍석소장과 전동아대 박규상교수가 「환경문제 발생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불교의 환경관련 사상」과 「환경문제에 대처할 기본철학으로서의 불교적 사고방식의 제언」을 발표해 환경에 대한 교계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또 교수불자연합회도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불교와 환경」이란 주제로 사상 · 법 · 생활적인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환경문제를 조명했다.

세번째는 5월21일 한국종교학회가 주최한 춘계학술 발표회로서 동국대 김용정교수가 「생태학과 불교의 공생윤리」를 주제로 발표했다.

네번째는 한국불교환경교육원 창립기념 학술대회. 지난 90년부터 환경운동을 벌여온 불교환경교육원이 보다 활력적인 불교내 환경사업을 전개한다는 취지아래 11월2일 창립대회 및 「환경위기시대의 불교사상」이란 주제의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한 것.



◇올해 학술행사 중 환경관련 학술행사가 가장 풍성했다. 사진은 11월 2일 열렸던 한국불교환경교육원 창립기념 심포지엄.

이들 발표회는 공통적으로 환경문제가 서구사상과 산업화가 낳은 결과물이라는 전제아래 불교의 무아설과 연기론적인 인식전환에 의해 이를 극복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놓았다.

불교 개혁관련 학술행사로서 4월28일 불교방송 등 3개단체 주최 「불교개혁 대토론회」와 6월18일 정혜도량 주최 「종단 개혁 및 사회적 역할 모색을 위한 비구니 의식개혁 세미나」는 개혁과정에 서 있던 교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또 5월13일 불교문화연구원 주최의 「개방화시대의 민족문화와 불교」란 주제의 세미나는 국제화 개방화 조류속의 한국불교의 방향을 모색하고 이정표를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어 7월17일에는 한국불교발전연구원(원장 김용정)이 개원기념으로 「불교발전을 위한 방법론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열어 개혁 · 사회복지 · 포교 · 통일 · 인간성회복 · 환경문제 등을 불교적 시각으로 접근 그 해결방법론을 모색했다.

불교 복지 · 교육관련 세미나로는 6월8일 열린 중앙승가대 주최 「한국불교 승가교육의 과제와 방향」과 불교사회복지연구소 주최 「21세기와 개혁기의 불교사회복지의 과제」가 열렸다. 이들 세미나는 불교 복지의 현실적 연구를 통해 21세기와 개혁기에 맞는 불교 복지의 방향을 설정했다는 점에서 평가를 받았다.

한편 순수 학술세미나는 5월23일 동국대 불교대학(원) 주최 「국제 불교 학술발표회」와 같은 달 27일 한국불교학회 주최로 열린 「삼론사상의 현대적 조명」으로 시작됐다.

9월까지 학술행사의 공백기를 지난후 10월달부터는 「세계전자불전협의회의」를 시작으로 「보조지눌과 태고보우의 선사상」, 「성철스님의 생애와 사상」, 「원효의 생애와 사상」등 대형 학술 발표회가 연이어 개최됐다.

특히 장경연구소 주관으로 열린 세계전자불전협의회는 한국불교를 국제적으로 선양하고, 고려대장경 전산화의 홍보효과도 높였다. 또한 한국불교연구원 주최로 11월 18, 19일 이틀간 열린 원효학 국제학술회의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로버트 버스웰교수 등 미 · 일 · 불의 세계적인 석학들이 참석, 동서양을 불문하고 인류가 모범으로 삼아야 할 원효사상을 본격적으로 조명해 교계 내외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김재경 기자〉

"생명존중사상 인류위기극복"

시대 · 지역 · 종교 초월한 보편적 가치지녀

동국대 한중광씨 주장

불교 계율상의 생명사상을 바탕으로 사형제도 · 낙태 · 뇌사 및 장기이식 · 동물권(動物權) · 환경등을 불교적으로 조명한 논문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동국대 대학원 불교학과의 한중광씨는 「불교의 생명사상에 대한 연구」라는 석사 학위 청구논문을 통해 "20세기말의 현재 인류는 지구상의 남북문제 · 환경문제 등 생명의 위기를 해결해야 하고, 21세기 지구공동체 사회에 부응할 새로운 철학과 실천체계를 불교의 생명사상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중광씨

한씨는 불교의 생명사상이 우주만법의 근본원리이자 생명의 실상인 연기법과 생명의 참 근원인 불성 그리고 법성(法性)과 자성(自性)에 대한 깨달음의 여법한 구현인 일승보살도를 토대로 해, 시 · 공과 종교를 초월해서 일체 생명을 살리는 절대적 가치체계라고 밝혔다.

불교, 몽골문화에 공헌 데 욘동 소장 발표

"16세기 후반 몽고에 들어 온 불교가 몽고인의 지성을 확장시켜 고도로 발달된 불교문화의 세계와 결합케 했다"

몽고과학원 데 욘동 어문연구소장은 지난 15일 대우재단빌딩 11층 회의실에서 열린 단국대 한국민족학연구소 초청 「몽골문화 학술발표회」에 참석, 「몽골의 고대문학」이란 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고려 선시와 '화엄' 비교

김윤섭씨 석사논문



◇김윤섭씨

불교시의 본격적인 발흥기인 고려중엽 이후 승려들의 작품을 분석한 논문이 나왔다.

고려대 대학원 국문학과에 재학중인 김윤섭씨는 석사 학위청구논문 「화엄사상의 시적 전화 양상에 관한 연구: 고려중후기 승려들의 한시를 중심으로」에서 지금까지 주로 선(禪)적인 관점에 치중해 논의돼 온 불교시 중에 화엄적 의취(意趣)가 두드러지는 작품들을 선택, 집중적으로 조명했다.

김씨는 고려시대 불교사상이 선교원융(禪敎圓融)적 특성을 지녔다고 보고, 화엄사상을 중심 테마로 해 그와 관련된 승려들의 작품을 검토함으로써 선종 계열 승려들의 선시가 지닌 면모 중의 또다른 일단을 부각시켰다.

"불교시들이 거의 대부분 선종계 고승들의 작품이라 하여 소위 선시라는 범주 안에서 일방(一方)으로 논의하는 것은 그 속에 연계돼 있는 불교사상의 제국면들을 간과함으로써 작품에 대한 이해의 폭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게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김씨의 주장.

지상상담

길을 묻는 이에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행에 관해 의심이 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신 · 팩스로 보내주십시오.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스님께 묻고 답을 들어서 편집자가 정리, 게재하게 됩니다.

보낼곳: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 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 (02)722-4162 팩스 : (02)737-0698

사리신앙은 어떻게 보아야 될지

문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곳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사리신앙을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지요?

(대구 북구 침산 3동 · 배정례)

답 부처님께서 어느 때 아픈 사람을 보러 가셨는데 그 사람이 병석에서 일어나려하자 이를 만류하시며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지인 즉 '네 마음이 내 마음을 알면 이 고깃덩이를 보고 고깃덩이가 예를 갖추는 게 달리 무슨 뜻이 있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마음과 마음이 통하면 그것으로 족하지요. 꼭 그 말씀뿐만이 아니겠지만 부처님의 마음을 뜻하는데 어찌 물질인 사리에 끄달리겠습니까. 사리를 보되 부처님의 마음을 보세요. 부처님의 마음을 보았다면 그 마음을 지녀라, 마음을 지녔다면 자비로써 여러 중생과 둘 아니게 베풀어라, 그래야 가르침에 맞는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뿐이지 어찌 사리를 찾고 사리에 매달리겠습니까? 천리 만리 떨어진 곳에 사리가 있다하더라도 그 사리의 근본인 부처님 마음을 내가 지닌다면 사리는 껍질에 불과하겠지요. 그러니 잘 헤아려 지혜롭게 판단하기 바랍니다

'삼세심 불가득'이 무슨 뜻인지요

문 옛날 덕산스님이 수행시절에 떡집 노파로부터 '삼세심 불가득'의 질문을 받고 말문이 막혔던 까닭은 무엇입니까.

(경기도 하남시 천현동 · 감성경)

답 덕산스님이 그 당시엔 스스로 금강경에 능통하여 세상 이치를 꿰뚫어 본다고 장담했으나 문지방을 넘지 못해 떡 한 조각 얻어먹지 못한 것은 학인들에게 시사하는 바 적지 않다고 봅니다.

남이 불을 켜주니 환한줄만 알았지 제 마음의 불은 켜지 못했기 때문에 노파의 한 방망이에 꼼짝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주인공에 맡겨 병이 낫는 도리는

문 스님께서는 평소 몸이 아픈 사람들의 호소에 접할 때마다 '주인공을 믿고 거기에 맡기고 관하라'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병이 나을 수 있는 도리는 무엇입니까.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 하복례)

답 우리의 이 몸은 '내몸'이 아니라 수많은 생명체가 함께 먹고(공식), 함께 일하고(공용), 함께 살아가는(공생)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비유하자면 커다란 기업체가 각 부문 부문의 긴밀한 협조속에 굴러가는 것과 같습니다. 기업이 최고의 의사결정자인 회장의 지휘에 의해 돌아 가듯이 우리 육신도 마음이라는 회장의 결정에 따라 움직입니다.

마음이란 육신이라는 공동체를 다스리는 회장과 같아서 마음먹기에 따라 몸 속의 수많은 생명의식들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다시말해 회장이 결정하고 결재를 해야 직원들이 움직이듯이 마음으로 먼저 결재를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병이 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절을 찾는게 기복신앙이 아닌지

문 대학원 학생입니다. 공부할 과제가 많아서 한동안 법회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왠지 생활이 무기력해진듯하고 매사에 장애가 많은 것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절을 찾기 시작했는데 요즘은 매사에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제가 기복신앙으로 기우는 것은 아닌지요.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 김철인)

답 그것을 기복이라고 한다면 사는 게 전부 기복이 되겠네요. 내가 내발로 가고 싶어서 절을 찾은 게 왜 기복입니까. 그게 다 당당한 자기 자성의 발현입니다. 바깥 대상에다 대고 이렇게 해주십사, 저렇게 해주십사 빌지 말라는 것이고 타력이나 타의에서 해답을 구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지 자기 자성자리에서 일어나 스스로 행동하는 것은 그냥 그대로 법인 것입니다. 수행자는 다만 스스로 집착하는 바를 지켜 볼 뿐입니다.

불제자가 진정 추구해야 할 일은

문 우리가 부처님의 제자로서 진정으로 추구해야 하고 바라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서울 서초구 방배동 · 이정은)

답 '나는 부처님의 제자다'라고 그렇게 넓게 생각한다면 풀 한포기라도 스승아닌 게 없습니다. 부처님만 스승이 아니고 스님만이 스승이 아닙니다. 살아가다가 강도 짓하는 사람을 보고도 깨닫는 게 있습니다. 나는 저렇게 해서는 안되겠다는 걸 생각케 되는 것도 그렇지만 저 사람은 왜 저런 짓을 하게 되었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기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닫고 실천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풀 한포기, 구르는 돌 하나, 흐르는 물 등등이 모두 스승입니다. 이 세상 스승 아닌 게 하나도 없기에 일체법을 합쳐서 '주인공'이라고 했습니다. 일체 만물만생, 또는 과거 · 현재 · 미래 모든 것을 합쳐서 주인공(空)이라고 한 것이니까 그 주인공 하나만 생각하면 일체법이 그냥 동글려집니다.

이것 저것 복잡하게 생각하면 마음으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산란하게 되기 쉬우니까 주인공! 해놓고 곧장 들어가라고 한 것입니다.

일체 법을 한군데로 모아 믿고 맡기고 지켜보는 그런 참선자가 되는 것, 그것이 불자로서 일상 생활중에 가야 할 길이라고 봅니다.

정신 · 육체를 얽매고 있는 모든 장애물이 제거되어 병없는 완전한 건강이 이루어지고, 인간이라는 굴레의 속성이 근절되어 높은 정신세계의 삶을 누리게 된다.

선관단식

■ 국민학생들도 쉽게 수행하는 대중적인 수련법입니다.
· 제산제 복용·기아·공복감이 없다.
· 生水, 해독차, 엄분·자연당·식물성단백질 섭취
· 수련내용·엄불삼매수련·선관삼매수련·연단수련
· 선관단식수련을 쌓고나면 성장호르몬의 분비가 활발해져(美캘리포니아대학 호르몬연구소 발표) 청소년들의 성장발육이 촉진되고, 건전한 인생관을 세우게 됩니다.
· 수련 희망자에게는

현대인을 위한 선관단식(禪觀斷食)
가 이 드 북
을 우송해 드립니다.

단식으로 효과보는 병

•불면증, 우울증, 열등감 등 신경성 제증상
•암, 중풍, 협압, 당뇨, 신장병 등 모든 성인병
•위장병, 변비, 간장병, 천식, 디스크, 신경통
•축농증, 피부병, 부인병, 성병, 악물중독 외

■ 수련장: 경남 사천군 용현면 와룡산 용림선원
■ 안 내: ☎ (0593) 34-1115~6

한민족 정통 신선도 수련법



회원모집 : 수시접수 (영구회원 접수중)
수련과정 : 단전호흡법, 철산법, 신선기공 36동작, 생식법, 벽곡법, 토굴에서 생활하는 법, 단식법
문의전화 : (02) 735-6795 · 6796 / FAX (02) 730-9298
서울 종로구 인사동 4-2 중원 B/D 4층

한국 신선도 협회
회장 이해창(성오) 합장

불교에 대한 관성적 관념을 그 근저에서부터 부정하는 비판신서

연기와 공
-여래장사상은 불교가 아니다-

우리가 아무런 고민없이 불교의 기본적 교리라고 믿고 있던 관념들을 뿌리채 뒤흔들어 놓는 책.
불교의 중심사상은 여래장사상인가, 연기설인가?
이 양자는 양립가능한 것인가?
양립불가능한 상반된 것인가?
상반된 것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왜 버려야 하는가.
이 책은 그 해답을 줄 것이다.

松本史朗 저, 혜원역, 신국판, 352쪽, 6,500원

대지관좌선법(마하지관) 1,2
김무득 주석, 각권 8,000원

능엄경연구입문
김진열 저, 1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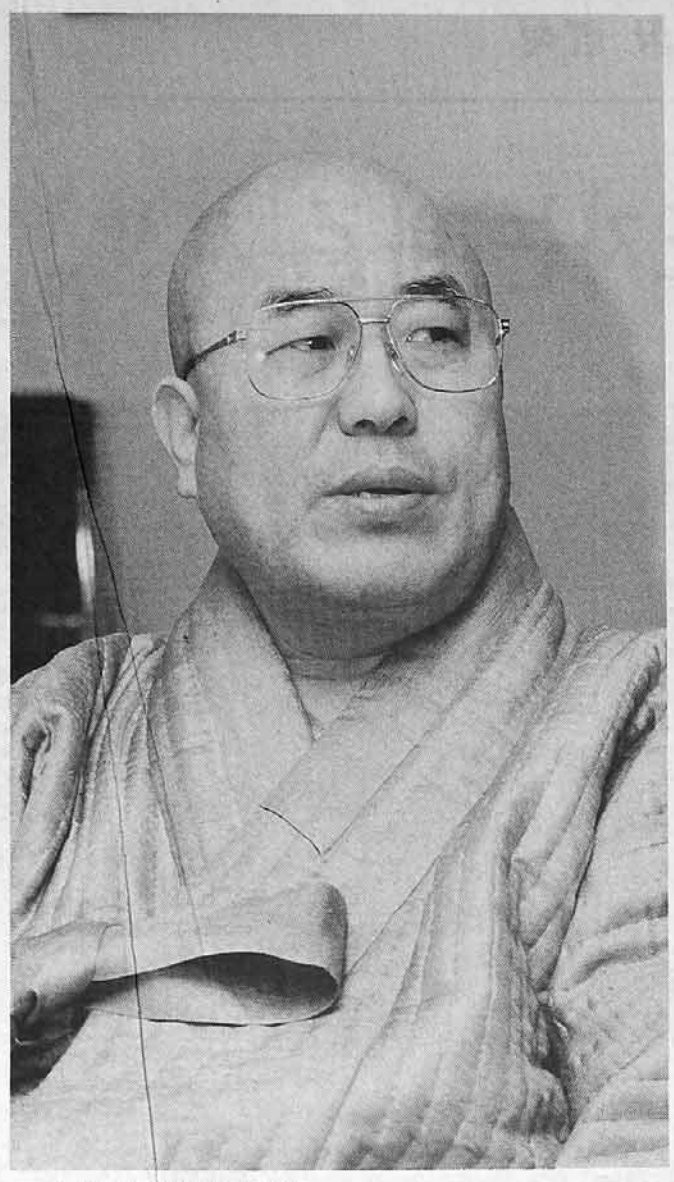
조선불교유신론
한용운 저, 5,000원

돈오요문
대주혜해 저, 혜원 역, 5,000원

미륵성전
이종익 저, 3,500원

백교회통
이능화 저, 4,500원

도서 출판 운주사
서울 종로구 청진동 6번지 ☎(02)720-9372 · 3 Fax (02)723-0646



수 요 인터뷰

"건강한 가정에서는 비행청소년 안나와요"

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회장

현 성 스님

모든 어머니가 '보살' 될때 정토실현 가능

"나의 수행은 청소년·군부대·교도소 포교"

-지난 17일 문화체육부로부터 우수 청소년단체상을 받으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스님께서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회장직을 맡으신지 5년이 되었는데 그간 많은 일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교련을 이끄시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을 받은 것은 우리 청교련의 구성원들이 열심히 화를 이끌어 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중앙과 지회가 합심하여 각종 사업을 일사불란하게 전개해준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청교련은 청소년들의 교화를 위한 단체입니다. 저는 이 단체를 맡은 이후 무너져 가는 청소년들의 윤리의식을 가장 큰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청소년들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의 회복에 청교련 사업의 핵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간 청교련은 도덕성 회복 실천대회,청소년 윤리회복 실천대회,약물오·남용예방 운동등을 꾸준히 전개해 오며 건강한 청소년이 건강한 나라의 미래임을 강조해 왔습니다.

-갈수록 청소년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때로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들까지 일으키는 청소년들을 보며 이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개탄하게 되는데 오늘의 청소년 문제를 풀어 갈 가장 근원적인 해답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병든 사회 치유하는 모정

▲두말할 것도 없이 가정교육에 있습니다. 가정은 작은 사회이자 작은 세계입니다. 가정이 건강치 못할때 이 사회는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건강한 가정에서는 절대 비행청소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소년원을 가보면 그곳에 있는 청소년 대부분이 문제가 있는 가정환경에서 자라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자는 거창한 구호는 필요가 없습니다. 가정을 먼저 밝고 화목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가정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스님께서는 건강한 가정의 형성에 가장 필요한 요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어머니의 역할을 꼽고 싶군요. 어머니의 역할이 유기된 가정은 당연히 비정상적인 가정이 됩니다. 어머니는 가정을 지키고 이끌어 가는 보살이 되어야 합니다. 어머니의 역할은 숭고한 보살행인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어머니가 '보살'이 되어야 이 세상은 정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의 마음과 육체를 보살펴 키우는 보살행을 하지 않는 가정에서 문제아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많이 모인 법회에서 늘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아닌 모유를 먹이라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따스한 체온과 그 몸에서 나는 젖을 먹고 자란 아이야말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출생 직후부터 우유만 먹인다더군요. 나라의 장래를 어둡게 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른 바 신세대 주부들도 어머니로서 행해야 할 보살행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행위들이 견전치 못한 자녀들을 만든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모정을 살리면 병든 사회도 치유됩니다.

-가정의 중요성은 곧 교육환경의 중요성과도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건전한 교육풍토의 조성도 필요하겠지만 이와 관련한 불교의 역할도 크지 않겠습니까

청소년 포교 다양해야

▲물론입니다. 청소년기의 아이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건강한 가정에서 올바른 정신과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자란 아이들은 부처님의 가르침도 어렵지 않게 받아 들이고 실천한다는 등식은 반드시 성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에 대한 이해도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 자리는 조금 다른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데는 일종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 기술은 다름아닌 다양한 포교프로그램입니다. 지나치게 종교성을 내세우면 청소년들은 쉽게 거부감을 느낍니다.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부담 없이 불교의 가르침을 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합니다. 때문에 청교련은 청소년들이 모두 관심을 갖는 전통문화라든가 각종 캠페인들을 통해 바람직한 인간상과 불자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과정에서의 포교 효과도 대단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불교를 자연스럽게 이해시키고 믿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스님께서는 사찰개방을 주장하시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절은 불교의 모든 것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한 절을 청소년들에게 개방한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포교입니다. 절에 가서 법당에 한 번 들어가는 것, 탱화의 의미를 한 번 이야기 듣는 것, 스님들의 법문을 한 번 듣는 것, 이 모두가 이미 포교인 것입니다. 실제로 사찰에서 수련회같은 행사를 해보면 사찰이 얼마나 훌륭한 포교현장인가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의 생활자체가 불교의 가르침이니까요. 따라서 모든 사찰은 청소년들을 위해 항상 문이 열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 안타깝습니다.

-스님께서는 청소년 교화운동보다 교도소 포교의 현장을 다니신 것이 더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도 안양 교도소 종교위원회 회장직을 맡고 계시는데, 교도소에서의 포교 활동을 소개해 주십시오.

▲교도소를 다니며 포교를 한 것은 20여년 전부터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한 번의 실수를 통해 다시 살아나는냐 아니면 영영 범죄의 길로 빠져드느냐 하는 것입니다. 수인들에게 찾아가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것은 바로 한 번의 실수를 통해 다시 태어나는 사람을 만들려는 것입니다. 고맙게도 교도소에서 불교와 인연 맺은 사람은 재범을 하지 않는다는 통계도 나왔습니다. 저같은 사람에게 큰 보람을 느끼게 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소소라는 분위기와 범죄자라는 인상이 자칫 포교의 엄두를 못 내게 하기 쉬운데요, 그들에게 부처님 법을 전하고 진정한 참회의 시간을 마련해 주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매우 뜻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영어의 몸이 된 자신의 과거를 피눈물로써 참회하는 것은 새로운 삶의 출발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참회는 보기 안타까울만큼 절실합니다. 그 절절한 참회의 모습을 보면 교도소야말로 수행자가 찾아가 전법할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회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우리 사회는 바로 그 참회의 정신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늘 참회하는 생활이 밝고 희망에 찬 내일을 열어 준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참회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만심과 무지가 넘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회가 바로 범든 청소년을 낳고 또 교도소로 범죄자를 몰아 넣게 하는 것입니다. 무명속의 사바세계는 참회하는 삶의 태도를 통해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태어나는 사람들

저는 그동안 교도소에서 5천여명에게 5계를 수계했습니다. 수계식 때마다 이 참회의 의미와 바른 삶에 대한 서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회하지 않는 사회는 참회하는 이들이 모인 교도소보다 못한 것입니다.

-스님께서는 군포교도 대단히 열심히 해 오신 것으로 압니다.

▲군포교는 중요합니다. 젊은이들은 군대에서 인생의 좌표를 설정한다고 합니다. 그런 시기의 젊은이들에게 불법을 전해 바람직한 삶의 기틀을 세우게 하는 것은 부처님 제자가 해야 할 당연한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80년부터 12년간 도선사 주지를 맡아 중창불사를 매우 크게 하셨는데 어려움도 컸을 것 같습니다.

▲집 고치는 일에만 몰두하면 수행은 언제하느냐는 식의 질타도 없지 않았습니다.그러나 가람의 중창불사는 평생의 열정을 바쳐서라도 해야 할 일입니다. 12년간의 중창불사는 제게 커다란 공부였습니다. 그 공부의 힘이 청소년 교화운동의 현장으로 교도소로 군부대로 향하는 저의 발길을 더욱 가볍게 만들기도 합니다.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불자들을 위해 간단한 법문을….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도 향기가 없으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대담 : 임연태 기자

깨우친 목석보다는 자비심 있는 중생이 더 아름답다.

한마음 요전

대행스님 구도행장 • 법어집

- 목숨을 건 십여년의 치열한 구도 행장
- 장경의 숲을 가로지르는 명쾌한 법어



자유인의 길

한마음 주인공 자리에 놓고 가는 삶.
그것이 곧 자유인의 길입니다.

한마음 주인공 자리에는 만 생명이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음 주인공 자리는 부처와 중생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한마음 주인공 자리는 부처라는 이름도, 중생이라는 이름도 모두 녹아든 자리입니다. 如如한 삶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한마음 주인공 자리는 바로
당신의 마음자리입니다.
잃어버린 당신의 본래 마음자리입니다.

한마음 주인공과 함께가는 삶
그것이 곧 자유인의 길입니다.

생활 속의 불법

大行스님께서는 '말'속에 '장경'속에 갇힌 불법은 단호히 거부합니다.
불법은 곧 삶이요 삶이 곧 불법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육신 생긴 게 화두요
네 마음이 화두요
네 생활이 화두이니
화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부지런히 뛰는 생활 속에 참선이 있다."

(大行스님 법어 중에서)



줄탁(啐啄) : 새가 알에서 깨어날 때 어미새는 그때를 알고 부리로 알을 쪼아줍니다. 「한마음 요전」은 바로 어미새의 부리 같은 것입니다.

여벌의 삶은 없어도 다시 태어나는 삶은 있습니다.

- 불법의 진리 속에 다시 태어 나십시오.

"業으로 자신의 운명을 옭아 매려 하지 마라.
業이란 녹음 테이프와 같은 것
새 것을 입력하면 옛 것은 지워진다."

"아침 저녁으로 염불·독경을
착실히 한다 해서 생활 불교는 아니다.
불자라면 모름지기 자신의 근본인 불성을 굳게 믿어
흐르는 물처럼 자유롭게
세계의 참 주인으로서의 삶을
엮어 나갈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게
바른 생활 불교다."

(大行스님 법어 중에서)

■서점에 있습니다.

- 서울 : 교보문고·영풍문고·종로서적·을지서적·서울문고(무역센터)·동화서적·월드북센터(신시역)·영등포문고·홍익문고·신촌문고·한가람문고·태평서적센터·세종문고(장실 롯데백화점)·두레문고(노원역)·중교방송 구내서점·운주사 하 서울시내 불교서적 전문서점
- 전국 주요도시 불교서적 전문서점
- 기획·편집 : 한마음 선원
  경기도 안양시 석수동 101-62
  전화 : (0343) 72-3100, 1512
- 제작·공급 : 도서출판 如是我聞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 - 33
  전화 : (02) 737 - 8881

「한마음 요전」에는 대행스님의 중생에 대한 사랑이 처절하리 만큼 짙게 배어 있습니다.

다시 푸는 경서 — 초발심 자경문 (10)

數飛之鳥 忽有羅網之殃
(삭비지조는 홀유라망지앙이요)
輕步之獸 非無傷箭之禍
(경보지수는 비무상전지화니라)
故 世尊 住雪山 六年坐不動
(고로 세존이 주설산하사되 육년좌부동하시고)
達磨居少林 九歲默無言
(달마거소림하사 구세묵무언하시니)
後來參禪者 何不依古蹤
(후래참선자인들 하불의고종이리오)

자주 나는 새는 홀연히 그물에 걸리는 재앙을 만나고 가벼이 쏘다니는 짐승은 화살 맞아 상하는 화가 없지 않느니라 고로 세존께서 설산에 머루실 때 6년 동안 좌정하사 부동이셨고 달마 대사께서는 소림사에서 9년 동안을 묵언 부동하시니 뒤 따라 마음공부 하는 사람인들 어찌 옛자취에 의지치 않으리오.

頌曰, 身心把定元無動 默坐茅菴絶往來
(송왈, 신심과정원무동하고 묵좌모암절왕래하니)
潮潮夢夢無一事 但看心佛自歸依
(작작료료무일사하고 단간심불자귀의어다)

게송을 말하노라.
몸과 마음 함께 정에 들어 흔들림 없고 띳집에 묵연히 앉아 왕래 끊으니 적적하고 고요하고 삼척이니)
無良小輩 頻頻脫 得意高流 數數親
(무량소배는 빈빈탈하고 득의고류는 삭삭친이어다)

학은 까마귀가 벗하려 하지 않나니 대붕이 어찌 뱁새와 벗하기를 도모하리오. 소나무 숲의 칡은 하늘 높이 곧게 솟아 자라고 억새풀 숲 가운데 자라는 나무는 석자를 넘겨 자라기 어렵나니 좋지 못한 소인배와는 어서어서 떨어지고 높은 뜻을 지닌 무리와는 자주자주 친교할지어다.

頌曰, 住止經行須善友 身心決擇去型塵
(송왈, 주지경행송선우하여 신심결택거형진이어다)
型塵擾盡南前路 寸步不離透祖關
(형진소진통전로하면 촌보불리투조관이니라)

게송으로 말하노라
머물고 그치고 행보함에 모름지기 선우와 함께 하고 몸과 마음 결택하여 가시 티끌(애욕집착)버릴지니 가시 티끌 쓸어내어 앞 길 통리면(번뇌 망상 몰락 놓아 한 생각조차 쉬면) 한 발짝도 아니 떼고 조사관문 꿰뚫으리

其五 除三更外 不許睡眠
(기오는 제삼경외에 불허수면이어다)
賊劫障道 睡魔莫大

스승과 벗을 잘 가려야 배움 높아져

잠은 큰 적이니 삼경외에 자지 말라

할뿐 한 가지 일조차 없으매 다만 안으로 마음 살펴 자성불에 스스로 귀의하노라

其四 但親善友 莫結邪朋
(기사는 단친선우하고 막결사붕하라)
鳥之將息 必擇其林 人之求學 乃選師友
(조지장식에 필택기림이요 인지구학에 내선사우니)
擇林木卽其止也安 選師友卽其學也高
(택림목즉기지야안하고 선사우즉기학야고니라)
故 丞事善友 如父母
(고로 승사선우를 여부모하고)
遠離惡友 似冤家
(원리악우를 사원가니라)

넷째, 다만 좋은 벗과 친할 뿐 사악한 자와 벗하지 말라.
새도 쉬고자 하면 반드시 숲을 가리며 사람이 학문을 배움에는 스승과 벗을 가린다.
수풀을 잘 가리면 머물기 편안하고 스승과 벗을 잘 고른 즉 배움이 높아 지리라.
고로 좋은 벗 받들어 섬기기를 부모 같이 하고 나쁜 벗 멀리하기를 원수진 집처럼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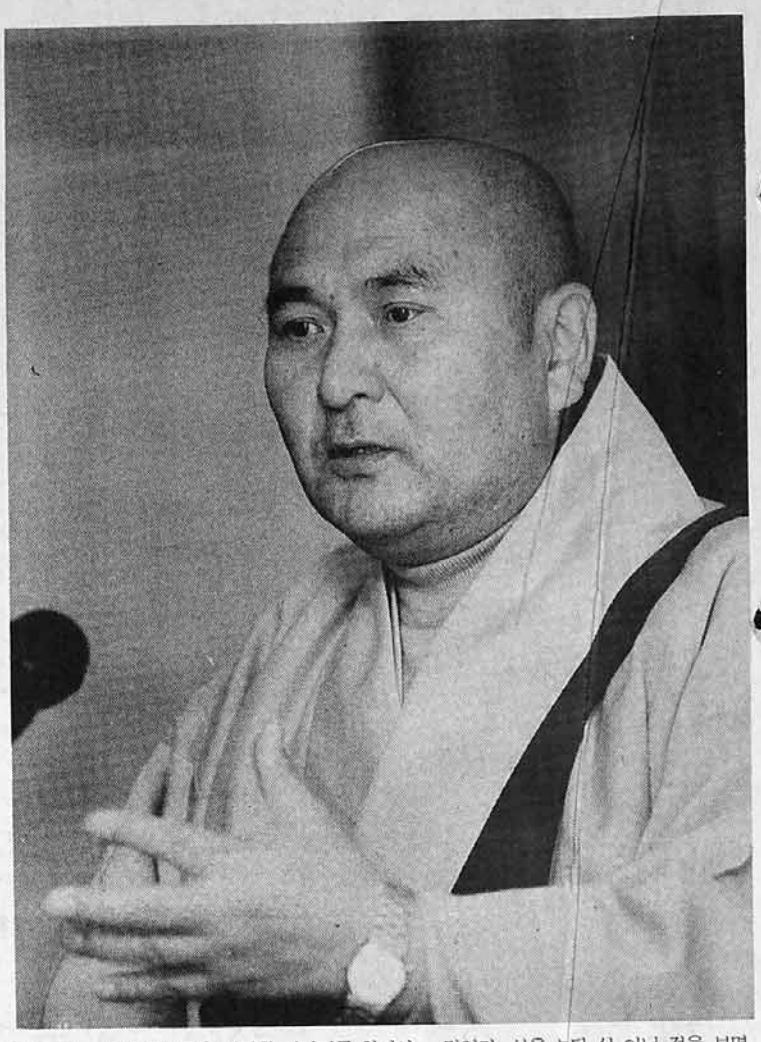
鶴無烏朋之計 朋豈鵬友之謀
(학무오붕지계니 붕기초우지모리오)
松裏之葛 直薜千尋 茅中之木 未免三尺
(송리지갈은 직용천심이요 모중지목은 미면(광겁장도는 수마막대니)
二六時中 慢慢起趨而不休
(이륙시중에 성성기의이불매하며)
四威儀內 惺惺默照而自看
(사위의내에 밀밀회광이자간하라)
一生空過 萬劫追恨
(일생공과면 만겁추한이니)
無常刹那 乃日日而驚怖
(무상찰나라 내일일이경포요)
人命須臾 實時時而不保
(인명수유라 실시시이불보니라)
若未透祖關 如何安睡眠
(약미투조관인대 여하안수면이리오)

다섯째, 삼경(저녁9시~새벽3시)외에는 잠자지 말라.
아득한 옛부터 도를 가로막는 것은 수마보다 더 큰 것이 없으니 12시 중(하루 24시간 중)에 늘 또렷하여 의정이 끊이지(흐리지) 않아야 하며 행주좌와 중에 세밀하고 세밀하게 마음자리를 돌이켜 비추어 안으로 살펴라.
한 생 헛되이 보내면 만겁을 두고 한이 따를 것이니 덧없는 세월 찰나이라 날이면 날마다 (세월 흘러감을) 놀래고 두려워 할 것이요.
사람 목숨 잠깐 사이이니 실로 시시각각 보존됐다 할 것이 아니니라.
만약 조사 관문 뚫지 못할진대 어찌 편안히 잠 잘 수 있으리요.

龍 眼

지상 법석

"내 인생 지도자는 바로 자신



근일 스님 <부석사 주지>

'범소유상이 개시허망하니 약견제상비상이면 즉견여래로다.'(凡所有相 皆是虛妄 若見諸相非相 卽見如來)
'무릇 상이 있는 것은 다 허망하니 상을 보되 상아닌 것을 보면 여래를 보리라'는 이 말은 우리 모두 다 아는 금강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무릇상이 있는 것은 다 허망한데 상을 보되 상아닌 것을 보면 여래를 보는 것이다' 고 부처님께서는 설하셨습니다.

머리 기른 성직자

하나가 일체요, 일체가 곧 하나이니 다만 능히 이와같다면 어찌 일을 마치지 못하였다고 걱정할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가 일체요, 일체가 곧 하나라는 뜻은 삶과 죽음이 하나요, 지옥과 천당이 하나며 너와 내가 하나라는 뜻입니다. 이 하나인 이치를 안다면 일을 마치지 못했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에는 많은 일이 있지만은 공통되면서도 소중한 일은 삶과 죽음의 일이요, 깨달음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인 이치만 안다면 생사대사를 해결 못하고 깨닫지 못하였다고 하여 걱정할 일이 못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 당시의 유마거사, 중국의 방거사, 우리나라의 부설거사 같은 분이 있었을 때에는 불교가 크게 융성했었고 거사님들이 번번치 않을 때에는 불교 또한 그러했습니다.

오늘 우리 스님네들이 자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이때, 지위도 높고 많이 배운 거사들이 모임을 갖고 신행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우리 불교계 뿐 아니라 사회에까지 큰 힘이 됩니다.

백번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것이 더 낫고, 백번 보는 것보다 한번 행하는 것이 더 낫고, 백번 행하는 것보다 한번 깨닫는 것이 더 소중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잡깐 예불을 하고 죽비를 치는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이심전심으로 크게 얻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바쁜 가운데 어떻게하면 행복하게 살고, 또 어떻게 해야 깨달을수 있겠느냐 하는데 이야기의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훌륭한 사람일수록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게 많이 배운다고 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분명코 법을 설해야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적어도 여러분으로부터 무엇을 배울것인가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그러한 마음이어야 합니다.

옛 말에 나를 착하다 하는 자는 나의 적이요, 나를 악하다고 하는 자는 나의 스승이라고 하였습니다.

승찬대사는 "나쁜 말도 관해보면 이것이 공덕이요, 곧 나를 깨우치는 선지식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자여러분들은 머리를 기른 성직자입니다.

머리깎은 성직자가 잘못하면 이 사회가 엄청나게 잘못됩니다.

법이 이 사회를 계도할 때 결과를 대상으로 다스린다면 종교는 분명 그 원인을 다스립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법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는다 하더라도 마음으로 죄지은 것은 다룰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종교적으로 볼때는 마음으로 남을 미워하는 것도 큰 죄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종교의 역할입니다.

죄를 지어 놓은 그것을 가지고 결과적으로 다스리지만 그러나 심리적으로 볼때는 법도 원인을 추론하여 다스린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장차 잘못하면 영창에 간다해서 죄를 안지을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볼때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 중생은 죄를 짓지 않으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힘이 있어야 행복합니다. 아는 것도 힘이고, 건강도 힘이고, 조직도 힘이고, 돈도 권력도 모두 힘입니다. 힘이 있어야 그 사람이 행복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있는 힘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숨 한번 멈추면 저 세상으로 가버립니다. 영원한 힘은 바로 도(道), 깨달음입니다.

근본을 잘 닦는 그 힘이 바로 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왜 상주불멸의 이치를 말하지 않고 '범소유상이 개시허망하다'는 허망한 이야기를 하셨느냐 하면 우리 중생들은 허망한 이야기를 하여야만이 집착을 버리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처음 깨치시고는 "누구든지 깨달아 있다"하셨으나 아무로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상' 부터 설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깨달음은 영원한 힘

"모든 고통은 집착으로 부터 온다. 집착을 없앨려면 도를 닦아라"하시며 부처님께서는 49년동안 우리 중생들을 위해 설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이 몸뚱아리는 말할 것도 없고, 산하대지도 이 우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생한 것은 다시 멸하는 것이 그 이치입니다.

상을 보되 상 아닌것을 보면 곧 부처를 본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상을 보되 상 아닌 것을 보면 여래가 바로 부처님이라는 말입니다.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고 쉽게 생각하면 또 아주 수운 이치입니다.

부설거사 오도송에 보면 "눈으로 보되 본 바 없으면 분별할 것이 없고, 귀로 듣되 들은 바 없으면 시비가 끊어지니 분별 시비를 다 놓아 버리고 다만 마음의 부처를 보고 귀의하라."고 하였습니다.

불교를 잘 믿고 행하면 판사, 변호사, 검사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나아가서는 인생 살아가는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상을 보되 상아닌 것을 보면 여래를 보리라는 말은 곧 집착하지 말고 살라는 것입니다. 상을 보기는 보되 집착하고 봐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눈으로 보기는 보되 눈에 집착하고 보면 좋지 않습니다.

으뜸공양

현대불교 법공양에 동참해 주신 불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대불교

군법당	약 140개소
병원	약 35개소
복지단체 및 개인	약 12개소
교도소	약 45개소

삶속으로 스며들지 않는 불법은 구두선이요 헛구호일 수밖에 없습니다.
삶은 곧 불법이고 불법은 곧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법한 삶, 그것을 우리는 참된 삶이라고 일컫습니다.
저희 현대불교는 소중한 우리의 이웃과 소외와 좌절의 나날을 보내고 이는 분들을 위하여 창간호부터 법공양 운동을 시작했고 현재까지 1천 7백여 구좌의 법공양 신청을 접수받았습니다.
그 결과 전국의 군법당 및 교도소 등지에 1년간 현대불교를 보내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독자여러분! 여러분들의 진지한 동참에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저희 현대불교와 함께 우리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이 되어주십시오.

100-170 서울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 (02) 737-8881. 팩스 : (02) 737-0697

지상 법석

오욕락에 끄달리면 천해져"

국민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선생님을 영어로 티이쳐(teacher)라고 하고, 대학교수지도자를 프로페써(professer)라 하고, 인생의 지도자를 멘터(Mentor)라 하는데, 이 인생의 지도자를 한번 만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로 단 한 사람의 멘터(Mentor)를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지도자를 멀리 찾아서는 안됩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내 인생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가장 위대한 것이 나 자신입니다.

빈 손으로 왔듯이

우리의 몸뚱아리를 분석해 말할때 나타나는 것은 육근을 말하는 것입니다. 안근, 이근 , 비근, 설근, 신근, 의근의 육근을 나의 뿌리라 하는데 알음알이를 일으킬 때는 육식이라고 합니다. 또 번뇌를 일으킬 때는 육진이라고 하고, 나쁜 짓을 할 때는 육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생은 도적놈을 끌고 다니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좋은 것이다 생각해서 집착을 하고 나쁜 짓을 하여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우리 주의에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돈이 좋다고 생각했을 때 돈 때문에 인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최고의 지성인들인 판검사들까지 돈에 현혹된다면 이사회는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 판결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중생은 올 때도 빈 손으로 왔듯이 갈 때도 빈 손으로 갑니다. 돈을 좋아하다 보면 인생을 망쳐버리고 맙니다.

귀로 좋은 소리 들으려 하다가 인생을 망칠 때 그것은 이적(耳賊)이요, 말 잘못해서 인생을 망칠때에는 설적(舌賊)이고, 몸뚱아리 잘못하여 인생 망치면 신적이며, 생각 잘못하여 인생망칠 때에는 의적인 여섯 도적놈이 바로 우리의 육신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것을 또 잘 굴리면 바로 부처가 됩니다.

일월광명부처, 성문여래부처, 설법여래부처, 천백억화신 등 이와같으니 한생각 잘못하면 도적놈이요, 한생각 돌리면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 ***그러니까 판사가 괴롭고, 변호사가 괴롭고, 검사가 괴로운 것이 아니라, 괴로울 수도 있고 즐거울 수도 있고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을때 오로지 곡식을 팔아 돈을 벌겠다는 마음으로 농사를 지으면 그 농부는 괴로움에 싸입니다. 왜냐하면 풍년이 들면 곡식 값이 떨어져서 고민이요, 흉년이 들면 곡식 값은 올라가지만 양이 적어서 돈을 많이 벌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이와같이 돈을 목적으로 농사를 지으면 언제나 실패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마시는 물도 소가 먹으면 우유가 되고, 뱀이 먹으면 독이 되며, 부처님께서 잡수시면 감로수가 됩니다. 이 한 이치를 알면 매사를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물도 차게 하여 마시면 육각수(六角水)가 되어서 좋고, 더운 물은 오각수라 좋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육각수보다 더 좋게 만드는 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감로수로 만들어 마시면 더욱 좋습니다.

기왕에 여러분은 귀하게 나신 몸이고 그러하니 오래 오래 건강하게 살아야 할것 아니겠습니까. 마음은 욕심을 비우고 살고 부정보다는 긍정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똑같이 학교를 다니더라도 자신이 목표하는 것을 이루는 이들은 그만큼 긍정적으로 세상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부정과 긍정까지도 모두 뛰어 넘으면 깨치게 됩니다.

그와같이 이 물도 감로수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하면 관세음보살을 정성스럽게 부르고 난 후에 물을 마시면 그대로 감로수가 되는 것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웃으면 엔돌핀이 증가하고 화를 내면 아르레날린이 나온다고 과학도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괴롭고, 변호사가 괴롭고, 검사가 괴로운 것이 아니라, 괴로울 수도 있고 즐거울 수도 있고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을때 오로지 곡식을 팔아 돈을 벌겠다는 마음으로 농사를 지으면 그 농부는 괴로움에 싸입니다. 왜냐하면 풍년이 들면 곡식 값이 떨어져서 고민이요, 흉년이 들면 곡식 값은 올라가지만 양이 적어서 돈을 많이 벌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이와같이 돈을 목적으로 농사를 지으면 언제나 실패하게 됩니다.

다른 모든 것도 이와 다찬가지입니다. 돈을 목적으로 모든 것을 행하면 언제나 실패를 맛볼 수 밖에 없습니다.

밭에 씨를 뿌릴 때부터 보람을 느끼고, '이 농사를 지음으로써 내 아들 딸과 이웃과 모든 이들이 좋은 일을 행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수행해서 깨달은 사람이 되어지이다' 하고 농사짓는 이의 행복은 돈을 목적으로 하는 이보다 훨씬 클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씨뿌리는 마음

씨 뿌리는 그 자체가 바로 나와 직결됩니다. 제때에 씨를 뿌려야 하는 것처럼 곡식 자라는 것도 인생살이와 다름이 없으며 곧 깨달음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뿌리를 깊이 내려야 곡식이 잘 자라고, 잡초 즉 번뇌망상을 뽑아줘야 곡식이 충실히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물을 너무 많이 줘도 안되며, 적게 줘도 안됩니다. 또한 아무리 곡식이 잘 익었다 하더라도 욜타리가 없으면 비바람에 쓰러지고 맙니다. 이 욜타리가 바로 계율이요, 법입니다.

옛날에 혜가스님이 달마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어떻게 하면 지상극락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하니 달마스님께서 "마음을 관한 한 법이 모든 행을 다 섭렵한다."고 답하셨습니다.

마음자리를 알면 모든 것을 다 얻는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이것은 '근본으로 돌아가면 뜻을 얻고, 비추임을 따라가면 종지를 잃어버린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더욱 쉽게 풀이하면 모든 것의 근본은 나요, 나의 근본은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자리를 알면 모든 것을 얻고 육근, 육식에 끄달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는데 끄달려도 안되고 듣는데 끄달려도 안됩니다. 오욕락이란 재, 색, 신, 명, 수입니다. 돈버는 재미, 남녀 간의 사는 재미, 잘먹고 잘입는 재미, 이름날리는 재미, 잠자는 재미에 끄달려서는 천한 사람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낮에 열심히 장사한 사람은 저녁이 되면 하루 벌이를 계산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계산해야 할 때입니다.

마음을 주인으로 삼은 사람은 늙지도 죽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도 한 티끌에 불과한 것입니다. 죽어서 명당에 묻히고자 명당자리를 찾을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곳곳이 모두 명당이요, 우리 스스로가 만드는 것입니다. 항상 공부하고 자신을 다스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가 정말로 우리가 어디서와서 어디로가는지 우리의 인생을 계산해 볼 때입니다.

인생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도 중요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참선하고 공부하여 자기자신을 가꾸고 자신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렇게 될때 우리 모두는 바로 불보살이 될것입니다.

한생각 잘 못 굴리면 여섯 도적, 잘 굴리면 부처

소가 마신물 우유 · 뱀이 마신물 독이 되는 이치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⑩

창조론과 진화론

김 성 규

어린시절 "우리의 조상은 원숭이라 하더라."하는 이런 말을 듣고 정말 원숭이가 우리의 조상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누구나 몇몇일 씩 고민한다고 밥맛도 없었던 것을 경험하였을 것이다. 전체적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사실 하나만 놓고 정말 진화가 가능한가? 하는 식의 생각을 하였던 것이다.

코넬대학의 초대 총장을 지낸 화이트는 1896년에 발표한 그의 저서 〈기독교 국가에서의 과학과 신학과의 논쟁사〉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주와 생물의 생성에 관한 진화의 이론은 확립되었으며 창조에 관한 옛 학설은 헌 종이 조각에 불과하다. 과학은 우리의 생각을 보다 고귀하게 하며 신학에서 발전시킨 어느 것보다도 끝없는 아름다움의 길을 열게 하였다."

사물마다 보는 각도따라 다른 모습
상대성 묵살한 고집이 분쟁의 불씨



그러나 화이트가 논쟁이 끝났다고 생각한 것과는 달리 이 문제는 1925년 미국에서 반진화론자들에 의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그해 테네시주 의회에서는 진화론에 관한 교육을 금하게 하는 법을 통과시켰으며, 그 법을 지키기 위하여 미국시민자유연맹이 조직되었다. 공립학교 교사인 스코프스는 이 법에 동의하지 않는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이 때문에 그는 피고로서 유죄판정을 받고 벌금을 물었다.

이 사건은 역사적으로 가장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관심을 모았던 것으로 유명하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3번이나 지명되었던 브라이안이 반진화론자인 원고를 지지하였다. 그 당시 가장 유명한 인권 변호사 대로는 피고를 변호하였다. 전세계적인 관심을 끌게 된 이 사건은 어빙 스톤의 '대로의 변론'에서 다루어졌으며, 여기서 티로는 "스코프스가 시험에 든 것이 아니라 우리 문명 전체가 시험에 든 것이다. 원고는 중세기와 같은 완고한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한다. 만일 반진화론 자들이 승리한다면 누구의 믿음도 안전할 수 없다."고 말하였으며, 브라이안은 "이 시험은 계시된 종교에 대한 1세기에 결친 공격의 정체를 밝히는 것이다. 이 공격이 성공한다면 성경과 성경이 계시하는 종교까지도 파괴될 것이다. 만일 진화가 이긴다면 기독교는 끝나버린다."고 하였다.

이 두 유명한 변호사는 대중의 마음을 움직여 '예수와 과학'에 관한 논쟁을 계속하였으나 테네시법정은 미 대법원이 헌법에 위반이라는 관결을 내리기까지 40년간 판결을 보류하였다. 이 사건을 두고 어빙 스톤은 "인류가 지구상에 살아 있는 한 잔인함, 어리석음, 악독함 그리고 파괴적인 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기원에 관한 문제를 놓고 생각해 볼 때 창조론은, 창조에 초점을 맞추어 생각한 사람들 – 매우 환상적이며 매력적인 사고를 강하게 지녔던 사상가들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진화론은 진화에 초점을 맞추어 생각한 사람들 – 매우 성실하며 체계적인 사고를 강하게 지녔던 사상가들 사이에서 태어났다. 우리 속담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말이 있다.

절구통을 놓고 앞에서 바라 본 사람은 여자 몸매같이 잘록하게 생겼다고 할 것이며, 위에서 내려다 본 사람은 원형으로 생겼다고 할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진리도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 30.40%정도는 맞는 것이다. 문제는 자기가 바라본 방향만이 유일한 것이라고 우기는 데 있는 것이다. 반대 쪽에서 바라본 상대방을 인정해주면 세상은 훨씬 수월해 지는데 그것을 못 받아 들이는 것이 중생들의 병인 것이다.

산 밑에서 산을 바라볼 때는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 달라 자기가 본 것만이 맞는 것 같지만 정상에 올라가 산 전체의 모습을 본 사람은 누가 어떻게 주장하더라도 고개만 끄덕이고 있을 것이다. 만약 부처님의 제자들이 이 창조와 진화의 문제를 놓고 서로의 주장을 고집하다가 부처님께 여쭈러 갔다면 어떻게 하였을까?

'부처님이시여, 저는 모든 생명들이 절대자에 의해 창조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부처님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 장한 생각을 하였구나. 그 생각도 틀린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좀더 깊이 자신을 관조하며 성찰해 보아라. 좀더 분명한 진리가 그대의 눈 앞에 펼쳐질 것이다.'

연기론 = 존재론 + 창조론 + 진화론

〈영남대 의대교수〉

병원

▶동국대학교 서울한방병원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동국대학교 경주한방병원 ▶대구 불교한방병원 ▶강남구 자혜당한의원 ▶인천시 동국대 인천한방병원 ▶동인천 길병원 ▶송파구 연꽃마을 광명의원 ▶청주시 연꽃마을 광명의원 ▶군포시 연꽃마을 광명의원 ▶대전시 연꽃마을 광명의원 ▶국군 원주병원 ▶국군 춘천병원 ▶국군 현리병원 ▶국군 동해병원 ▶국군 대구병원 ▶국군 수도병원 ▶국군 부산병원 ▶국군 광주병원 ▶국군 마산병원 ▶국군 육사병원 ▶국군 진해병원 ▶국군 대전병원 ▶국군 포항병원 ▶국군 청평병원 ▶국군 일동병원 ▶국군 덕정병원 ▶국군 벽제병원 ▶국군 논산병원 ▶국군 창동병원 ▶삼성의료원 불교법당 ▶국립경찰병원 경승실

군법당

▶철원군 16중대 ▶남양주군 907중대 ▶홍천군 본부중대 ▶국방부 군종실 ▶화천군 보현사 ▶울산시 해안 4대대 ▶용산구 호원원광사 ▶강서구 의왕사 ▶논산군 호국사 ▶송파구 사자사 ▶부산시 금련사 ▶진해시 수국사 ▶노원구 호국사 ▶성남시 남성사 ▶논산군 연무사 ▶광주시 무각사 ▶원주시 법웅사 ▶대구시 무열사 ▶고양시 일승사 ▶이천군 상승사 ▶완주군 충무정사 ▶안양시 충의사 ▶연천군 광복통일사 ▶철원군 청원사 ▶화천군 백암사 ▶고양시 백마사 ▶홍천군 화랑사 ▶양평군 득도사 ▶양주군 미룡사 ▶양주군 일월사 ▶양주군 광명사 ▶전주시 충경사 ▶원주군 사서함 16 ▶괴산군 충용사 ▶청원시 인국사 ▶달서구 왕룡정사 ▶해운대구 자운사 ▶중랑구 용마사 ▶광주시 관음사 ▶은평구 호국사 ▶진해시 호국사 ▶진해시 흥국사 ▶진해시 해인사 ▶김포군 청룡사 ▶용진군 흑룡사 ▶인천시 해응사 ▶제주시 해봉사 ▶영등포구 쌍룡사 ▶영일군 해룡사 ▶청원군 호국사 ▶용산구 국방부 군종실 ▶논산군 군종제도과 ▶관악구 충정사 ▶유성구 창조사 ▶성남시 군종부 ▶영천군 호국사 ▶용인군 선봉사 ▶천성군 쌍용사 ▶인제군 수호사 ▶포천군 금강사 ▶포천군 불이사 ▶양양군 낙산유치원 ▶가평군 연호사 ▶파주군 전진사 ▶양구군 의선사 ▶철원군 백골사 ▶포천군 팔정사 ▶인제군 을지정사 ▶화천군 천불사 ▶인천시 연주사 ▶양구군 도솔사 ▶고성군 운학사 ▶화천군 대성사 ▶고양시 불광사 ▶대전시 대원사 ▶화성군 달마사 ▶용인군 봉화사 ▶논산군 해군본부 군종감실 ▶동해시 해동사 ▶성남시 정각사 ▶예천군 비룡사 ▶강릉시 한송사 ▶대구시 일승사 ▶진양군 성불사 ▶광산구 금강사 ▶부산시 보국사 ▶수원시 화성사 ▶청원군 영축사 ▶중원군 천광사 ▶송탄시 천룡사 ▶사천군 기룡사 ▶평택시 보광사 ▶구로구 사서함143 ▶김해시 삼무사 ▶창녕군 사서함 20-1호 ▶안동시 화랑정사 ▶괴산군 호국 흑표사 ▶구리시 충일호국사 ▶파주군 원각사 ▶고양시 용주사 ▶고양시 백운사 ▶홍천군 정훈대 ▶연천군 8중대 ▶양주군 호국사 ▶광적면 군 법당 ▶연천군 화랑불교중대 ▶연천군 법당 ▶전곡읍 정림사 ▶적성면 문수법당 ▶왕징면 고왕법당 ▶청산면 법당 ▶화천군 호국수정사 ▶화천군 호국단결사 ▶연기군 영평사 ▶연기군 자운사 ▶중원군 청림사 ▶고성군 사 71-24-2호 ▶고성 사 71-16호 ▶고성군 사 71-16호 ▶고성군 대안사 ▶고성군 사 71-21호 ▶고성군 수국사 ▶고성군 사 71-18호 ▶인제군 을지법당 ▶인제 대대불교군종병 ▶인제 본부불교군종병 ▶서화면 대대불교군종병 ▶천도리 대대불교군종병 ▶양구읍 도솔사 ▶방상면 장안사 ▶양구읍 비봉사 ▶양구읍 백석사 ▶양구읍 천봉사 ▶양구읍 대암사 ▶양구읍 이일사 ▶양구읍 수심사 우선 ▶상주군 호암어린이집

복지단체 및 개인

▶용산구 함성범 ▶부산시 전태규 ▶포천군 군종병 ▶울산시 우동곤 ▶울산시 박주섭 ▶부산시 이부임 ▶부산시 설진숙 ▶부산시 설기수 ▶밀양군 설성수 ▶안양시 이용길 ▶진해시 김

교도소

▶천안군 천안교도소 ▶홍성군 홍성교도소 ▶강릉시 강릉교도소 ▶의왕시 서울구치소 ▶달성군 대구교도소 ▶장흥군 장흥교도소 ▶청송군 청송교도소 ▶부산시 부산구치소 ▶안양시 안양교도소 ▶광주시 광주교도소 ▶구로구 영등포구치소 ▶송파구 성동구치소 ▶전주시 전주교도소 ▶구로구 영등포교도소 ▶송파구 성동구치소 ▶전주시 전주교도소 ▶구로구 영등포교도소 ▶수원시 수원교도소 ▶인천시 인천구치소 ▶부산시 부산교도소 ▶마산시 마산교도소 ▶청송군 청송제1감호소 ▶천안군 천안소년교도소 ▶청주시 청주교도소 ▶의정부시 의정부교도소 ▶청송군 청송제2교도소 ▶춘천군 춘천교도소 ▶김천시 김천소년교도소 ▶진양군 진주교도소 ▶무안군 목포교도소 ▶옥구군 군산교도소 ▶천안시 천안개방교도소 ▶승주군 순천교도소 ▶원주시 원주교도소 ▶안동군 안동교도소 ▶공주시 공주교도소 ▶울산군 울산구치소 ▶청주시 청주여자교도소 ▶경주군 경주교도소 ▶제주시 제주교도소 ▶대전시 대전교도소

법공양에 동참해 주신 분들

▶이주현 오계인 1,000 ▶한마음 마산지원 300 ▶익명독자 100 ▶설정수 60 ▶윤여형 40 ▶한마음대전법형제회 40 ▶구필회 20 ▶김우정 16 ▶이인제 10 ▶이경원 10 ▶한마음울산청년회 6 ▶박상서 6 ▶김억만 5 ▶김용석 5 ▶박영옥 5 ▶김영옥 4 ▶김철 4 ▶김상림 4 ▶홍차석 4 ▶김준성 4 ▶임혜경 4 ▶최병문 4 ▶광우스님 4

총:1,655구좌

고은 불교 대하소설

다시 꿈속의 스승



〈 10 〉

인담은 거의 뜬눈으로 밤을 새운 다음 날에도 여느 때처럼 새벽 예불부터 하나도 빠뜨리는 것이 없었다. 이른 아침의 조촐한 죽 공양은 물론이거니와 식전 식후의 선정(禪定)도 그대로였다.

먼동이 트고 난 뒤의 예불이야말로 이 섬이 이어가는 영속적인 축제이기도 하였다.

인담은 오래된 세근(斤)짜리 목탁을 무거운줄도 모르고 치면서 섬기슭을 한 바퀴 도는 것이었다.

바로 그때만이 인담의 독신생활에서는 입이 열렸던 때이기도 하였다.

또한 그것은 저녁 예불과 함께 딱 두 번동안 몸속의 기운을 밖으로 내보내는 입의 운동이기도 하였다.

그가 어린 시절의 행자(行者)당시부터 시작한 도량송(道場誦)이었다. 돌아다보건대 그가 흥산 무량사(無量寺)에서 사미십계(沙彌十戒)를 받을 때 교수사(敎授師) 한 사람의 계사(戒師)뿐이었다.

이른바 3사7증(三師七證)따위의 엄숙한 계단(戒壇)에 나선 것도 아니었다. 그러니까 인담의 행자생활 6년째 되는 해였다.

무량사에는 노승 석지당(釋志堂)이 꼬장꼬장 허리를 펴 도량 여기저기를 쓸 만큼 혼자 살림살이를 꾸려가는데 익숙하였다. 누구 하나 오래 빌붙어 있을 수 없게 차가웠다.

바로 그런 늙은이 석지당과 6년을 살아낸 행자인지라 어지간한 소년이었던 것인데 "스님 저도 가사를 수하고 싶습니다"하고 말하면 "무엇 때문에 붉은 가사는 걸치려하느냐. 저 가을 단풍 새빨간 것을 다 네 가사로 삼으면 될 것을" 이라는 퉁명스러운 거절이 있을 따름이었다.

그런데 그 가을이 지난 뒤 갑자기 큰 눈이 퍼부어 사람의 키 다섯척(尺)에 가까이 쌓였는데 그때 무량사 2층 극락전 뒤에서 어떤 비명이 들렸던 것이다. 행자가 눈을 치우다가 가보니 한 누더기 삭발승이 방금 벼랑 위에서 쏟아지는 눈사태에 파묻혀 있다가 그 눈더미 속을 빠져나오는 중이었다.

"거기 가만히 계셔요. 제가 눈을 치워야합니다. 그 쪽에서 눈더미를 건드리면 더 큰 눈더미가 덮치게 되어 있습니다."

"..."

반시각이나 지나서야 그 누더기 객승은 눈더미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고맙도다. 네 덕택으로 내 목숨이 개구리 눈 모양 아직 붙어있게 되었구나."

"어디서 오는 길이십니까?"

"이 절 뒤의 매월대(梅月臺) 밑에서 되는대로 먹고 살다가 내려오는 길이다."

"..."

"네가 여기 온 것은 꽤 오래될 터인데 그동안 공부는 좀 하였느냐?"

그 누더기는 언제 다급하게 비명을 질러댔더냐는 듯이 전혀 다른데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었다.

"어떻게 아셔요? 제가 여기 와있는 것을."

"이곳 극락전 아미타불이야 이승의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나 나는 저 뒷산을 뒤지고 다니면서도 이 극락전 일이라면 빤히 알고 있단다. 그래 늙은이는 아직 카랑카랑하지?"

여기서 늙은이란 주지 석지당을 말하는 것이다.

"네"

하고 대답하였다.

"너 아직 중이 안되었으냐?"

"네"

하고 대답하였다.

"그놈의 늙은이가 너를 상좌로 삼지 않았단 말이지?"

"....."

"좋다. 그렇다면 네 은사(恩師)는 가섭존자로 하고 내가 교수아사리(敎授阿闍梨)와 갈마사(羯磨師)를 겸하여 사미계를 수계(授戒)하마. 그밖의 증명(證明)이야 산문 밖 부도 놈들이 맡으면 되지"

새 이름 인담을 받은 행자는 그의 팔뚝의 한 군데가 타고 있는 뜨거움에도 불구하고 제법 큰소리로 물어보았다. 불단 뒤에서 그 소리에 놀랐는지 쥐 한두 마리가 날쌔게 달아나는 것이었다.

"흠 증명법사들이 떠나시는군"하고 누더기가 웃었다. 그런 다음 어둑어둑한 법당 안에서 촛불 불빛을 뒤로 한 누더기 계사(戒師)는 무척이나 흐뭇한 감흥을 나타내고 있었다.

"잠차…너는 입실(入室)할 때가 있으리라. 그때에야 너에게는 은사가 있게 되어 너는 그의 제자가 될 것이다. 그때까지는 이 절을 떠나 혼자 여기저기 흘러가거라.어찌 네가 이제부터 구름이 낳은 놈이고 흐르는 물이 낳은 놈 아니라. 가섭존자도 처음에는 스승이 없었단다."

"우리 노장님을 만나러 요사채로 가시지요."

하고 말한, 새로운 사미 인담의 팔뚝에서 초 심지가 다 불탔고 그 자리의 살점이 죽 익었다.

"아니다. 나는 내 처소로 가야한다."

"이렇게 눈이 쌓였는데 어찌 가십니까?"

"아니다. 다시는 너한테 살려달라고 소리지르는 일은 없을 것이다. 나에게는 눈이 올 때가 가장 좋은 때란다. 개처럼."

"스님 당호(堂號)를 알고 싶습니다."

"무량사 뒷산에는 온통 매월당 김시습(梅月堂 金時習)이란 놈이 여기저기 오줌 싸고 똥 싼 곳이라 그놈의 이름밖에 없게 되었다. 굳이 내 이름을 알고 싶거든 설잠(雪岑)이라 하거라"

"설잠! 설잠!"

인담이 그 설잠이란 이름이 다름아닌 김시습의 것으로 안 것은 그로부터 훨씬 뒤의 일이었다.

그렇다면 인담은 김시습의 화신(化身)한테서 계를 받았단 말인가.

어떻든 그는 인담이라는 중이 되었다.

"…눈이 내리기 전에 가겠다. 잘 지내보아라. 이 세상이란 수레바퀴 굴리며 한번 지내볼 만한 곳이니라."

인담은 어떨바를 모르고 총총히 눈쌓인 무량사 뒤로 사라지는 누더기 스님



그림 · 최규일

설잠을 볼들 수 없었다. 마치 마음으로 사모하는 사내가 한밤중에 나타나 그윽한 잔치리를 함께하고 유령처럼 사라진 뒤 허망하기만 한 여자의 처지와도 다를 바 없었다. 하지만 인담에게는 새로운 의미가 생기기도하는 것이었다.

"이제 나는 이 절의 주지에게 밥 얻어먹는 행자가 아니다. 나 혼자 일어선 출세간(出世間)의 장부(丈夫)가 되었다. 나도 떠나야겠다."

그런 생각 속의 절망감과 함께 그는

"네 팔뚝의 살점이 타는동안 참회와 서원을 심어라"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그 누더기삭발승이 허리를 곧게 펴고 극락전 안으로 들어섰다. 눈에 파묻혀 있었던 터라 누더기에는 눈조각이 아직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그가 법당 마루바닥에 눈조각들을 떨어뜨리며 말하였다.

"이제부터 네 이름은 달라진다."

"....."

그는 너무나 갑작스럽게 당하는 일이라 어이없어하는 행자에게 십계의 뜻은 가르치지도 않았고 아미타불 불단(佛壇) 위에 놓인 촛대에서 초 한 토막을 잘라내고 그 초의 심지를 행자의 팔뚝에 눌러서 고정시킨 뒤 그 심지에 부싯돌 불을 켜 붙이는 것이었다. 말하자면 연비(燃臂)였다.

"네 팔뚝의 살점이 타는 동안 그 작은 아픔과 아기 울음 소리같은 따거움 가운데에 네 참회와 서원을 심어라. 앞으로 네 법명(法名)은 인담(印淡)이니라."

"스님은 누구이십니까?"

무량사 몇년동안의 세월을 마감하기로 작정하였다.그도 눈쌓인 길을 푹푹 빠지며 걸어서 도량 밖으로 나갔다.

일주문 밖의 부도들과 비(碑)들이 눈을 쓰고 서 있었다. 인담의 증명법사인 셈이었다.

이제 무량사에는 석지당 밖에 없다. 그곳의 다람쥐 청설모 그리고 절안의 쥐와 들쥐 따위와 함께.

이렇게 해서 사미승이 되었던 인담이 있으므로 그의 계사가 초현실적이었던 것처럼 그의 은사도 오죽하면 몇백년전의 사람이었겠는가.

기구하기는 그보다 더할 데가 없을 것 같았다.

그런 인담에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은 것이 바로 새벽과 저녁의 도량송이었다.

하루내내 입에 한 미디 말을 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도량을 청정(淸淨)하게 하는 지극한 마음을 일으켰다.그 마음은 언제나 그 자신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었다.

일체의 거룩한 경계는 바로 청정한 것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다. 법신(法身)의 보이지 않는 세계의 진수(眞髓)도 바로 청정세계 그 자체이다. 그러므로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 아니던가. 그 법신으로 말미암아 원만한 중도(中道)의 보신(報身)이 가능하고 천백억개의 화신으로 나타나 천백억개의 중생과 함께 있는 화신(化身)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던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거룩한 청정도량을 노래할 입 자체를 청정하게 하는 일이 앞서는 것이다. 일체의 입을 청정하게 씻어내는 진언(眞言)이 있어야한다.

이 새벽 어둠 속에서 일체만상을 깨우는 도량송의 첫번째 진언으로 어리석은 도깨비조차 그것을 알아듣고 아이쿠하고 벌떡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도량석(道場釋)에 이어 사방찬(四方讚)과 도량찬(道場讚)에 이르는 짧지 않은 세간의 송주(誦呪)가 다하면 비로소 세상의 모든 생명체들은 마음을 가다듬기 시작한다. 바로 이와 함께 인담의 입선(入禪)도 비롯되는 것이다.

도량송 가운데 사방찬이 있음은 바로 석가모니부처님 당시부터의 외식을 말해주고 있다. 부처님이 죽림정사에 머물고 있을 때 바로 이웃나라 바이샬리에서 극심한 가뭄과 괴질의 전염으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다.

그래서 바라문의 제자와 자이나교 및 다른 교파들의 수행승에 의한 기도로 그 재난을 이겨내려했으나 실패한 뒤 마지막으로 석가모니부처님이 초청되어갔던 것이다.

중아함경(中阿含經)은 석가모니부처님이 부처를 이룬 뒤 5년만의 이 일을 그 초기의 사실답게 말하고 있다. "강가강을 건너 30리쯤 지나 바이샬리땅을 밟자 모든 염병의 독기가 맑아지며 병의 기운은 힘을 잃기 시작하였다."

그때 부처님은 그 일대에 맑은 물을 뿌림으로서 동서남북 4방에 뿌리는 것으로 길이 평안하기에 이른다는 오늘의 사방찬을 낳게 한 것이다.

인담의 수행은 바로 이 청정법계에 대한 중단없는 도량송으로부터 시작하였다. 우녀도 그런 인담의 뒤를 따라 섬을 돌고 있었다.

그렇다면 인담은 김시습의 화신(化身)한테서 계를 받았단 말인가. 어떻든 그는 인담이라는 중이 되었다. "…눈이 내리기 전에 가겠다. 잘 지내보아라. 이 세상이란 수레바퀴 굴리며 한번 지내볼 만한 곳이니라." …그런 인담에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은 것이 바로 새벽과 저녁의 도량송이었다.

이유없이 아프거나 되는일이 없거든 수맥을 막아라!!

현대인의 질병, 그 큰원인이 수맥(水脈)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수맥은 과학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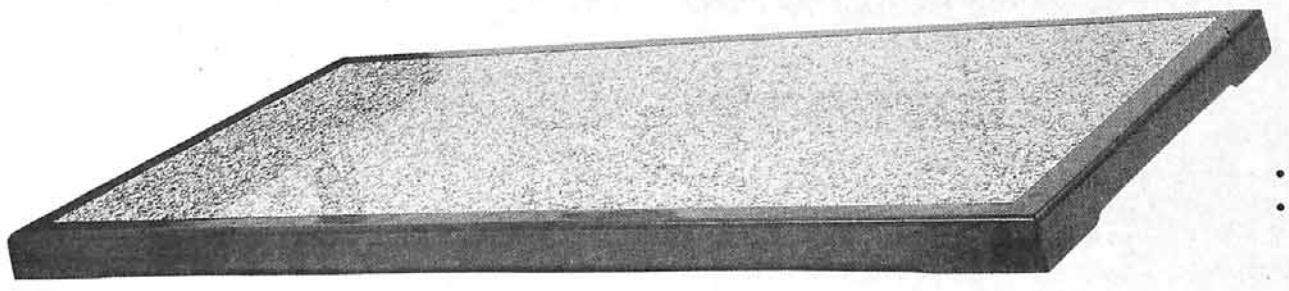
수맥의 기(氣)는 인체의 조화를 깨뜨리기 때문에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현대인은 이 수맥과 콘크리트벽, 바닥에서 뿜어져 나오는 방사체와 독소로 인하여 건강을 잃고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원적외선 온돌침대(파워스톤)은 이러한 수맥을 방지하고 실내의 유해한 공기를 정화하여 편안한 숙면과 건강을 지켜드리는 돌찜질기 입니다.

임상실험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대전대학교·원광대학교 양 부속 한방병원의 임상실험 결과가 효과를 입증합니다.
자신있게 권해드리는 이삭 파워스톤은 원적외선을 이용한 찜질효과로
■혈액순환의 촉진 및 신진대사의 활성화
■통증의 경감작용과 조직의 재생작용으로
신경통·류머티스·관절염·디스크·고혈압·당뇨병·중풍·냉·대하증·산후조리·불면증·교통사고후유증 등 각종 성인병과 부인병에 탁월한 효과가 있으며
■피로회복·비만·미용에도 뛰어난 효과가 있습니다.
■문의하시는 분께 임상실험자료와 수맥관련 책자를 무료로 우송해 드립니다.





〈규격〉 : • 200×104×8
• 200×138×80

• 실용신안특허 : 제068614호
• 상표등록 : 제245216호
판매원 민영실업
(02)208-7974~5
부산 (051)412-9351

인류의 건강을 추구하는
이삭産業株式會社
※전기용품 Q마크획득 · 전자파 장해 시험필
품질보증
EMI 공업진흥청

불자용 생활법복 인기

맵시으뜸 활동편리

한복응용한 디자인 · · · "가격 저렴 했으면"

맵시도 살리고 활동성을 고려한 불자들의 생활법복이 늘어나고 있다.

조계사 근처 20여곳의 승복점에는 전통한복의 기본인 저고리와 바지를 응용해 새롭게 디자인한 생활법복이 선보이고 있어 불자들의 눈길을 끈다.

기존의 단순한 개량한복의 형태에서 한단계 더 발전한 라운드블라우스 모양, 차이나식블라우스 모양의 웃옷과 편안한 통바지, 조끼, 자켓등 현대적 감각으로 디자인된 옷들이 바로 그것.

생활법복은 세련된 옷매무새와 실용적으로 달아놓은 단추등 세심한 곳까지 신경을 써 제작해 불자들이 착용하기에 편리하다는 장점으로 인기가 높다.

옷감의 종류도 무명, 레이온, 순모, 면 등으로 다양해져 옷감의 재질에 따라 디자인과 분위기도 각각 다르다.

여기에 털실로 만든 목도리, 모자, 장갑, 그리고 가방등의 소품도 곁들여져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되어있다.

"작년에 비해 2배 정도가 증가한 하루평균 20여명 정도의 불자들이 생활법복을 찾고 있다"고 서울승복의 김여여성실장은 말한다. 김실장은 신행단체나 사찰의 단체주문시에는 원하는 모양으로 디자인도 해주기 때문에 실용성을 살린 개성있는 생활법복을 구입할 수 있다고 한다.

생활법복은 얼마전 까지만 해도 여성불자들이 주로 찾았다. 그러나 근래들어 사찰내 거사들의 신행활동이 활발해 지면서 남성불자들이 새로운 고객으로 등장했다는게 관계자들의 말이다.

이처럼 생활법복을 찾는 불자들이 늘고 있는 것은 그만큼 불자들의 신행활동이 적극적이고 활발해 졌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해 주는 것이라 할수 있다.

겨울 수련회에서 입을 수련복을 구입하기위해 승복점을 찾은 최종규거사는 "아무옷이나 입고 수련회에 임하는 것보다 단정하고 편안한 수련복을 마련해 수련에 참가 하면 일체감도 느껴지고 마음자세부터가 달라져 정진에 힘이 됩니다"라고 했다.

불교문화적 측면에 있어서 의생활의 연원은 깊다. 그러나 의복이 누더기를 붙여만든 분소의를 기본으로 하여 만든 출가자에 제한돼 있어 매우 단조로왔고 지금까지 불교계에서는 재가불자들의 의복에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현재 스님들이 평상복으로 사용하는 의복도 그 정확한 연원을 알 수는 없으나 전통한복의 영향을 받아 제작됐을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불자들 스스로가 생활법복을 찾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불교의 생활화, 대중화, 현대화를 위한 한 방편으로서 의복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전폭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하고 있다.

한복디자이너로서 불교계 각종 행사의 의상을 담당해온 허영씨는 "조선시대 한복의 모형에서만 소재를 구할것이 아니라 고구려, 고려의 고분벽화에 나타난 복식의 형태를 응용한다면 더욱더 현대적이고 세련된 디자인을 개발할 수 있을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생활법복의 가격은 10만원에서 20만원대. 아직은 대부분 수제작이어서 가격이 비싸다는 흠이 있다. 따라서 생활법복이 대중화되기 위해서는 불자들의 취향을 연구하고 계속적인 디자인 계발과 현대화된 생산라인을 통해 불자들이 부담없이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요청되고 있다.

〈이은자 기자〉



◇ 라운드 블라우스 모양의 웃옷과 통바지, 조끼등 실용적인 모양의 법복들이 시중에 선보이고 있다.

송년 수상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

저무는 한해의 언저리에서 영원한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하는 생각을 해본다.

두시간 동안의 행복을 맛보고 싶다면 영화를 보고, 일주일간을 행복속에 살고 싶다면 복권을 사고, 영원히 행복하고 싶다면 도를 깨달으라는 이야기가 생각 난다.

멋지고 화려하게 아무런 걱정이 없는 영화속의 주인공이 된다면 그 사람은 적어도 2시간동안 만큼은 행복에 잠길 것이고, 복권을 사놓고 1등을 고대하며 기다리는 일주일동안도 괜한 희망과 행복감에 젖게 될것이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이란 순간에 그쳐서는 안된다. 순간을 넘어서 그 무엇에 끄달림이 없는 그러한 삶이어야 한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 나는 1년동안의 행복을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왔던 것 같다. 아들의 건강과 공부를 위해, 남편의 사업을 위해 부처님앞에 촛불을 밝히고 향을 피웠다.

그 모든 것이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것들이었고 나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었음을 새삼 느낀다.

법당에 들어서면 언제나 부처님께 삼배를 올리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고자 발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나 자신의 행복만을 갈구하면서 1년을 또 다시 보내고 있다.

내가 여전히 미진한 중생의 껍데기를 벗어 내지 못한 때문일 것이다.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세상에서 부처님 만나기도 어려우며 부처님법을 듣기도 어렵다하였다.

이 생의 귀한 인연으로 높으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하고 그 가르침을 따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바른 도를 향한 길. 행복의 길임을 확신하면서 마지막 남은 94년의 며칠과 앞으로 찾아올 시간들을 나보다 더 큰 나의 행복을 발원하며 맞이하고 싶다.

정 혜 숙
〈주부·성동구 자양동〉

연변 동포에 책보내기

불교전국여법사회

한국불교전국여법사회(이사장 성순경)는 중국 연변동포들을 위한 양서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중국 연변동포 1세들에 비해 2, 3세들에게는 한국식 전통풍습과 언어가 잊혀져가고 있는 것을 안타까워한 나머지 좋은책을 통해 우리민족의 얼을 심어주고 마음의 양식과 지혜의 눈이 되도록 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우리말 사전, 역사, 위인전등의 책이 이미 한 차례 중국 연변동포에게 전달됐으며, 계속적으로 책보내기 운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02)395-2571

만화 法句經 법구경

정진(不放逸)의 장

빨리 뛰는 말이 / 느린 말을 / 앞지르듯이

이 향 원



현직 고교 선생님의 명강의와 최고의 교재

대학으로 가는 지름길!!

시사 고교 영어—수학 비디오 학습강좌

부족했던 학습보충과
다음 학기 예습을
일류강사 열 분의 명강의에
맡기십시오.
댁의 귀한 자녀를
우등생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시사 고교 영어 · 수학 VIDEO 종합
강좌는 전국고교에서 채택중인 8종
교과서를 종합한 최신 학습 교재입
니다.

내신성적, 수학능력 평가시험, 대학 본고사의 확실한 개념 설명과 정확한 논리, 다양한 문제풀이로 모든 학생들의 어려움을 시사영어사 VIDEO 강좌가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영어 조기교육의 필수교재
ENGLISH 300
국민학교 비디오영어
■ "English 900"의 저자 Edwin T. Cornelius, Jr. 박사 저
즐겁게 보고 들으며 따라하다 보면 어느새 미국 어린이들처럼 영어로 말하게 됩니다.

시사 중학영어 · 수학 VIDEO 종합강좌
전 중학교과서 총망라
기존 중학교재의 문제점과 취약부분을 철저히 보강하여 완벽하게 마무리한 「시사중학영어/수학VIDEO 종합강좌」 - 우등생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 영어강사 박서환 · 현 서울 양재고 교사 / 김중권 · 현 오금고 교사 / 서승진 · 현 한림대교수 · 언어학 박사
■ 수학강사 전도선 · 현 서울 양재고 교사 / 조성관 · 현 서울 양재고 교사 / 장 훈 · 현 한성과학고 교사

YBM 시사영어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1동 642-19(역삼하이츠 I 빌딩 17F 765호) TEL: (02)558-5167-9, 565-5244 / FAX: (02)566-1246
교육부 본부장 이 용 갑

부처님과 함께 하는 연말연시

출판 · 음반 · 영상

한달에 평균 0.9권 읽어

불자 108명에게 들어본 「불서읽기」

불자들은 한달에 평균 1.1권의 불서를 구입하고 0.96권의 불서를 읽으며, 불서 가운데 경전을 가장 읽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불교신문이 지난 12, 13일 이틀 동안 서울시내에 거주하는 불자 1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불자들의 불서읽기 및 불서구입 실태에 관한 조사'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석 달 동안 잡지 이외의 불서를 몇 권 구입했느냐는 질문에 '3권 이상' 샀다는 불자는 60.1%였으며, 1권도 사지 않은 응답한 불자는 17.6%로 나타났다. 3개월 동안 불서구입량은 1권이 13.9%, 2권 17.6%, 3권 17.6%, 4권 11.1%, 5권 8.3%, 6권 이상이 16.7%로 나타났다.

이를 1개월로 환산하면 불자 한사람이 한달에 1.1권의 불서를 구입한 것이다. 이는 올해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조사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독서 및 도서구입 실태에 관한 조사에서 나타난 국민 1인당 도서구입량 1.22권에 비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비교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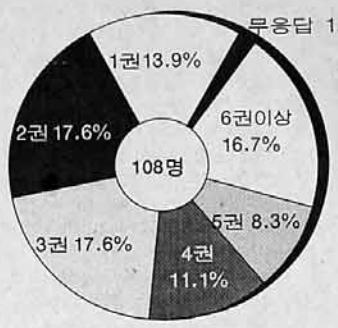
또 석 달에 3권 이상의 불서를 읽는다는 불자는 39.8%였으며, 한 권도 읽지 않는다는 사람은 13.8%로 나타났다. 불서 독서량은 1권이 13.9%, 2권 17.6%, 3권 17.6%, 4권 11.1%, 5권 8.3%, 6권 이상은 16.7%로 조사됐다. 이를 다시 1개월로 환산하면 0.96권으로, 갤럽조사의 국민독서량 1.74권에 훨씬 못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월 1권 이상 독서량의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남자(73.8%)가 여자(48.9%)보다 훨씬 많이 읽었으며, 연령별로는 30대가 72.9%로 가장 높았다.

가장 읽고 싶은 불서를 꼽으라는 질문에 경전이 32.6%로 단연 높게 나타났으며, 선 · 명상(19.6%) 법어집(15.2%) 교리(11.4%)로 불교에 대한 높은 지적 욕구를 반영했다. 이밖에 입문서(5.3%) 소설(3.8%) 시와 만화가 각각 1.5%를 차지했다.

한편 즉위 사람들에게 읽기를 권하고 싶은 책을 말해 달라는 요구에 불자들은 〈법구경〉과 〈아함경〉 〈금강경〉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화엄경〉 〈육조단경〉 〈소설화엄경〉 〈무소유〉 〈불교상식백과〉 〈달을 가리키면…〉 〈사찰, 그속에 깃든 의미〉 등을 추천했다.또 불자들이 좋아하는 불서 지은이는 법정스님 고은(시인) 성철 원효 정휴스님 정병조(동국대교수) 등의 순서로 꼽았다. 이밖에도 불자들은 일타 성열 용산스님 윤청광씨 등을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성운 기자〉

3개월간의 불서구입량



좋아하는 저자


◇성철스님


◇법정스님


◇용산스님


◇고은 씨


◇정병조 교수


◇윤청광 씨

◇ 올해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 온주사 공동집계

순위	도 서 명	저 · 편자	출 판 사	분류
1	영원한 자유의 길	성철	장경각	법어
2	우리 옆에 왔던 부처	이청	일요신문사	소설
3	벼슬도 재물도 풀잎에 이슬일세	윤청광	언어문화사	소설
4	나의문화유산답사기	유홍준	창작과비평사	수상
5	시작도 끝도 없는 길	일타	효림	법어
6	자네, 도가 뭔지 아나	효림	대원정사	수상
7	부처님 땅	이정범 외	불지사	어린이
8	불교의 체계적 이해	고익진	새터	교리
9	불교상식백과	홍사성 주편	불교시대사	입문
10	천수경	무비품이	불일출판사	경전

국민 독서량 1.74권에 훨씬 못미쳐
경전 · 선 · 법어관련 서적 가장 선호

불자 108명 추천불서 10

▲금강경=공(空)사상을 근본으로 하는 반야부 계통의 경전 가운데 가장 널리 읽히며, 특히 선종에서는 소의경전으로 매우 중시되는 경전이다. 한글번역본은 동국역경원 〈한글대장경 155〉, 이기영의 〈한국의 불교사상〉(삼성판 세계사상전집 11권) 등이 있다.

▲법구경=모두 432편의 시로 이루어진 경전. 불교성전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으로, 불교의 도덕관과 사회관 등의 교화내용을 담고 있다. 팔리어로 '진리의 말씀'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듯이, 출가 재가자는 물론 일반인까지도 반드시 읽어보아야 할 교양서적.

▲화엄경=부처님이 온갖 미혹을 떨치고 깨달음을 이루었던 내용을 그대로 표현한 경전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 불교뿐 아니라 한국인의 정신과 원융무애한 사유방법 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 경전이다.

▲아함경=부처님 말씀 가운데 '처음으로 전승된 가르침'이라는 뜻의 경전. 부처님 입멸 1백년 후 소집된 제1결집 때 편찬된 것으로, 부처님이 가르친 본형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경전으로 평가된다. 불교의 근간을 이루는 연기사상 자비정신 깨달음 그리고 대승의 근본사상인 자리이타의 보살사상 등이 총체적으로 설해지고 있다.



▲육조단경=선종 제6조의 설법을 제자들이 집록한 것으로, 가르침을 듣고 단번에 깨닫는다는 돈오 · 견성의 사상을 설하고 있다. "깨달음에는 본디부터 나무가 없고 맑은 거울도 역시 바탕이 아니다. 본래 활짝 열려 아무 것도 없는데 어느 곳에 먼지나 티끌이 있을쏜가"라는 유명한 구절이 기록돼 있다.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지 손가락끝은 왜 보고있나=성철 청담 효봉 동산 서옹 고암스님 등 조계종 역대 종정을 역임한 스님들의 안거 해제 · 결제, 연두법어를 묶었다. 역대 종정들의 적나라한 내면세계를 접하며 번뇌에 갇혀 있는 자아를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정휴 엮음, 대원정사, 5천5백원〉

▲불교상식백과 상.하=불교의 방대한 경전과 다양한 교리체계를 '경전의 세계' '불교의 명저' '불교의 수행법' 등 22장으로 분류, 각 장마다



30~60항의 표제어를 해설해 불교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입문서로 활용해도 좋다. 〈홍사성 주편, 불교시대사, 각권 2만5천원〉

▲소설 화엄경=어린 나그네 선재동자가 53명의 선지식을 만나며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을 기록한 화엄경 입법계품을 문학화한 구도소설. 진리는 노예 장사꾼 뱃사공 창녀들에게서도 찾을 수 있다는 깨침을 전해준다. 〈고은 지음, 민음사, 1만원〉

▲무소유=세계와 삶에 대한 고도로 세련된 지적 통찰을 담고 있는 법정스님의 수필집. 76년 출판 된 이후 2판 43쇄를 찍어낼 정도로 널리 읽히고 알려진 책이다. 〈범우사, 2천원〉

▲사찰, 그속에 깃든 의미=사찰의 대웅전을 비롯한 일주문 사천왕문 석탑 범종 등의 당우와 조형물이 지닌 불교신앙적 · 불교문화적 의미를 알기 쉽게 풀이해주고 있다. 지은이는 '왜?'라는 의문이 없다면 본질을 발견할 수 없다며 사찰의 온갖 조형물에 물음표를 던지길 당부한다. 〈김현준 지음, 교보문고, 6천5백원〉

오 디 오 10선

붓다-음악대서사시 부처님의 탄생에서 열반까지의 생애와 가르침을 웅장한 교향악으로 표현했다. 석성일 작시, 박범훈 작곡, 불교방송.

김영동 명상음악(선1,2) 1집에는 법고 목어 운판 범종 등 사물과 예불문 발원문 반야심경 등 법회의 식문 독송을 2집에는 귀소, 아침의 소리, 여명(우룡음) 산행 명가 영산회상불보살을 담았다. 서울음반.

맑고 향기로운 노래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의 일환으로 제작된 노래모음집. 한서경 조항조 김광석 노영심 등의 인기가수들이 부른 '한울타리' '모두가 부처 모습' '늘푸른 5월의 노래' 등 14곡이 수록돼 있다. 소리레코드.

송춘희 국악가요 불자들이 즐겨부르는 '붓다의 메아리' '청법가' '불교도의 노래' 등 20곡을 실었다. 특히 '삼귀의' '사홍서원' '산회가' 등 법회의식 노래도 담고 있어 초심자 선물용으로 권할만 하다. 오아시스 레코드.

옥아의 꽃신 '그대를 위한 시'에 이은 심진스님의 두번째 창작집. '무상초' '사모곡' '물따라 바람따리' 등을 통해 삶의 고뇌와 걸림없이 살라하는 선사의 가르침을 노래했다. 국악연주는 습기둥이 맡았다. 태광음반.

도신의 국악가요 도신스님의 청아한 목소리에 '엄마' '촛불' '무상'등 10곡을 담았다. 습기둥의 국악연주에 어울어지는 삶의 무상함, 정진을 향한 열의를 느낄 수 있다. 서울음반.

성철큰스님 법문 '불교의 바른 이해와 실천' '무한한 부처님 세계' '눈을 뜨고 바로보자'를 큰 제목으로 한 성철스님법문집'(1집~14집). '불교의 바른 이해와 실천' '부처님의 중도사상' '과학으로 증명된 불교사상' '무한한 부처님 세계' 등의 법문이 실려있다. 우리음반.

진리의 문 전 해인사강주 각성스님의 '청정한 마음과 올바른 정진' 등 여섯 스님의 생활 법문을 모았다. 무관-지혜로운 인생, 보각-불자가 지닐 네가지 마음, 정락-불퇴전의 신앙심, 진철-육바라밀을 실천하자, 통광-선과 기도, 대응음반.

천수경 · 아미타경 세민스님의 독경집. 천수경과 아미타경을 비롯 이산선사발원문 반야심경 법성게 무상게 화엄경약찬게를 수록했다. 문화레코드

금강경 지광스님의 다섯번째 독경집. 금강경 가운데 법회인유분과 이상적멸분 지경공덕분 응화비진분을 수록했다. 문화레코드.

한 해의 정리와 새로운 희망을 준비하는 불자들에게 불교 및 불교문화의 이해 나아가 신심의 증장을 이루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비디오 오디오 각 10선을 소개한다.

10선 추천은 김지석 교수(부산예술학교 · 연극영화과)와 불교중앙관현악단장 박범훈 교수(중앙대 · 국악과)의 도움말을 받아 선정했다.

비 디 오 10선


◇영화 「달마가…」의 한 장면.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동승 해진, 끊임없는 번뇌의 노정에 있는 기봉, 그리고 이미 해탈의 경지에 이른 노승 혜곡의 모습을 통해 번뇌-해탈의 과정을 동시에 보여준다. 89년 로카르노 영화제 그랑프리 수상 작품으로 "독창적 영화언어를 개척한 새로운 작품"이라는 평론가들의 극찬을 받았다. 감독 배용균.

아제아제바라아제 대조적인 두 승려가 중심인물로 등장한다. 진성은 엄격한 자기수양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반면, 순녀는 사바세계의 중생과 함께 살면서 선행을 행한다. 영화의 전반부에서는 개인적 깨달음에 주제의 중심을 두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중생제도의 중요성을 더 강조한다. 감독 임권택.

만다라 지산은 일체의 규율을 어기면서 온갖 저속한 행동을 하지만 늘 소외된 계층의 중생들을 사랑하고 보살핀다. 법은은 그러한 지산에 거부감을 느끼다가 점차 그에게 동화되어 간다. 한국의 불교영화 가운데 세계에 가장 널리 알려진 작품. 감독 임권택.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사미승 침해와 비구니 묘혼은 서로에게 마음을 빼앗기지만, 파계의 두려움을 알기에 물은 번뇌에 빠진다. 고은의 소설 '파계' '미인'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를 영화로 재구성한 작품이다. 감독 정지영.

화엄경 이 작품은 철학적이면서 동시에 사회성도 지니고 있다. 소년 성자 선재의 방랑은 궁극적으로는 깨달음의 과정이지만 사바세계에서 중생들과 어울리면서 터득하는 것임을 보여준다. 감독 장선우.

석가모니, 그 인간과 생애 부처님의 행장과 족적을 통해 한 인간으로서의 80생애를 조명하고 현존하는 성지와 유적지를 추적하여 크고 거룩한 부처님의 자취를 담았다. 60여일 동안 네팔 인도를 순례하며 제작한 다큐멘터리. 1,2부 120분. 연우기획.

불자예절 불자들이 사찰에서 올바르게 지켜야 할 예절을 해설을 붙여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교육드라마 형식으로 제작한 불교예절 테이프. 불교방송.

산사의 향기 일주문 천왕문 금강문 등의 의미, 법고 목어 운판 범종등 주요 법기, 법당내에서 지켜야 할 기본예절, 사찰 내 주요 전각과 불 · 보살상, 강원과 선원생활 등을 소개. 대정프로덕션.

구도의 길 스님들의 구도생활을 1년여 동안 밀착 취재한 다큐멘터리. 한 스님이 산사를 찾아 안거하며 수행 · 정진하는 모습, 구름에 길을 묻고 들길에 몸을 맡기며 만행하는 전과정을 담았다. 불교방송.

오늘의 한국불교 오늘의 한국불교의 현상을 소개한 다큐멘터리. 불교의 역사로부터 한국불교의 오늘과 끊없이 수행하는 스님들이 생활과 불교가 남긴 정신적 문화유산들을 되새기고 있다. 불교영상회보사.

●●● 또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가슴 벅찬 새해가 다가옵니다.
연말 연시,
이웃과 함께
부처님 말씀을 나눕시다. ●●●

책방 여시아문 선정
'94, 최고의 불서 20선

천수경
불일출판사
신국판/171쪽/3,500원

한글 아함경
동국대 출판부
신국판/695쪽/10,000원

불교의 체계적 이해
새터
신국판/326쪽/7,000원

불교상식백과(상·하)
불교시대사
신국판/각권1349쪽/각권20,000원

알기 쉬운 불교
불교방송
신국판/342쪽/5,000원

숫타니파타
샘터
신국판/340쪽/4,000원

부처님 말씀
법등
신국판/585쪽/8,000원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창작과비평사
신국판/350쪽/6,500원

무량수전 배흘림 기둥에 서서
학고재
변형판/460쪽/8,000원

사찰 그 속에 깃든 의미
교보문고
신국판/328쪽/6,500원

무소유
범우사
문고판/137쪽/2,000원

자네 도가 뭔지 아나
대원정사
신국판/283쪽/5,500원

시작하는 마음
효림
신국판/340쪽/5,000원

재미있는 인과 이야기
여래
신국판/268쪽/4,500원

자기를 바로 봅시다
장경각
신국판/333쪽/5,000원

나는 누구인가
청사
신국판/250쪽/4,500원

부처님의 십대 제자 (1~5)
우리출판사
신국판/각권 4,000원

부처님이 좋아요
불광출판부
신국판/158쪽/3,000원

어린이 불교 성전
단이슬
신국판(양장)/370쪽/9,000원

연꽃만화
부다가야
신국판/232쪽/4,000원

연말연시 상품은 도서상품권으로

94◀1995
불교 서적 전문
책방 여시아문
전화·737-0695/팩스·737-06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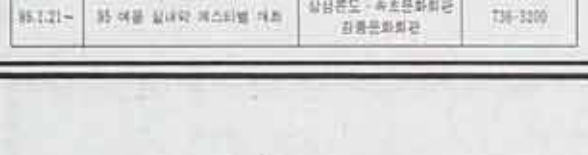
공연 전시 '봇물' …심신 재충전 기회

○…… 한 해가 저무는 곳에서 또 새해를 맞는 희망이 피어난다. 다사다난했던 갑술년을 보내고 기행의 새해를 맞으며 감동적인 공연 한 편을 보는 것도 ……○

○…… 좋고 부처님의 숨결이 어려있는 성지를 찾아 나서는 것도 보람있는 일일 것이다. 연말연시에 가볼만한 문화 행사장과 성지를 소개한다. 〈편집자 주〉 ……○

전 시 회

화 랑	내 용	기 간	문 의
갤러리 21	연말환화모음전	12.10~12.31	766-6511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국제 현대미술전	12.17~95.1.15	503-7744
공평아트센터	TV미술전	12.21~12.27	733-9512
나래갤러리	트루전(도예)	12.24~12.31	723-1864
대구대백플라자	송년 작은그림전	12.21~12.27	053)429-8015
동숭갤러리	한 도시환경조각전	12.1~12.31	745-0011
부산 부산일보	김상호 도자기전	12.26~12.30	051)461-4553
사간갤러리	사실정신전	12.26~95.1.10	733-9454
서울미술관	중대환예외 공로소은소리와 유루으전	12.17~2.28	379-4119
인주 승화랑	고미술기획전	12.17~12.29	0652)265-0567
타임갤러리	94송년 작은그림100점	12.1~12.30	511-1100



연극 · 영화

극 장	제 목	기 간	문 의
강남을지소극장	신나의 개똥이	~1.8	747-7492
대학로 예다이트홀	청애스꼬	~12.30	743-6804
실험극장	11월의 왈츠	무기한	515-7661
세종문화회관	제비는 나폴레옹 고나을 마시지 않는다	~12.31	765-6239
원각 미소극장	원아	~12.30	747-4565
예술의 전당	종도의 물지아리(뮤지컬)	~12.31	369-1591
하나빛소극장	바쁜다 바빠(종합전)	무기한	763-0302
한국불교문화원	인도로 가는 길 추억을 빌릴입물(only yesterday)	95.1.6 1.20	739-8430

음 악 회

날 짜	공 연	장 소	문 의
24일	윤정 콘소리(수공기)	국립 소극장	274-1151
	포요심날푸대 국악연주회	세종 소강당	399-1668
26일	서울아카데미 송년음악회	예술의 전당	578-9065
	읽고 함기를써 남에게 음물보내 주회 읽고 함기쁜 음악회	호암아트홀	741-4696~7
27일	윤기동 국악송년 음악회	호암아트홀	591-3817
28일	김덕수와 사물놀이 · 퍼드먼공연	호암아트홀	747-8277
	가족음악회	예전리사이틀	571-4197
	송년음악회 SBC여울단	세종대장당	784-2867
29일	서울시향 518회 정기연주	세종대장당	399-1630
30일	슈리스트 창실별 연주회	세종대장당	553-1781
31일	송년특집음악회	예술의 전당(음악당)	580-1411
95.1.21~	95 여울 일내막 페스티벌 개최	삼삼문도 · 속초문화회관 강릉문화회관	736-3200

성 지 순 례

〈국내〉

관 광 상 품	날 짜	여 행 사	문 의
오대산 적멸보궁	매월 음력 초하루	용진항공 여행사	02) 279-1191~3
팔공산 갓바위	〃 초 8일		
월악 실원사	〃 18일		
강화 보문사	〃 1, 3, 5, 7 14, 25일		
지산 세고사	12. 25일		
봉정암 · 오색일	12. 31~1. 3일		
천안 광덕사 · 공주 마곡사	1. 1~1. 3일		
정양 장곡사 · 부여 대조사			
선운사 · 도솔암			

〈국외〉

여 행 사	관 광 상 품	날 짜	문 의
수이산 여행사	일본 동경~오사카~교토 태국 태림 인도 스리랑카 중국	12.24~28(4박5일) 12.25~1.5(20박21일) 1.5~ (4박5일)	730-9106
실크로드여행사	불교성지 전역(중국제외)	매월 15일 (8박9일)	720-3241
경로 여행사	성가포르 태국 미얀마 인도 한백	매월 1 3일(9박10일)	720-9600
아태관광	인도 · 네팔 순례 14일 태국 3일 대만 5일	1.1~1.14 2.5~2.18 1월 수시 출발	732-3200
원간 불토	인도 전역	1.10~27 (17박18일) 2.3~2.18 (15박16일)	573-0458
세초 여행사	인도	1.4~1.18 (14박15일)	544-1533
한진관광여행사	인도	1.6~1.15 1.14~1.23(9박10일)	726-5758

문화유적답사

주 최	날 짜	청 선 지	주 요 답 사 지	문 의
두 레	12. 29 1. 7~ 8 1. 18	경기 강화 경기 강원 충부 충주	부니산 고인돌 와래불좌 추산사청장 동굴법사 철제탑조등 문화재단의 고구려비 탄금대 5일장등	712-5612
글림하이킹(어린이대상)	1. 8~ 11	강원도	월정사 상흥사 심원사 낙산사	263-1387
하사람	12. 19~ 11 12.24~ 25 1. 14~ 15	경북 전남	불국사 동대박물관 감은사지 옥신서원 청도문묵사 임광표충사 장녕 고분군등 선암사 낙안읍성 민속마을 담양등	725-1284
누리일	12.24~25		남말마을 사자봉 대문사 미황사 월남사터	735-9861

기 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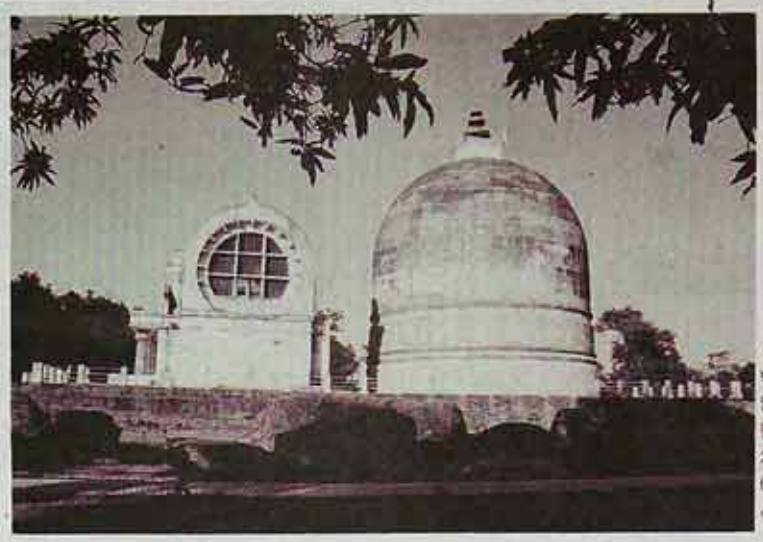
▲세계공룡대전이 12월 20일부터 내년 2월 26일까지 56일간 서울 삼성동 한국종합전시장 별관에서 열린다.

▲세계배낭걷기에 참가할 신청자를 한국건강보험연맹은 모집한다. 774-2831

▲94 국제열기구대회를 국내에서 최초로 12월 22일부터 27일까지 제주도에서 갖는다.

▲무료 취미교실을 서울시 가정 상담소에서 12월 12일부터 2월 28일까지 꽃꽂이 서군자 한글서예등 다양하게 마련한다. 215-7252

▲청소년 무료 국악강좌를 국립국악원이 1월 23일부터 27일까지 개설한다. 초 · 중 · 고교생 2백명을 대상으로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열린다. 580-3055



◇가난하지만 천박치 않고 때묻지 않은 땅 인도. 사람들의 마음엔 부처님의 정신이 살아있다. 사진은 루시나가라 열반당.

"인류의 내일이 그곳에 있었다"

부처님의 품속 인도를 다녀와서

윤제학

우리는 맨 나중에 부처님의 탄생지인 룸비니 동산에 들렀다. 시작과 끝이, 삶과 죽음이,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라는 그 가르침을 중생 스스로 깨닫게 하시려는 부처님의 뜻 때문이었을까?

페스트, 말라리아, 거지, 굶주림…. 이런 말들이 자아내는 흉흉한 분위기는 오히려 인도 성지 순례에 대한 기대와 호기심을 한껏 부풀려 놓았다.

어차피 여행이란 일상에서의 떠남이고 낯선 얼굴에 나를 비추어 보는 작업이 아니던가. 더욱이 부처님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길인데. '혹시' 하는 속물스런 걱정은 배낭에서조차 꺼내버리기로 했다.

1994년 11월 18일, 흔히 '부처님의 나라' '영상의 나라'로 불리는 인도에 도착했다. 현지 시각 새벽 2시. 인도는 고요히 잠들어 있었다.

후끈한 날씨, 뭔한 눈으로 이방인을 바라보는 경비원의 눈빛, 허름한 봄베이 국제 공항 건물이 이국임을 실감케 한다.

일행은 서둘러 미리 준비된 버스에 올랐다. 한국에서는 요즈음 시골에서도 보기 힘든 형태의 버스다. 그러나 차창 위에 달린 소형 선풍기를 자랑스레 틀어 보이는 인도인의 얼굴에는 상당한 자부심과 긍지가 담겨 있는 듯하다.

차츰 어둠에 익숙해진 시야로 우리 일행의 면면이 드러난다. 왼로 스님에서 부터 불교 언론계의 어른들 그리고 나같은 얼치기까지 이름하여 사부대중이 다 모인 셈이다. 이분들과 함께 해야될 9박 10일의 일정. 고맙고 소중한 인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남몰래 손을 모아본다.

호텔로 향하는 버스 속. 드디어 우리는 정식으로 인도를 만나는 의식을 치렀다. 꽃망울만을 실로 꿰어 만든 꽃다발을 현지 인도인 안내원이 한명 한명의 목에 걸어 주고 있었다.(이후로도 우리는 가는 곳마다 이 일을 치러야 했다.)

그 조잡스런 꽃다발이 내 목에 걸리는 순간, '아, 선량하기 그지없는 이 민족에 축복 있어라.'는 말이 목젖을 뜨겁게 했다. 나는 이후로도 이런 아름다운 꽃다발을 받을 수 없을 것 같다.

어린 시절 보끼를 꽃으로 만든 시계를 친구의 손에 매어 주던 일이 떠오른다. 동화와 현실이 만나는 순간이었다.

인구 10억(90년 통계로는 8억5천)으로, 세계 2위, 국토 면적 세계 7위로 우리나라의 약 15배, 주요 지방어만 꼽아도 15개가 넘는 언어가 쓰이는 나라.

삶과 죽음이 한가로이 어깨동무를 하고 있는 나라,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 한 순간에 모여 있는 나라, 절대 가난과 어처구니없는 부가 한심할 정도로 평화롭게 공존하는 나라.

내가 본 인도는 그랬다. 그렇다면 그 '나'는? 그것이 바로 나의 숙제다.

인도에서는 모든 경계가 무너진다. 차선 조차도 별 의미가 없고, 사람과 차와, 릭샤(인도식 인력거), 소, 돼지 그 밖에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뒤섞여 있다. 그러나 조금만 자세히 보면 그 모든 것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다. 그러나 그들은 이것이야 말로 '인도식의 합리다'라고 강변하지도 않는다.

이런 분위기가 주는 이질감, 곤혹감, 불편 따위는 오로지 이방인들의 몫이다. 나는 그런 불편한 이방인이 되지 않기로 작정했다. 물로 볼 것조차 없는 삶, 바로 부처님의 품속에 들어와 있지 않은가. 나는 비로소 불자의 삶은 어떤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 어슴프레 떠올랐다.

우리 일행은 하루 서너 시간의 잠으로 만족하며 부처님의 자취를 좇았다. 초전법륜지인 녹야원에서부터 성도지인 부다가야를 거쳐 영축산, 죽림정사, 나란다 불교대학, 루시나가라의 열반당, 지금은 네팔땅인 룸비니 동산까지.

참으로 우습게도 우리는 맨 나중에 부처님의 탄생지인 룸비니 동산에 들렀다. 시작과 끝이, 삶과 죽음이,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라는 그 가르침을 중생 스스로 깨닫게 하시려는 부처님의 뜻 때문이었을까?

자금의 인도 땅엔 불교가 없다. 남아있는 유적들 또한 이슬람에 의해 처참히 파괴된 잔해들 뿐이다. 그러나 나는 어디서고 부처님을 만날 수 있었다.

그들 삶의 외형적 질서와 물리적 토대는 힌두교와 이슬람교가 지배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 내면에 흐르는 정신과 삶과 세계에 대한 태도는 분명 부처님 말씀대로였다.

자연과의 친화, 삶에 대한 긍정, 생명에 대한 끝없는 외경. 이런 것들이야말로 오늘의 인도를 지키는 힘이요 부처님의 가피가 아닐까?

그들의 삶을 천박한 물질적 가치로 바라보아서는 안된다. 어쩌면 저들이 유보한 물질적 풍요를 지금 우리들이 게걸스럽게 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할 일이다.

가난하되 천박하지 않고 때묻지 않은 땅. 그래서 인도의 지는 해는 어디서 보아도 장엄하다. 어쩌면 인류의 내일이 그곳에 있는 것은 아닐지.

〈출판기획부 차장〉

녹수청산,
바로 이런 곳입니다.

우리 것을 고집합니다.
편안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차문화를 이어갑니다.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울 한복판에도 이렇게
자랑스러운 고집을 부리는 곳이 있습니다.

• 녹차/ 민속차/ 약차/ 건강식(죽)을 최고의 재료를 엄선하여 만듭니다.

• 소모임, 불자들의 신행 모임, 도심 특별 법회, 강연회 등의 장소로도 좋습 니다.

녹수 청산

공간 가득

그윽한 정취가 있습니다.
정겨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禪茶一如의
여유로움이 있습니다.

갑술년 불교계는 조계종의 개혁불사로 상징된 한해였다. 각종단은 새종정 취임과 더불어 도약을 디짐했으며 부산·광주 불교방송 및 불교CATV 추진등 포교의 첨단·과학적 신기원이 이룩되는 해이기도 했다. 종단·출판·문화·문화재·방송·환경을 통해 1994년 불교계를 결산한다.

'94 불교계 결산

개혁·중흥의 발판 구축…분주했던 한해

월하·보성·도용·각해대종사 취임

4대종단 종정취임

불교의 4대 종단이라 할 조계 태고 천태 진각종의 새 종정들이 취임하는 진기록을 낳은 한해였다.

천태종의 도용종정은 비록 지난해 12월22일 종정으로 추대됐지만 올해 2월 23일 재단법인 대한불교 천태종의 이사장으로 승인되는 등 실질적으로 1994년부터 종정 업무에 들어갔으며 날짜순으로 보면 진각종 6대 총인 원정각 대종사가 2월 25일 열반, 7대 총인으로 각해 대종사가 추대돼 6월16일 추대식을 봉행했으며 태고종은 4월 28일 우백암종정이 열반함에 따라 후임으로 정보성 대종사가 8월25일 추대식을 가졌다. 조계종은 제9대 종정 월하스님이 5월13일 조계사에서 추대식을 봉행했다.

새로 취임한 종정스님들은 한결같이 검소함과 부지런함, 높은 수행력으로 종도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또한 각 종단들은 새종정 취임과 더불어 개혁과 도약을 새롭게 천명하고 있다.

개혁회의 8개월…새원장 선출

조계종 개혁불사

올해 조계종은 개혁불사로써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으리만큼 격동적이고 획기적인 역사의 큰 획을 그으며 자주적·민주적 종단마련에 심혈을 기울인 한 해였다.

선우도량 실천승가회 전승련 동국대 석림동문회등 교계 8개 단체가 주축이 돼 구성된 범종추는 사부대중의 전격 호응을 받으며 개혁의 기치를 내걸었다. 3·29, 4·10 법난을 통해 공권력과 굉굉히 맞섰으나 불교자주화를 향한 단합으로 이겨냈다.

승려대회를 거쳐 출범한 개혁회의는 지난 11월 21일 송월주스님이 총무원장으로 당선됨에 따라 새 집행부에 종권을 평화적으로 이양했다. 8개월간에 걸친 개혁불사는 인사와 징계문제로 일부 잡음은 있었으나 종회의원 겸직금지, 지방자치화에 따른 교구종회개설, 재정공개 명문화, 포교원 승격으로 포교활성화 강구, 교육원 신설등 승려교육 강화, 소청권 신설 등 이제껏 조계종에서 의욕은 있었으나 시도 못했던 제도를 획기적으로 마련하는 쾌거를 이뤘다.

활동미진·반성과 역할론 제기

재가신도회의 부침

그동안 재가불자의 구심점 역할을 자청하던 조계종 전국신도회는 조기현 전회장이 상무대비리로 구속되면서 침체돼 이렇다할 움직임없이 명맥만을 간신히 유지하게 되었다. 여기에 개혁의 바람이 일었고 재가신도들의 반성과 역할론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열기속에 7월 23일, 3천여명의 재가자와 40여개 재가 단체가 모여 한국재가불자연합(상임회장 안동일)이 탄생됐다. 재가불자의 위상과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 창립한 재가연합은 사부대중이 함께 하는 불교로 거듭나야 한다는 기치를 내걸고 활동을 시작했다. 이와함께 조계종 개혁종단도 재가신도의 개혁을 위해 신도법을 새롭게 정비, 신도의 권리행사 및 의무이행 등의 조항을 담은 신도법을 11월 9일 조계종 개혁회의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4월부터 일기시작한 조계종단의 개혁은 재가신도들에게도 변화의 계기가 되었다.

자비실천사업 전국으로 확산

사회복지관 개관 줄이어

금년은 유난히 사회복지관 개관이 잇따라 불교사회복지사업이 활기띤 한 해였다. 신흥사가 2월 속초종합사회복지관을 개관한데 이어 5월 여천 흥국사가 여수시에 문수종합사회복지관을 개원했다. 또한 6월 1일 통도사 자비원이 창원 중리종합사회복지관을 개관했으며 11월에는 공창종합사회복지관을 개관하는등 지역에서의 사회종합복지관의 개원이 두드러졌다.

이외에도 재가신행단체인 동산반야회가 7월 30일 서울 조계사앞에 한국불교 시민상담실을 개설, 일반인을 대상으로 폭넓고 전문적인 포교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9월 30일 불교자원봉사연합회가 창립, 도시빈민과 불우이웃, 장애인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 한편 서울 삼천사는 11월 사회복지법인 인덕원을 설립, 내년에 은평구에 사회복지관을 설립할 예정이며 사회복지법인 자비원과 사단법인 불국토도 강릉시와 부산시로부터 강릉사회복지관, 개금사회복지관을 위탁받아 새해 1월에 개관한다.



◇지난 4월10일 전국 조계종 승려 3천여명이 모인 승려대회를 통해 조계종의 개혁불사는 본격적으로 물을 올렸다.



◇평화적으로 종권을 이양받은 월주 총무원장 집행부는 개혁불사 완수라는 과업을 앞에 두고 있다.



◇불자들의 폭넓은 참여속에 80억원의 주식을 모금한 불교텔리비젼은 내년 3월 개국을 앞두고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종립 동국대 국문과 학생들이 교정안에서 교수를 집단 폭행,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었으니 전 동국인의 자성과 참회는 종립대학의 건학이념을 되살리는 계기가 됐다.

행사 많았으나 참여 부족

아쉬움 남긴 환경운동

올해 불교계의 환경운동은 한국불교환경교육원이 환경처 산하 사단법인으로 등록하고, 현대불교신문사 공해추방 운동불교인모임 등 불교계 6개단체가 그린스카우트에 참여하고 있으며, 법정스님에 의해 주도된 '맑고 향기롭게 운동'이 주목을 끌었다.

불교환경교육원은 사단법인화하면서 '맑은 마음, 좋은 벗, 깨끗한 땅'을 모토로 22차례에 걸친 환경수련 교육과 생태주의 연구를 통한 이념정립, 〈동양사상과 환경문제〉〈생명의 가치관과 새로운 생활양식〉 등의 자료집을 발간, 교육·연구사업을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태고종은 지난 3월 환경보존 실천수륙영산대법회를 봉행했으며, 진각종 청정국토가꾸기 운동 본부는 종단소속 1백여 심인당에 분리수거용 쓰레기통을 나눠주며 자원재활용 운동을 실시하고 있고 천태종은 청년회가 중심이 돼 환경수호대를 발대시켰다. 그러나 환경운동은 외형적인 드러남에 비해 불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내지 못했다. 또 1회성 행사위주의 단편성을 띄어 생활속에서의 환경운동의 활성화는 여전히 과제로 남겨두었다.

원각·경천사지탑 훼손 파문

문화재 수난

올해도 문화재는 각종 재난에 시달린 한해였다. 산성비 등 자연재해와 각종 개발로 주변 경관이 훼손되어 문화유산이 지닌 헤아릴 수 없는 가치들이 파괴되었다. 나아가 고의적인 파손까지 자행되기도 했다. 대표적인 예는, 서울 탑골공원내에 있는 원각사지 10층석탑(국보 제2호) 탑신에 새겨진 석가모니불 사천왕상 등이 누군가의 고의적인 충격에 파손된 것이다.

문화재관리국은 원각사지탑과 경복궁내 경천사지 10층석탑 탑폴레에 보호각을 설치키로 했다. 그러나 그만큼 성보문화재는 불자및 국민들로부터 멀어지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또 올해만도 40여점의 문화재가 도난되는 수난을 겪었다. 한편 조계종 총무원이 산하에 문화사회부를 신설하고, 성보문화재 조사비 및 관리비로 4천7백만원의 예산을 책정해 아쉬 운대로 종단차원의 관심을 보였다.

'국악의 해' 음악활동 저조·연극침체

전시회 다양

불교출판계는 지난 한해동안 화엄경의 완역 출간이라는 커다란 환금알을 낳았다. 무비스님이 30여년간의 대작불사를 완성한 이 수확은 역경사업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로 큰 의미를 부여받았다. 불교출판계는 상반기까지 예년 수준을 유지했으나 여름을 넘기며 눈에 띄는 실적을 거두지는 못했다. 문화계의 두드러진 현상은 4월에서 7월초까지 각종 전시회가 꼬리를 물고 문을 열었던 점을 들 수 있다. 이같은 현상은 10월의 제15회 불교미술전람회로 이어져 미술분야의 활동이 돋보였던 한 해로 평가됐다.

국악의 해를 맞아 불교음악계의 활동이 기대됐으나 크게 주목을 받을 만큼의 실적은 없었다. 다만 안숙선씨에 의해 부처님일대기가 관소리로 발표됐고 불교방송국의 계속 사업인 새찬불가 제작이 순조롭게 진행, 새로 20곡이 발표돼 관심을 끌었다. 연극계의 침체국면은 지난 한해도 여전히 계속됐으며 극단 바람이 새 활로 모색을 「전용극장건립」을 통해 추진해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매체포교의 새전기 마련

불교TV추진·현대불교 창간

지난 한해동안 매체 포교 분야에서 가장 두드러진 수확은 불교텔리비젼의 개국 준비와 현대불교신문의 창간으로 꼽히고 있다. 새해 3월에 개국할 예정인 불교텔리비젼은 사옥을 마련한 6월이후 본격적으로 개국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0월말까지 79억 8천여만원의 주식모금을 마감했다. 국내의 불자들의 전폭적인 호응 속에 전개된 불자 주주공모는 불교텔리비젼의 개국에 상당한 힘을 실어 준 것으로 평가됐다.

교계 신문매체 가운데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현대불교신문은 10월15일자로 창간됐다.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를 사시를 내걸고 전면 가로쓰기 16면체제로 시작한 현대불교는 전법과 신행의 길잡이로서의 불교언론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는 평이다.

주요종단 자체선정 10대뉴스

조계종

△ 3·29, 4·10 법난
△ 개혁회의 출범
△ 조계종 제9대 종정 월하스님 취임
△ 탄성 총무원장 광주 5·18묘역 첫 참배
△ 종헌·종법 제정 개정
△ 월하종정·탄성총무원장 청와대 방문
△ 조계사에 공권력 난입해 전기협 노동자 연행 구속
△ 해광사에 동국대 비구니 기숙사, 보타사에 중앙승가대 비구니 기숙사 마련
△ 새 선거문화 창출
△ 제28대 월주 총무원장 취임

태고종

△ 환경보존실천 수륙영산대법회
△ 종단중진간부 연찬회
△ 제14세 백암종정 열반, 종단장 봉행
△ 제 68회 임시 중앙종회—(재)한국 불교 태고종 유지재단 폐지, (사)한국불교 태고종 중앙회로 대체
△ 제15세 보성 종정 추대법회
△ 전통문화계승 10만연등 팔관대재
△ 전통 홍가사 훼손 KBS시정방송 방영
△ 서울·인천·경기지역 종무원 8개로 분리
△ 국가재난소멸기원 및 희생자 천혼국재
△ 제69회 정기중앙종회개최—종단 발전 특위 등 구성

천태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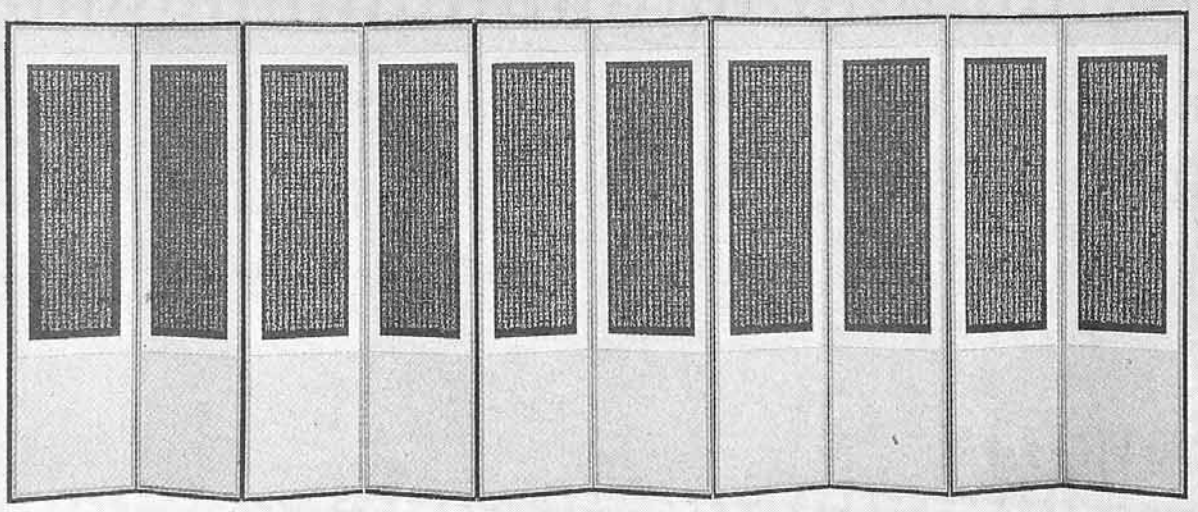
△ 재단법인 이사장에 도용스님
△ 한·중·일 예비회담 주도, 중국 국청사 조사전 건립불사
△ 서울 관문사, 대전 광수사, 단양 광법사 등 대작 불사 추진
△ 상월 원각 대조사 제 82회 탄신대재
△ 조기순 보살 사리 431과 출현, 친견법회
△ 환경 수호대 발대식및 상월대조사기 배구대회
△ 한해 의연금 모금
△ 금강불교대 법사과정 신설
△ 전국 각 시도단위 간부단합법회및 전국신도 간부 단합법회
△ 제2대 대충 종정 1주기 열반대재

진각종

△ 원정각 총인 열반
△ 7대 총인 각해 대종사 추대
△ 종립 위덕대학 지진불사
△ 전국순회법회
△ 신교도 노후복지 금강수도원 입소식
△ 진각회관 지진불사
△ 밀각 심인당 개축
△ 보살 십선계 수계 관정 불사
△ 춘·추기 스승 강공회
△ 선지식 한마음 수련회

금강경(후면 연화도진품)10폭 병풍

불자라면 누구나 원하시는 병풍 금강경 이제는 가격부담없이 모실수 있습니다.



■ 특 징
• 전면 : 원력높은 스님께서 사경하신 금강경을 영인본 金書로 조성하였습니다.
• 후면 : 국전작가 재가불자화백의 연화도 진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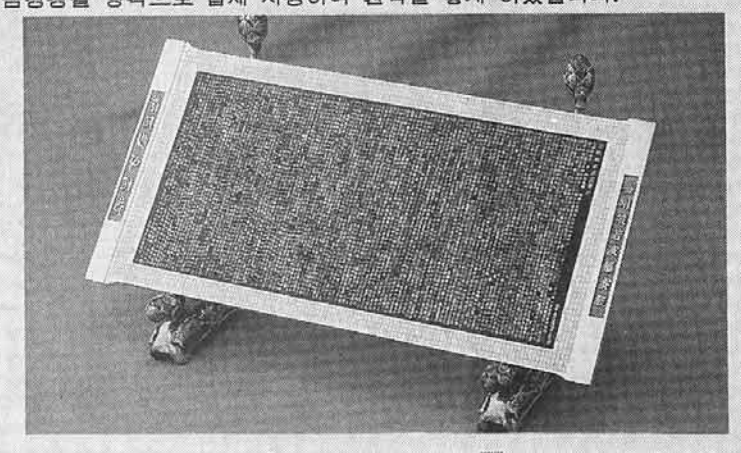
■ 규 격
• 높이 : 5자8치(175.8㎝)
• 폭 : 14자5치(439.5㎝)
• 재질 : 스기목, 양면비단, 스모사 특후지

■ 포교가격
₩ 490,000
(현금및 은행신용카드)

모시는 것만으로도 큰 공덕을 쌓는 성품
살아있는 호신경전

秘經 천불 금강경

경판테두리에 단을 쌓아 천불을 조성하여 공덕을 기리고 가운데에 금강경을 양각으로 입체 사경하여 원력을 담게 하였습니다.



• 경판규격 : 505×255×8 (㎜)
• 재질 : 주석(99.9%) 순금(24K)양표면처리

■ 특별가격 ₩480,000

(클로버써비스)전화 080—023—1101, 지방에 계신분은 수신자가 요금을 부담하는 클로버써비스 전화를 이용하세요.

불교전통불화공예연구원
三 田 佛 事 (조계사 후문)
■ 문의처 : (02)732—6095~6

불교전통표구, 각종 불교행사기념품, 사찰인쇄 기획에서 제작까지 저렴하게 하여드립니다.

불법홍포와 자비원력의 시현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정진대중께 포교의 일환으로 정성을 다하여 조성한 금강석 같은 금강경 병풍을 저렴하게 보급하고 있습니다.

중리 복지관

「나눔의 통장」 갖기 "시동"

소년가장·불우노인등 후원자와 연결… 온라인 예금

속초 복지관은 신문에 이웃돕기 기사화 운동 전개

연말을 맞아 교계 종합복지관들이 불우 이웃을 돕기 위한 색다른 복지사업을 펼치고 있어 화제이다.

개관된지 얼마 안 되는 이들 복지관들은 기존의 불우이웃돕기와는 다른, 새로운 방법으로 어려운 이웃과 후원자를 연결시키며, 보다 적극적인 후원을 유도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창원 중리종합복지관의 '나눔의 통장' 갖기 운동과 속초종합복지관의 '1주 2가구 기사화' 캠페인이 그것.

중리종합복지관(관장 진홍스님)의 '나눔의 통장' 갖기 운동은 소년소녀가장세대, 편모·편부가정, 장애인 및 혼자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이를 후원자와 통장으로 연결시켜주는 사업이다.

일단 후원자가 생기면 후원할 대상자 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한다. 통장을 개설한 후 복지관에서는 입금표와 함께 감사의 편지, 그리고 그 지원대상 가정의 실태를 한 눈에 알려주는 기초조사서를 후원자에게 보내준다. 이렇게 후원자와 후원대상 가정이 연결되면 그때부터 온라인으로 입금되는 후원금이 지원된다. 복지관에서는 이미 10구좌가 개설 10가정에 지원금이 보내지고 있다고 밝혔다. '나눔의 통장'은 지역민들의 호응을 받고 있는데 특히 주부들과 직장인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



"異國의 따뜻한 송년법회"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송년법회」가 '자비의 집' 주최로 지난 18일 홍제동 정토포교원에서 봉행됐다. 네팔, 베트남등 동남아출신 노동자 1백여명이 참석한 이날 법회에서 지도법사 법륜스님은 "모두가 부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 업에 끄달리지 않는 삶을 살자"고 당부했다. 이날 외국인 노동자들은 고전무용, 어린이연극 네팔전통음악과 무용등을 선보이며 함께 어우러진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강원도 속초종합복지관(관장 지홍스님)은 생활이 매우 궁핍한 가구를 지역종합소식지인 설악신문에 게재하는 '1주 2가구 기사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지난 1일부터 시작한 이 캠페인은 지금까지 모두 8가구의 생활상을 조목조목 소개했다. 신문에 난 어려움을 읽은 지역 주민들이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

십시일반의 도움을 청하는 기사가 나간 후 각지에서 성금과 함께 격려의 전화가 이어졌다.

속초복지관은 오는 30일 8가구에서 쏠아진 성금을 전달하는 전달식을 갖는다.

나눔의 통장 갖기운동을 벌이고 있는 중리종합사회복지관 장수용 사회복지과장은 "나눔의 통장으로 들어오는 성금은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마음이 담긴 후원금이라 한결 소중"하다며 "나눔의 통장으로 연결된 이웃돕기는 무차별 대상의 이웃돕기보다 호응이 각별하다"며 나눔의 통장갖기를 널리 확산시키겠다고 밝힌다.

〈이경숙기자〉

송년미담 복지시설 돕기 5년째 김남규 거사

양로원·보육원에 매주 생선보내

장애아동도 돌봐…"죽는 날까지 이웃과 함께"



인천 남동구에서 김남규거사 하면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보살로 지역에서 널리 알려져 있다.

천태종 인천 연화사 신도회장인 김남규거사(56, 대원상회 대표)는 1주일에 한번씩 인천영락원(양로원)과 인천보육원(고아원)에 생선 7상자를 보내는 일을 5년째 해오고 있다.

"영락원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3백여명, 보육원의 아이들이 1백여명이 있는데 이들의 생활비가 시에서 나오는데 당시 5백50원정도 밖에 안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파는 생선이나마 마음놓고 먹게 하자는 데서 시작된 생선보내기는 5년째 이르고 있지만 김거사는 이를 한주도 거르지 않았다. 또한 원주의 소쩍새 마을에는 격주로, 남동구의 생활보호대상자인 무의탁 노인 39세대에도 생선을 수시로 보시, 노인들의 반찬 걱정을 덜어주고 있다.

김거사의 보살행은 이에 머무르지 않는다.

지난 92년 복합장애아동복지시설인 명심원을 우연히 방문해 운영이 몹시 어려움을 알고 후원자로 나서기로 하고, 연화사의 신도들을 설득, 후원회를 결성했다. 당시 30여명이던 후원 회원이 지금은 2백여명으로 늘어났다. 김남규거사는 후원회원들과 수시로 명심원을 찾는다.

연화사 청년회원들과 함께 원생들에게 목욕을 시켜주고 빨래와 청소도 같이 한다. 지난주엔 올겨울을 따뜻이 보내라고 기름값을 보시했다.

"찾아가는 날은 아이들이 몹시 기뻐합니다. 정신박약, 언어장애등 정상인이 아니라서인지 누구보다 정에 민감하지요."

김남규거사는 한때 부산 어시장에서 알아주는 이름있는 사업가였으나 사업실패로 단돈 50만원을 가지고 인천으로 오게 된다. 사업에 실패해 세상의 찬 인심을 대하게 되자 오히려 김거사의 부처님에게 의지하는 마음은 더욱 돈독해진다.

"이 세상의 물질이 본디 내것이 아님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물질에의 집착을 놓으니 이상하게 사업이 잘 되더군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담고 사니 현실이 그대로 보여지고 도리어 사업이 제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부지런한 사람'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김남규거사는 부인 정명자보살과 자주 구인사를 찾아 철야정진으로 마음을 닦는다.

"크게는 못해도 내가 할 수 있는 한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고 나누는 일에 헌신하며 죽는 날까지 열심히 살아갈 생각입니다." 〈숙〉

성철스님 사리탑 조성

설계공모, 해인사입구에 97년 완공

지난해 11월 열반한 전 조계종 종정 성철대종사의 사리탑이 조성된다. 백련문도회는 지난 19일 사리탑 건립 계획을 밝히고, 일차적으로 사리탑 설계를 공모키로 했다.

백련문도회는 큰스님의 위상에 걸맞는 사리탑을 조성해야 한다는 문도들의 의견에 따라 지난 5월 이같이 결정하고 그동안 문화재전문가인 황수영박사 등의 자문을 얻어 건립계획을 구체화시켜 왔다.

사리탑은 해인사 일주문입구 우측공터에 108평 규모로 세워지며, 공모된 설계도에 의해 97년 완공할 계획이다. 사리탑을 포함한 주변 1천80평의 조경은 동국대 홍광표교수(사찰조경학)가 맡았다.

사리탑설계 공모와 관련 원택스님은 "큰스님 사리탑은 전통을 계승하면서 큰스님의 거룩한 청빈사상과 올곧은 수행정신이 표현될 수 있는 이 시대의 독창적 기념물이 되어야 한다"며 앞으로 교계의 원로·중진스님과 사부대중이 참가하는 '성철대종사 사리탑 건립위원회'를 구성해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리탑설계 공모 개요는 다음과 같다.

△설계규모는 108평이며 △현장설명은 내년 1월10일 오후 2시 현장에서 실시 △응모자격은 제한을 두지 않으며 △설계의도를 전달할 수 있는 평면도 단면도 모형 등을 내년 4월15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문의:02-3411-1701)

당선작 1편에는 상금 2천만원이 주어지며, 당선작 및 우수작품을 일정기간 전시할 예정이다. 사리탑 설계를 현상공모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불교자원봉사단' 발족

5개 단체 협력 다짐…의료·방송모니터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봉사활동을 펴 나갈 불교자원봉사단이 발족됐다.

제1회 자원봉사시민대학을 수료한 수료생 120명은 지난 15일 출관문화회관 4층에서 △한국비하라회 △한국신문방송감청관리소 △한국 자비약손회 △개안무료시술 보광명회 △청산선우회 등 부문별 불교 자원봉사단 발족식을 갖고 △조건없는 자비의 손길 펴기 △사회문제 적극 해결 △부처님의 깨달음에 바탕을 둔 자비봉사 보살행 실천을 다짐했다.

이날 발족식에서 봉사대사 안 청정행보살은 "불자들은 단합, 큰 힘을 발휘해 어려운 이웃들이 꼭 필요로 하는 봉사단으로 부처님의 전법사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불교방송 이사장 종하스님 유임

새해예산 96억원

재단법인 불교방송 이사장에 종하스님이 유임됐다.

불교방송 이사회는 지난 21일 오후1시 이사 16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15차 이사회를 갖고 종하스님을 이사장 직무대행에서 이사장으로 유임시키고 조계종 종회의장 설정스님을 이사로 영입했다. 설정스님의 이사 영입은 당연직 조항에 따른 것.

이날 이사회에서는 95년도 불교방송국 예산 95억7천만원과 부산·광주지역 예산 각각 29억9천만원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한편 이사회는 불교방송 신문창간과 관련 실무진에서 좀 더 검토한 후 차기 회의에서 논의키로 했다.

BBS 지방국 "파란 불"

정부보고서, 5개국 개설건의

불교방송 지방국 확대의 전망이 밝아지고 있다.

공보처 산하 선진방송자문위원회(위원장 임상원)는 「지상파 방송 발전5개년계획」에서 종교방송의 지방국 확충안을 마련, 95~96년에 종교방송의 지방네트워크를 △불교방송과 평화방송은 부산 광주 등 5개 △극동아세아방송은 광주 창원 강릉 등 5개 △기독교 방송은 1, 2개의 지방국이나 중계소를 추가 인가하도록 건의하고 있다.

진리의 전화

부처님 품안 따뜻한 가정

구룡사 부설 인생상담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여기 지혜의 문이 있습니다. 진리의 전화가 있습니다.

상담전화 (02) 579-3033

조계종교육원 현판식

-來 13일, 각 위원위촉-

조계종 교육원(원장 원산)과 포교원(원장 정락)이 조계사 문화교육관 2층에 새로 사무실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교육원은 내년 1월13일 오후 2시 사무실에서 개원식 및 현판식을 거행한다.

한편 교육원은 고문에 지관 원운 인환스님등 7명, 교육위원회에 송산 법산 도업스님등 9명, 교재편찬위원회에 무관 종법 현각스님등 9명, 역경위원회에 무비 종진 호진 혜남스님 등 9명을 각각 위촉했다.

한 중 일 불교교류회의

5월 22·23일 북경에서

한국 중국 일본 불교우호교류회의가 내년 5월 22·23일 양일간 중국 북경 인민대회장에서 개최된다.

이번 대회에는 3국이 각각 공식대표단 30명 등 총 2백명씩 참가하게 된다. 매년 열리게 되는 한 중 일 불교우호교류회의 2차회의는 96년에 한국에서, 97년에 일본에서 개최하게 된다.

진흥원 새해 예산 45억원

대한불교진흥원 이사회(이사장·서돈각)는 지난 21일 오전 10시 30분 제66차 정기·이사회를 갖고 내년도 예산 45억원을 심의, 통과시켰다.

성원에 감사 드립니다

한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10월15일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를 실현하기위해 창간된 현대불교에 보내주신 독자 여러분의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대불교는 앞으로도 정법을 이끌어가는 힘찬 목소리로 독자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희망가득한 새해에도 현대불교와 함께 깨달음의 길을 닦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현대불교신문사 임직원 일동

중·고·대학생 13명에 무애 문화재단 장학금

무애문화재단(이사장 서돈각)은 지난 17일 불교방송 15층 회의실에서 제1회 장학금 및 연구비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장학금은 경희대 안천식군(법학과 3년) 등 대학생 4명에게 각 3백만원, 영신고 2년 민홍준군 등 고등학생 4명에게 각 80만원, 광신중학교 2년 최현환군 등 5명에게 각 60만원씩 수여됐다. 또한 연구비는 한국법학교수회와 중고등학교 교육연구회에 각각 2백만원씩 수여됐다.

불경서당 동문회 결성

연구논문집 발간키로

월운스님 및 불경서당 동문 20여명은 지난 16일 오후7시 경기 남양주군 봉선사 방저당에서 '봉선사 불경서당 동문회' 결성을 위한 모임을 가졌다.

동문회 결성을 합의한 불경서당 동문회는 매년 4월 마지막 일요일을 동문의 날로 정하고, 연세대 신규탁교수를 동문회 창립총회 준비위원으로 선출했다.

부당과세 철회요구

태고종에 9천만원 부과

행정기관의 잘못된 관단으로 인해 태고종에 9천여만원의 세금이 부과돼 물의를 빚고 있다.

성북구청은 태고종 총무원과 인접해있는 하천부지를 공공용지 독점사용이라는 이유로 변상금 고지서를 발부했다. 이의 부당성을 지적한 태고종은 부당한 과세 철회를 요구하며 진정서를 각 관공서에 제출해 현재 서울시 민원담당실에서 조사중이다.

수익금, 거룩한 만남에

중앙불교합창단연주회 성황

중앙불교합창단(지휘자 박범훈) 창단기념 연주회 '거룩한 만남을 위한 찬불가의 밤'이 지난 19일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1천3백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성료됐다. 이날 공연에서 얻어진 수익금 2천여만원은 전액 불교방송에 기탁됐다.

본사, 이웃돕기 성금 전달

20일 KBS에

현대불교신문사 임직원 일동은 지난 20일 정오 KBS에 불우이웃돕기 성금 1백39만6천원을 전달했다.

KAL WORLD TOUR KAL월드투어

불기 2539년

성도절 기념 大법회를 부다가야에서..

불자 여러분의 요청에 의하여 '94년에 이어 '95년에도 기획한 성도절 기념 특별상품

94년 1월 2차에 걸쳐 성공적인 성도절 대법회 참가행사를 불교방송(BBS)과 공동주관한 한진관광이 첫 행사에서 얻은 큰 호응과 불자 여러분들의 요청에 힘입어 95년 1월 성도절 대법회에 참가하실 기회를 또다시 마련했습니다.



"신심으로 성지를 순례하면 천상계에 환생하리라"
— 부처님 말씀 중에서 —

서울⇔델리 직행(2회)
대한항공 특별 전세기 운항

후원 : BBS 불교방송 인도관광성 대한항공

일반여행법 등록 제 8호

●1차 : '95. 1. 6~1. 15. (9박 10일)
●2차 : '95. 1. 14~1. 23 (9박 10일)

불교 성지순례 10일	
요금	₩ 1,240,000
경유지	델리, 알라하바드 (1 - 바라나시 (1 - 부다가야 (1 - 라즈기르, 나란다, 파트나 (1 - 바이샬리, 쿠시나가르 (1 - 룸비니, 발람프르 (1 - 럭나우, 아그라 (1 - 델리 (1 - 기내 (1
식사	조식 8회/중식 8회/석식 8회/기내식 3회
호텔	1급 2인 1실 기준(단, 부다가야, 쿠시나가르, 발람프르 지역 4인 1실)

인도 문화여행 10일	
요금	₩ 1,400,000
경유지	델리 (1 - 바라나시 (1 - 카쥬라호 (1 - 아그라 (2 - 파테프르시크리, 자이프르 (2 - 델리 (1 - 기내 (1
식사	조식 8회/중식 8회/석식 8회/기내식 3회
호텔	1급 2인 1실 기준

• 상기요금에서 인도, 네팔 비자요금 ₩19,000은 불포함입니다.
• 가까운 여행사에 문의하셔도 예약이 가능합니다.
• 신청금 ₩100,000 한일은행 009-03-011006 (주)한진관광
• 정부인가 조건임.

韓進觀光
서울시 중구 봉래동 1가 32-4
예약문의: 726-5763~4, 5771, 73
서울 (02) 726-5750 대전 (042) 252-2034
부산 (051) 463-2115 대구 (053) 254-3001
경주 (0561) 745-3070 광주 (062) 228-0041
제주 (064) 42-7217

이리루 전광칼럼 < 10 >

마 음

알쯔하이머병

"인간은 누구나 늙어가는 것을 어찌할 수가 없다. 억지로 자연에 대해 반항할 필요는 없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아하게 늙어가는 것이 좋다. 인생의 교향악은 경화, 정밀, 안락, 정신적 만족의 위대한 괴날레를 가지고 끝나야한다."

중국의 철학자 임어당이 일찍 갈파한 말인데 누구나 소망하는 일이긴 하지만 그것이 사람의 뜻데로 되는 일이 아니니 어찌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는가. 우아하게 늙고싶지만 기억과 지적능력이 황폐화 한다면 사람의 품위인들 간직할 수가 있겠는가.



초로성 치매…발병 5~10년후 사망

40대가 넘으면서 기억에 관한 재가끔씩의 일화들을 많이 갖고 있다. 점점 기억력이 그전만 같지 않다고 호소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런 기억력의 감퇴는 연령이 높아감에 따르는 자연적인 현상으로 발아드리면서도 "그것 보라구 그래서 늙었다는 거야."하고 친구들끼리 위안을 삼지만 그냥 그런 위안들으로 넘기지 못할 기억의 감퇴가 있다.

최근 전 미국 대통령이었던 레이건이 스스로 알쯔하이머병에 걸렸다고 실토함으로서 온 세계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일이 있는데 알쯔하이머 병이란 초로기에 발생하는 기억상실을 주된 증상으로하는 독특한 병이다. 50대의 이른나이에 겪는 노망쯤으로 생각하면 된다. 노망은 연령이 노년기에 이르러 일어나지만 이 알쯔하이머병은 노인이 되기도 전에 노망과 같은 증상을 일으킴으로서 초로성 치매라는 이름으로도 불리운다. 주로 50대에 시작하며 서서히 진행되는데 제일 특징적인 증상은 자발성이 떨어지고 지적인 능력이 떨어져 거의 황폐화된다. 구체적인 생각을 할수가 없으며 기억력이 많이 떨어진다. 말이 잘 안되고 읽고 쓰는데 실수를 자주 한다. 심한 치매상태가 되면 식물인간처럼 생리적인 욕구만 부지할 뿐 정신활동은 거의 못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발병후 약 5~10년이면 사망하게 되는 그런 병이다. 1906년에 독일의 알쯔하이머(1864~1915)라는 의사가 51세되는 여자환자의 뇌조직을 통해 처음 학계에 보고한 이후 서양에서는 흔한 병으로 소개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병을 확진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아직도 왜 이런 알쯔하이머병이 일어나며 얼마나 많은 환자가 발생하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 다만 노인성치매는 노인인구의 약 7~15% 수준에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다시 찾은 아들

주부신행담 ⑥

윤호는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다. 나는 지금도 부처님의 은혜를 어떻게 갚느냐를 가슴속 깊이 새기며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 그후 윤호는 나에게 간단한 편지를 주었다. "어머니! 어머니께서 저를 위해 피눈물나게 기도해 주신 은혜를 평생 다 갚을 수 없을 거예요."

"어머니의 은혜 평생 갚을 수 없을 거예요" 그 한마디에…

나는 윤호에게 우리는 든든한 부처님 배경이 있으니 조금도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그리고 윤호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새벽시간은 잠이 부족하니까 잠들기 직전에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일러주었다. 다행히도 거부하지 않고 열심히 기도해 주는 윤호가 측은하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했다. 윤호는 제법 어른스런 말들도 했다.

나는 3년동안 기도하면서 단 한번도 부처님께 윤호가 대학에 합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는 않았다. 다만 "인간다운 인간이 되게 해주소서"라고만 간곡히 기도드렸다. 어느때는 기도중에 설움에 복바쳐 흐느낀 적도 한두번이 아니었다.

힘들고 고된 하루하루를 보내다보니 드디어 대학입시 일주일을 앞두고 입학원서 결정을 하게 되었다. 학교에서는 서울대를 내보라는 의견이었지만 완강히 거부하고 나는 연세대 원서를 사왔다. 윤호의 평균점수보다 20점을 낮추어 점수를 하고 나니 마음이 아주 편했고 윤호도 편한 마음으로 공부를 하게 되었다. 우리 네 가족은 모두 마음을 비우고 똑같이 한 마음으로 입시생을 위해 기도를 했었다.

초조하게 기다리던 12월17일. 숨막히는 대학입시날이 왔었다. 나는 가족들 모르게 새벽에 약수터 물을 길어다 마음의 기도를 올린 후 그 물로 보리차와 커피를 끓여서 입시생 도시락에 넣어서 고사장에 들여 보냈다. 고사장에 아들녀석을 들여보내고 나니 뭔 눈물이 그렇게도 펑펑 쏟아지는지 눈물을 도저히 감당하기가 어려워 또 기도드렸다. "부처님, 아들녀석은 앞생을 좌우하는 시험을 치르는데 에미가 돼서 방정스럽게 눈물이 마구 쏟아지니 이게 웬 일입니까" 하면서 마음속으로 외치며 허물 깨물고 운동장에서 기도를 또 시작했었다. 다른 부모들은 집으로 돌아가고 몇몇 부모들만 운동장에 남아 있었다.

그날 유달리도 비가 주룩주룩 내렸으나 나는 추운 줄도 모르고 배고픈 줄도 몰랐다. 1시간 하고 10분 쉬고 해서 10시간 정도 기도를 하고 나니 입안에 모래알 같은 헛바늘이 돋았다. 어느덧 저녁 때가 되어가니 수험생이 하나 둘 밖으로 나오는데 윤호만 나오지 않았다. 그 순간 초조한 그 마음은 이 세상 수험생을 둔 부모님들은 다 아시리라. 맨 마지막에 윤호의 얼굴이 보여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더니 윤호는 빙긋이 웃으며 첫마디가 "어머니, 합격할 것 같아요" 였다. 그순간 나는 폭포수 같은 눈물을 감당할 수가 없어 마음놓고 실컷 울어버렸다. 평소에 시험을 아무리 잘 봐도 못봤다고 하는 윤호였기에 이번엔 과연 잘 봤구나 싶어 "부처님 감사합니다"를 수백번도 더 외치며 우리 가족들은 그날 바로 외식하러 아예로 가지고 해 간단한 파티를 했었다. 합격자 발표도 나기 전에 웬 파티냐는 생각도 들었지만 나는 크나크신 부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그날 이후로 합격자 발표 때까지 조금도 불안하지 않았다.



윤호는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다. 나는 지금도 부처님의 은혜를 어떻게 갚느냐를 가슴속 깊이 새기며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 그후 윤호는 나에게 간단한 편지를 주었다. "어머니! 어머니께서 저를 위해 피눈물나게 기도해 주신 은혜를 평생 다 갚을 수 없을 거예요." 윤호의 이 한마디에 그동안 쌓였던 응어리는 봄눈 녹듯이 다 녹아 내렸다. 지금은 '부처님 감사합니다'라는 기도에 여념이 없이 입과를 보탑있게 보낸다.

부처님의 가피로 윤호는 대학 합격 후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모두 부처님께 올리라고 나에게 주며 '어머니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고 했다. 그 말에 나는 또 한번 부처님께 감사드렸다. 윤호는 공이 있다면 앞으로 공부 열심히 해서 부처님 은혜를 갚는 것이라며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신흥사 법당을 만들어 보겠다고 포부를 말했다. 나는 또 한번 외치고 싶다. 이렇게 부처님의 은혜는 불가사의 하다고….

부처님 정말 고맙습니다.

김 신행화
〈신흥사 청소년 수련원 신도〉

영어로 배우는 경전 선생경 ⑤

사교장에 드나드는 데는 여섯가지 위험이 있다: 그 사람은 어디에 춤출데가 있는지, 노래할 데가 있는지, 음악, 낭송회가 있는지, 용과리, 징 치는 데가 있는지 계속 기웃거리게된다.

'Six, young householder, are the perils of gambling: if the man wins, he is hated; if he loses, he mourns his lost wealth; waste of wealth; his word has no weight in an assembly(a court of law); he is despised by his friends and companions; he is not sought in marriage, for people will say that a man who is a gambler will never make a good husband.'

젊은 장자여, 도박에는 여섯가지 위험이 있다: 만약 이기면 미움받고; 지면 잃어버린 재산을 아쉬워한다; 재산이 낭비되고; 그의 말은 법정에서도 신뢰를 얻지 못한다; 친구와 동료들에게 무시당하고; 결혼상대로 여겨지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도박하는 사람은 결코 좋은 남편이 될 수 없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undetected 발견되지 않은 'recitation 암송, 낭송 'cymbal 심벌즈 'tam-tam 징 〈박미영기자〉



마루난방에 적격입니다
휘어짐, 뒤틀림 등 기존 목재의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한 온돌전용 나무 마루재입니다.

내구성이 강합니다
강화 아포크 처리에 의해 어떠한 마루난방의 조건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JAS(일본 공업규격)보다 약 2배의 내마모성을 가진 사이렉스처리로 목재 특유의 아름다움이 언제나 유지됩니다.

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목재와 목재의 접합부분을 전용접착제로 견고하게 접착하는 네다레스 공법을 채택했습니다.

거실에서 주방·온돌방까지 원하는 곳 어디나…

주요 시공실적
- 현대건설 평창동 VILLA
- 한라건설 시그마 주상복합
- 나산건설 보라매 주상복합
- 나산건설 서초 주상복합
- 동부건설 우면동 VILLA
- 신동아건설 압사동 VILLA
- 현대건설 춘천봉의 VILLA
- 애경 DEPT(점포용)
- 롯데 DEPT(점포용)

WOODTEC
ESI 新生産業株式會社
우드텍사업부: 강남구 도곡 2동 454-56 (도곡전시장) 동화 B/D내 전화: 579-2793~4
본사: 서울 강남구 도곡동 423-5 (덕영빌딩) 전화: 572-0662 / FAX:575-9728
주요업종: 산업생동 · 종합 무역 · 식품기계 ENG · 건설자재 레저산업(동서울 스포츠 센터)

서울 대리점 구산 코퍼레이션 (02)515-9653~4
코인상사 (02)564-3171
경기 대리점 이건산업 (0341)987-9151~9
뵈닉스 (0342)701-8055
진흥주택 (0331)282-7528
응진실업 (032)549-2216~9
대구 대리점 동방상사 (053)766-9991
광주 대리점 규림상사 (062)676-2758
대전 대리점 경동 브일러 (042)932-3680